



THE JOHN PHILLIPS COMMENTARY SERIES

창세기 탐구

Exploring GENESIS

by

John Phillips

(재) gauC

창세기 탐구

Exploring GENESIS

by

John Phillips

Exploring GENESIS
by John Phillips

Copyright© 2010 by John Phillips Ministries international All right reserved
본서는 John Phillips Ministries international과의 계약에 의거 (재) gauC에서 번역 출간한
것이므로 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단 복제 또는 원문에 대해 무단 번역을 금합니다.

창세기 탐구

Exploring GENESIS

by

John Phillips

John Phillips 지음 | (재) gauC 편집부 옮김

(재) gauC

창세기 탐구

Exploring GENESIS

by John Phillips

2010년 7월 10일 초판 1쇄 발행

지은이 | 존 필립스

옮긴이 | (재) gauC 편집부

발행인 | 염재현

발행처 | (재) gauC

출판등록 | 2008년 11월 7일 제396-2008-000080호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4-2 메트로폴리스 802호

전화 | 031-904-7025 팩스 | 031-904-7026

홈페이지 | www.gaucbc.org

ISBN | 978-89-961937-0-8 93230

* 파본이나 잘못된 책은 (재)gauC에 연락주시면 교환해 드립니다.

차례

서문	7
머리말	9
개요	11

제1부 인류의 시작 - 고대의 역사

제1장 창조(1:1~2:25)	47
제2장 저주(3:1~4:15)	87
제3장 재앙(4:16~9:29)	116
제4장 연합(10:1~11:32)	164

제2부 히브리 민족의 시작 족장의 역사

제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12:1~25:18)	183
제6장 순례자 : 이삭(25:19~27:46)	371
제7장 번식자 : 야곱(28:1~35:29)	421
제8장 공급자 : 요셉(36:1~47:26)	513
제9장 결론(47:27~50:26)	656

서문

여러 해 동안 나는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예배와 저녁예배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선택한 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장별로 한 절, 한 절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에 축복이 되었고, 내 양들을 먹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해 설교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이끌어 올리고 조명해주는 좋은 주석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로마서에 통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우연히 존 필립스 목사님의 「로마서 탐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 필립스 목사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지만 나는 즉시 그 책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 쓰신 강해서들을 계속 구해 읽었습니다. 「성경 탐구」, 「계시록 탐구」, 그리고 「히브리서 탐구」 역시 도움이 되었고 영적으로 고무되었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되어 존 필립스 목사님이 나의 고향인 조지아 주에 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를 통해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곳 더핀웨이(Dauphin Way) 침례교회에서 주최한 성경토론회의(Bible conference)의 인도자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보다 목사님을 직접 만나 보니 더욱 훌륭한 분이심을 알게 되

어 감격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는 놀랍도록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경교사 중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창세기에 대한 책을 집필하시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나에게 직접 원고를 보내주시는 배려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창세기 원고를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읽었습니다. 나에게 창세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만큼 도움이 되고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필립스 목사님의 책은 학구적이고 성서에 입각하면서 꾸밈이 없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신학적이면서 경건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요(概要)는 뛰어난 겁니다. 그의 해석은 참신하면서도 적절합니다. 예해(例解)들은 들어난 진리에 적절합니다. 창세기 인물연구에 나타나는 목사님의 창의력은 내가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최고입니다.

이 책을 목회자, 복음전도자, 주일 성경공부 교사에게 그리고 창세기에 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이 책이 우리 세대에 쓴 가장 널리 알려진 창세기 주석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리 바인스(Jerry Vines)

더핀 웨이(Dauphin Way) 침례교회 목사
모빌, 알라바마

머리말

창세기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모든 것의 처음에 관한 책이며, 믿음과 예언과 장례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광대한 숲은 여기 묘목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묘판(苗板)”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초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을 여는 큰 굉음(轟音)입니다(the opening of crescendo). 하나님께서는 미미하고 애매한 음표 하나나 둘로 창세기를 시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들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 뛰어나와 하늘에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소리 같은 드럼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인류가 죄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벌즈의 굉음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홍수로 범람한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트럼펫의 나팔 소리로 그것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광대한 책을 접근해야 하겠습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창세기는 실제 사실에 대한 설명이기에 세상의 오락가락하는 설에 들먹거리져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영웅들의 행진,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 후의 성경의 마지막까지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등장, 이런 점점 커져가는 흥미와 함께 창세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창세기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서부터(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탐구」에는 뚜렷하고 명료한 개요(outline)로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많은 등장인물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썼습니다.

창세기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또한 계속 탐구하는 책 중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요

제1부 인류의 시작 고대의 역사 (1:1~11:32)

제1장 창조(1:1~2:25)

I. 서론(1:1)

II. 서술(1:2-31)

A. 어떻게 생명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가(1:2-13)

1. 온 세상이 혼돈 상태에 처함(1:2)
2. 온 세상의 혼돈 상태를 몰아내심(1:3-13)
 - a. 어두움을 몰아내심(1:3-5)
 - b. 무질서를 몰아내심(1:6-10)
 - (1) 구름을 일으키심(1:6-8)
 - (2) 육지를 일으키심(1:9-10)
 - c. 불모(不毛)의 상태를 몰아내심(1:11-13)

B. 어떻게 법이 이 땅에 세워졌는가(1:14-31)

1. 역할이 주어진 천체(1:14-19)
2.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1:20-31)

- a. 사람이 지배하도록 준비하심(1:20-25)
- b. 사람이 지배하도록 주심(1:26-31)
 - (1) 아담을 창조하심(1:26-27)
 - (2) 아담에게 영관(榮冠)을 씌워주심(1:28-31)
 - (i) 후손(1:28a)
 - (ii) 지위(1:28b)
 - (iii) 소유(1:29-31)

III. 결론(2:1-7)

- A. 하나님의 안식(2:1-3)
 - 1. 창조의 완성(2:1)
 - 2. 창조자의 만족(2:2-3)
- B. 하나님께서 재검토하심(2:4-7)
 - 1. 천체에 대한 재검토(2:4)
 - 2. 농경법에 대한 재검토(2:5-6)
 - 3. 인류학에 대한 재검토(2:7)

IV. 완결(2:8-25)

- A. 아담의 거처(2:8-17)
 - 1. 이상적인 환경(2:8-14)
 - 2. 이상적인 임무(2:15-17)
 - a. 구체적인 임무 (2:15)
 - b. 신성한 신임(2:16-17)
 - (1) 가능한 한 유쾌하게 주심(2:16)
 - (2) 가능한 한 명백하게 주심(2:17)
- B. 아담의 배필(2:18-25)
 -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아담의 소망(2:18)
 - 2.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소망(2:19-20)

3.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담의 소망(2:21-25)
 - a.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심(2:21-22a)
 - b. 아담에게 여자와 결혼시키심(2:22b-25)
 - (1) 결혼의 비전(2:22b)
 - (2) 결혼의 서약(2:23-24)
 - (3) 결혼의 순결(2:25)

제2장 저주(3:1~4:15)

I. 타락한 인류(3:1-24)

A. 인간의 타락(3:1-8)

1. 뱀의 간교함(3:1-6)

a. 이브의 지성에 호소함(3:1b-5)

- (1) 의심(3:1b-3)
- (2) 부인(3:4)
- (3) 망상(3:5)

b. 아담의 감정에 호소함(3:6)

- (1) 바라봄을 욕망으로 바꿈
- (2) 욕망을 결단으로 바꿈
- (3) 선택을 속박으로 바꿈
- (4) 죄인을 유혹하는 자로 바꿈

2. 뱀의 성공(3:7-8)

- a. 아담과 이브의 딱한 처지(3:7)
- b. 아담과 이브의 도피(3:8)

B. 인간의 장래(3:9-24)

1. 소환된 아담(3:9)

2. 조사받은 아담(3:10-13)

- a. 그의 설명(3:10)

- b. 그의 변명(3:11-12)
- c. 그의 본보기(3:13)
- 3. 판결받은 아담(3:14-19)
 - a. 전쟁(3:14-15)
 - b. 화(禍)(3:16)
 - c. 일(3:17-19)
 - (1) 보상 없는 수고(3:17-19a)
 - (2) 무자비한 공포 (3:19b)
- 4. 구원받은 아담(3:20-24)
 - a.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3:20-21)
 - (1) 아담의 고백(3:20)
 - (2) 아담의 앞가림(3:21)
 - b.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통제(3:22-24)

II. 최초의 거짓 종교(4:1-15)

- A. 가인의 종교의 거짓된 결론(4:1-7)
 - 1. 순전한 인간적인 계약(4:1-2)
 - 2. 순전한 인간적인 희생(4:3-4)
 - 3. 순전한 인간적인 만족(4:5-7)
- B. 가인의 격한 편협적인 종교(4:8-15)
 - 1. 폭력으로 특징지어짐(4:8)
 - 2. 거짓으로 특징지어짐(4:9)
 - 3. 헛된 것으로 특징지어짐(4:10-12)
 - 4. 공포로 특징지어짐(4:13-15)

제3장 재앙(4:16~9:29)

I. 심판을 향해 내달음질치는 세상(4:16~6:22)

- A.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4:16~6:7)
1. 경건치 않은 자들(4:16-24)
 - a.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4:16-17)
 - (1) 하나님의 위격(位格)에 대한 무관심(4:16)
 - (2)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무관심(4:17)
 - b.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4:18-24)
 - (1) 도덕적 혼란(4:19)
 - (2) 놀라운 발견(4:20-22)
 - (i) 마케팅-야발(4:20)
 - (ii) 음악-유발(4:21)
 - (iii) 야금술-두발가인(4:22)
 - (3) 호전적인 저항(4:23-24)
 2. 세속적이 아닌 사람들(4:25~5:32)
 - a. 새로운 씨의 시작방식(4:25~5:5)
 - (1) 새로운 태어남(4:25-26)
 - (2) 새로운 책(5:1-5)
 - b. 새로운 씨의 지속방식(5:6-32)
 - (1) 족장들(5:6-20)
 - (2) 예언자들(5:21-32)
 - (i)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증거함-에녹(5:21-24)
 - (ii)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 증거함-므두셀라(5:25-27)
 - (iii)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증인-라멕(5:28-31)
 - (iv)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증인-노아(5:32)
 3. 무법한 자들(6:1-7)
 - a. 그들의 엄청난 배교(6:1-3)
 - (1)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 상황(6:1-2)
 - (2)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상황(6:3)

- b. 하나님 없는 행위(6:4)
 - c. 그들의 더해 가는 사회적 혼란(6:5-7)
 - (1) 하나님의 분별(6:5)
 - (2) 하나님의 실망(6:6)
 - (3) 하나님의 결단(6:7)
- B. 그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6:8-22)
- 1. 한 사람(6:8-13)
 - a. 하나님으로부터 활력을 받음(6:8-10)
 - (1) 용서받음(6:8)
 - (2) 신실함(6:9)
 - (3) 다산(6:10)
 - b.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6:11-13)
 - (1) 하나님께서 땅을 살피심(6:11-12)
 - (2) 하나님께서 분노를 드러내심(6:13)
 - 2. 계획(6:14-22)
 - a.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6:14-16)
 - b.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6:17-22)

II. 심판으로 마침내 버려진 세상(7:1-24)

- A. 믿는 자들의 구원(7:1-9)
- 1. 노아에게 완전한 의뢰를 요구하심(7:1)
 - 2. 노아에게 마지막 위임이 주어짐(7:2-4)
 - 3. 노아가 신실한 순종을 보임(7:5-9)
- B.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7:10-24)
- 1. 멸망의 시기(7:10-16)
 - a. 심판의 지연(7:10)
 - b. 심판이 마침내 시작됨(7:11-16)
 - 2. 멸망의 완전함(7:17-24)

- a. 대홍수의 범위(7:17-20)
- b. 대홍수에 의한 집행(7:21-24)

III. 심판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된 세상(8:1~9:29)

A. 노아의 기다림(8:1-5)

- 1.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까지(8:1-2)
- 2. 대홍수가 물러갈 때까지(8:3)
- 3. 방주가 멈출 때까지(8:4-5)

B. 노아의 시험(8:6-14)

- 1. 노아가 추구하는 것(8:6-12)
- 2. 노아가 본 것(8:13-14)

C. 노아의 신뢰(8:15~9:17)

- 1.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8:15-19)
 - a. 명령을 경청함(8:15-17)
 - b. 명령에 유의함(8:18-19)
- 2. 노아와의 주님의 언약(8:20~9:17)
 - a. 하나님께서 은밀히 말씀하심(8:20-22)
 - b.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심(9:1-17)
 - (1) 언약의 일반적 규정(9:1-7)
 - (2) 언약의 중요한 규정(9:8-17)
 - (a) 그 취지(9:8-12)
 - (b) 그 증표(9:13-17)

D. 노아의 수고(9:18-23)

- 1. 아버지 노아(9:18-19)
- 2. 농장주 노아(9:20)
- 3. 실패자 노아(9:21-23)

E. 노아의 증거(9:24-29)

- 1. 입술로(9:24-27)

2. 삶으로(9:28-29)

제4장 연합 (10:1~11:32)

I. 하나님의 통치하심(10:1~11:9)

A. 인류의 분산이 완료됨(10:1-32)

1. 야벳의 족속들(10:1-5)
 - a. 서론(10:1)
 - b. 세운 사람들(10:2)
 - c. 종족들(10:3-5)
2. 함의 족속들(10:6-20)
 - a. 잘 알려진 이름들(10:6-7)
 - b. 악명 높은 니므롯 10:8-12)
 - c. 인근의 이웃들(10:13-20)
3. 셈의 족속들(10:21-32)
 - a. 고귀한 계통(10:21-25)
 - b. 관련된 계통(10:26-31)
 - c. 마감(10:32)

B. 인류가 흩어지게 된 원인(11:1-9)

1. 그들의 재료(11:1-3)
2. 그들의 방법(11:4a)
3. 그들의 동기(11:4b)
4. 그들의 실수(11:5-9)

II. 하나님의 은혜(11:10-32)

- A. 아브라함의 계보(11:10-26)
- B. 아브라함의 족보(11:27-32)
 1. 인간 아브람(11:27-30)

2. 순례자 아브람(11:31-32)
 - a. 첫 발을 내디딤(11:31a)
 - b. 첫 번째로 멈춤(11:31b-32)

제2부 히브리 민족의 시작 족장의 역사 (12:1~50:26)

제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12:1~25:18)

I. 믿음의 길(12:1-20)

- A.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12:1-9)
 1. 믿음의 길을 찾음(12:1-4)
 - a. 믿음의 고백(12:1-3)
 - b. 믿음의 실행(12:4)
 2. 믿음의 길을 따름(12:5-8)
 - a. 아브람의 증거(12:5)
 - b. 아브람의 행보(12:6a)
 - c. 아브람의 기다림(12:6b-7)
 - d. 아브람의 경배(12:8)
 3. 믿음의 길을 버림(12:9)
- B. 죄에 빠진 아브람(12:10-20)
 1. 기근(12:10)
 2. 불길한 예감(12:1-12)
 3. 거짓(12:13)
 4. 좌절(12:14-15)
 5. 아침(12:16)

6. 실패(12:17-20)

II. 믿음의 대가(13:1-18)

A. 영적인 사람의 특징(13:1-4)

1. 구별됨(13:1)
2. 성화(13:2-3)
3. 희생(13:4)

B. 영적인 사람의 생각(13:5-9)

1. 걱정되는 상황들(13:5-6)
2. 사악한 이웃들(13:7)
3. 보다 연약한 형제들(13:8-9)
 - a. 영적인 솔직함(13:8a)
 - b. 영적인 분별력(13:8b)
 - c. 영적인 품위(13:9)

C. 영적인 사람의 행동(13:10-18)

1. 하나님께서 제약하심(13:10-13)
 - a. 롯의 연약한 헌신
 - b. 롯의 세상적인 욕망(13:10)
 - c. 롯의 잘못된 결정(13:11-13)
2.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심(13:14-16)
 - a. 그의 소유와 관련하여(13:14-15)
 - b. 그의 자손에 대하여(13:16)
3. 하나님께서 조정하심(13:17-18)

III. 믿음의 능력(14:1-24)

A. 처절한 전투(14:1-11)

1. 연합(14:1-2)
2. 전투(14:3-9)

3. 패망(14:10-11)
- B. 미혹에 사로잡힌 형제(14:12)
- C. 역동적으로 믿는 자(14:13-24)
 1. 육신의 연약함(14:13)
 2. 세상의 지체(14:14-16)
 - a. 신속하게 행하는 아브람(14:14)
 - b. 현명하게 행하는 아브람(14:15)
 - c. 성공적으로 행하는 아브람(14:16)
 3. 악마의 간계(14:17-24)
 - a. 살렘 왕과의 중요한 만남(14:17-20)
 - b. 소돔 왕과의 불길한 만남(14:21-24)
 - (1) 아브람이 겪은 간교한 유혹(14:21)
 - (2) 아브람의 간단한 간증(14:22-24)

IV. 믿음의 보증(15:1-21)

- A. 아브람의 가족 형성(15:1-7)
 1.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15:1-4)
 - a. 언질(15:1)
 - b. 간구(15:2-3)
 - c. 계획(15:4)
 2.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15:5-6)
 3.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15:7)
- B. 아브람의 믿음의 근원(15:8-12)
 1. 그림자로 제시된 갈보리 : 그 신비를 깨달음(15:8-10)
 2. 경험하게 된 갈보리 : 그 비참함을 깨달음(15:11-12)
- C. 아브람의 밝은 미래(15:13-21)
 1. 연관된 구체적 시간(15:13-16)
 - a.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15:13-14)

- b.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15:15)
- c. 하나님의 예정된 뜻(15:16)
- 2. 구체적으로 연관된 영토(15:17-21)
 - a. 그 땅에 대한 보장(15:17)
 - b. 그 땅의 광대함(15:18-21)

V. 믿음의 담보(16:1-16)

- A.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시험(16:1-6)
 - 1. 아브람의 이중적인 마음(16:1-4)
 - a. 문제(16:1)
 - b. 제안(16:2-3)
 - c. 대가(代價)(16:4)
 - 2. 사래의 거짓된 마음(16:5-6)
 - a. 길들여지지 않은 혀(16:5)
 - b. 길들여지지 않은 성미(16:6)
 - 3. 하갈의 반항적인 의지(16:6)
- B.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실(16:7-16)
 - 1. 하갈에게 주신 계시(16:7-12)
 - a. 무소부재하신 분의 나타나심 : 은혜의 계시(16:7-8)
 - b. 전능하신 분의 명하심 : 통치의 계시(16:9)
 - c. 전지하신 분의 위로 : 위대함의 계시(16:10-12)
 - (1) 약속(16:10-11)
 - (2) 예언(16:12)
 - 2. 하갈의 응답(16:13-16)
 - a. 말로 드러낸 믿음(16:13-14)
 - b. 생명력을 드러낸 믿음(16:15-16)

VI. 믿음의 잠재력(17:1-27)

- A. 언약을 받는 방법(17:1-16)
 - 1. 절대적 복종으로(17:1-3)
 - 2. 절대적 침묵으로(17:4-16)
 - a. 약속의 내용(17:4-8)
 - (1) 관련된 원칙
 - (2) 관련된 백성(17:4-6)
 - (3) 관련된 기간(17:7)
 - (4) 관련된 장소(17:8)
 - b. 약속의 인증(17:9-14)
 - (1) 연관된 의미(17:9-11)
 - (2) 이행(17:12-13)
 - (3) 중요성(17:14)
 - c. 약속의 정신(17:15-16)
- B. 언약을 믿는 방식(17:17-27)
 - 1. 믿음의 웃음(17:17)
 - 2. 믿음의 이치(17:18-22)
 - a. 이스마엘을 위한 간청(17:18)
 - b. 이스마엘에 대한 언질(17:19-22)
 - (1) 유보조항(17:19)
 - (2) 왕족의 조항(17:20-22)
 - 3. 믿음의 삶(17:23-27)
 - a. 무제한적인 순종(17:23-24)
 - (1) 아버지로서의 순종(17:23a)
 - (2) 족장으로서의 순종(17:23b)
 - (3) 지위에 따른 순종(17:23c)
 - (4) 개인적인 순종(17:24)
 - b. 제한적인 순종(17:25-27)
 - (1) 거역하는 자의 상태(17:25)

(2) 의로운 자의 입지(17:26-27)

VII. 믿음의 기도(18:1-33)

- A. 실용적인 사람(18:1-8)
 - 1. 서두름(18:1-2)
 - 2. 손님 접대(18:3-8)
- B. 특혜 받은 사람(18:9-15)
 - 1. 약속(18:9-10)
 - 2. 문제(18:11-15)
- C. 증명된 사람(18:16-22)
 - 1. 예기되는 위대함(18:16-18)
 - 2. 개인적인 위대함(18:19)
 - 3. 지위에 따른 위대함(18:20-22)
- D. 기도하는 사람(18:23-33)
 - 1. 아브라함의 태도(18:23a)
 - 2. 아브라함의 논쟁(18:23b-32)
 - 3. 아브라함의 확신(18:33)

VIII. 믿음의 위치(19:1-38)

- A. 소돔의 부정한 도덕성(19:1-11)
 - 1. 만연되어 있음(19:1-3)
 - 2. 오염되어 있음(19:4-5)
 - 3. 집요했음(19:6-9a)
 - 4. 호전적이었음(19:9b)
 - 5. 처벌되어야 했음(19:10-11)
- B. 소돔의 불경건한 정신상태(19:12-38)
 - 1. 세속화된 롯의 믿음(19:12-26)
 - a. 롯의 하잘것없는 증언(19:12-14)

- b. 롯의 약한 의지(19:15-23)
 - (1) 마지못한 출발(19:15-17)
 - (2) 멈추려고 하는 마음(19:18-23)
- c. 롯의 정함이 없는 아내(19:24-26)
- 2. 타락한 롯의 가정(19:27-38)
 - a. 롯이 어떠한가 했었는가(19:27-29)
 - b.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19:30-38)
 - (1) 믿음 없는 소돔의 사고방식(19:30-32)
 - (2) 부끄럼 없는 소돔의 행위(19:33-36)
 - (3) 축복받지 못한 소돔의 자손(19:37-38)

IX. 믿음의 여정에서의 위험들(20:1-18)

- A. 이동하는 순례자(20:1-2)
- B. 가련한 선지자(20:3-16)
 - 1. 선지자로서 즉시 인정받지 못함(20:3-7)
 - a. 구원받지 못한 아비멜렉의 상태 (20:3)
 - b. 아비멜렉의 강력한 불평(20:4-5)
 - c. 아비멜렉의 마지막 생각(20:6-7)
 - (1) 주권적으로 제지당함(20:6)
 - (2) 아비멜렉에 여전히 책임이 있음(20:7)
 - 2. 아직은 선지자로 간주되지 않음(20:8-13)
 - a. 하나님께는 불신에 찬 행동(20:11)
 - b. 사람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20:12)
 - c. 자신에게는 불명예스러운 행동(20:13)
 - 3. 선지자로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20:14-16)
 - a. 아비멜렉이 그를 수치스럽게 함(20:14)
 - b. 아비멜렉이 그를 물러가게 함(20:15)
 - c. 아비멜렉이 그를 멸시함(20:16)

C. 사역하는 제사장(20:17-18)

1. 그의 사역의 영역(20:17a)
2. 그의 사역의 성공(20:17b)
3. 그의 사역의 의미(20:18)

X. 믿음의 상급(21:1-34)

A. 이삭에 대한 엄청난 기적(21:1-8)

1. 탄생에 대한 정확한 예언(21:1-2)
2. 탄생에 대한 정확한 성취(21:3-8)
 - a. 하나님께 의존(21:3-4)
 - b. 성장(21:5-8)

B. 이스마엘의 무서운 조롱(21:9)

C. 사라의 전형적인 메시지(21:10)

D. 아브라함의 비극적인 실수(21:11)

E.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21:12-13)

1. 하나님의 명령(21:12)
2. 하나님의 위로(21:13)

F. 하갈의 눈물 어린 고통(21:14-21)

1. 쫓겨남(21:14)
2. 소망이 깨져버림(21:15-16)
3. 하나님께 붙들림(21:17-21)

G. 투명하게 드러나는 아비멜렉의 동기(21:22-34)

1. 그의 청원(21:22-24)
2. 그의 맹세(21:25-31)
3. 그의 돌아감(21:32-34)
 - a. 일하는 아브라함(21:33a)
 - b. 경배드리는 아브라함(21:33b)
 - c. 기다리는 아브라함(21:34)

XI. 믿음의 증거(22:1-24)

- 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련해두신 갑작스런 시험(22:1-2)
- 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신 순수한 믿음(22:3-12)
 - 1. 십자가의 길(22:3-5)
 - 2. 십자가의 말씀(22:6-8)
 - 3. 십자가의 일(22:9-12)
- C.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엄숙한 진리(22:13-24)

XI. 믿음의 인내(23:1-20)

- A. 아브라함의 애통(23:1-6)
 - 1. 아브라함의 눈물(23:1-2)
 - 2. 아브라함의 간증(23:3-6)
 - a. 나그네
 - b. 체류하는 자
- B. 사라의 무덤(23:7-18)
 - 1. 공손한 아브라함(23:7-8)
 - 2. 신중한 아브라함(23:8-18)
- C. 에브론의 선물(23:19-20)

XIII. 믿음의 삶에서의 경계(24:1-67)

- A. 지혜로운 체류자(24:1-9)
- B. 놀라운 종(24:10-28)
- C. 세속적인 죄인(24:29-33)
- D. 자발적인 성도(24:34-61)
 - 1. 이삭에 대해 알아가는 리브가
 - 2. 이삭을 갈망하는 리브가
 - 3. 이삭을 찾는 리브가
- E. 기다리는 아들(24:62-67)

IV. 믿음의 이별(25:1-11)

- A. 열매 맺은 사람(25:1-4)
 - 1. 아브라함의 결정(25:1)
 - 2. 아브라함의 후손들(25:2-4)
 - a. 시므란(25:2)
 - b. 욱산(25:2-3)
 - c. 므단(25:2)
 - d. 미디안(25:2, 4)
 - e. 이스박(25:2)
 - f. 수아(25:2)
- B.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25:5-6)
 - 1. 그의 재산의 양도(25:5)
 - 2. 그의 가족의 분산(25:6)
- C. 완전한 인간(25:7-11)
 - 1. 아브라함의 날들의 분량(25:7)
 - 2. 아브라함의 죽음의 방식(25:8)
 - 3. 아브라함의 소망(25:9-11)
 - a. 아버지로서의 바람(25:9a)
 - b. 개인적인 바람(25:9b-10)
 - c. 족장으로서의 바람(25:11)
- D. 하찮은 인간(25:12-18)
 - 1. 이스마엘의 계보(25:12-15)
 - a. 주목할 만한 탄생(25:12)
 - b. 수많은 아들들(25:13-15)
 - 2. 이스마엘의 다섯 가지 승리(25:16)
 - a. 족속
 - b. 장소
 - c. 힘

- d. 지도자들
- e. 소유
- 3. 이스마엘의 최후의 비극(25:17-18)
 - a. 그의 가없는 죽음(25:17)
 - b. 그의 세속적 욕망(25:18)

제6장 순례자 : 이삭(25:19~27:46)

I. 이삭과 그의 아들들(25:19-34)

A. 태 안에 있는 쌍둥이 형제(25:19-26)

- 1. 불임의 아내(25:19-21)
 - a. 리브가의 족보(25:19-20)
 - b. 리브가의 문제(25:21)
- 2. 은밀한 전쟁(25:22-26)
 - a. 두 본성간의 다툼을 경험함(25:22)
 - b. 두 본성간의 다툼이 설명됨(25:23)
 - c. 두 본성간의 다툼이 밝혀짐(25:24-26)

B. 세상에 나온 쌍둥이 형제들(25:27-34)

- 1. 커져가는 갈등(25:27-28)
 - a. 두 소년의 성장모습(25:27)
 - b. 두 소년의 다른 모습(25:28)
- 2. 대 결전(25:29-34)
 - a. 에서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둬(25:29-34)
 - (1) 그가 본 것(25:29)
 - (2) 그가 말한 것(25:30-32)
 - (3) 그가 판 것(25:33-34)
 - b. 야곱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둬(25:31-34)
 - (1) 가족의 재산

- (2) 가문의 제사장직
- (3) 믿음의 조상으로서 갖는 권리

II. 이삭과 그의 행동(26:1-35)

A. 이삭의 행보(26:1-5)

- 1. 어려운 문제를 만남(26:1)
- 2. 하나님의 금지사항(26:2a)
- 3. 확고한 약속(26:2b-5)

B. 이삭의 아내(26:6-11)

- 1. 거짓말을 준비하다(26:6-7)
- 2. 거짓말이 폭로되다(26:8-11)
 - a. 그것은 부당함(26:8-10)
 - b. 그것은 불필요함(26:11)

C. 이삭의 재산(26:12-16)

- 1. 이삭은 부자였음(26:12-14a)
- 2. 이삭은 시기의 대상이 됨(26:14b-16)

D. 이삭의 우물(26:17-22)

- 1. 이삭이 회복한 것(26:17-18)
- 2. 이삭이 깨달은 것(26:19-22)
 - a. 에섹 : 언쟁(26:19-20)
 - b. 싯나 : 경멸(26:21)
 - c. 르호봇 : 무관심(26:22)

E. 이삭의 예배(26:23-25)

- 1. 중요한 계시(26:23-24)
 - a. 하나님의 인격
 - b. 하나님의 보호
 - c. 하나님의 임재
 - d. 하나님의 약속

- 2. 즉각적인 반응(26:25)
 - a.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경배로
 - b. 말로
 - c. 구체적인 일로
- F. 이삭이 받은 증거(26:26-33)
 - 1. 적(敵)의 접근(26:26-27)
 - 2. 적(敵)의 호소(26:28-29)
 - 3. 적(敵)의 유화책(宥和策)(26:30-33)
- G. 이삭의 근심(26:34-35)

III. 이삭과 그의 복(27:1-46)

- A. 영적이지 못한 아버지(27:1-4)
 - 1. 이삭의 염려(27:1-2)
 - 2. 이삭의 육신적인 점(27:3-4)
 - a. 완고한 저항
 - b. 감각적인 행동
- B. 복종하지 않는 아내(27:5-10)
 - 1. 리브가의 결정(27:5-7)
 - 2. 리브가의 속임수(27:8-10)
- C. 몰염치한 형제(27:11-33)
 - 1. 야곱의 의심받을 만한 행동(27:11-27)
 - a. 그의 두려움(27:11-13)
 - b. 그의 거짓됨(27:14-27)
 - 2. 야곱이 훔친 복(27:28-33)
 - a. 복의 내용(27:28-29)
 - b. 복의 확증(27:30-33)
- D. 구원받지 못한 아들(27:34-46)
 - 1. 에서의 간절한 회한(悔恨)(27:34-35)

2. 에서의 가슴속 깊이 맺힌 분노(27:36-37)
3. 에서의 성가신 요청(27:38-40)
4. 에서의 충동적인 결심(27:41-46)

제7장 번식자 : 야곱(28:1~35:29)

I.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는 방식(28:1-22)

A. 야곱의 출발(28:1-9)

1. 매우 중요한 일(28:1-4)
 - a. 당부의 말 : 그의 배우자(28:1-2)
 - b. 영감의 말씀 : 그의 경배(28:3-4)
2. 즉각적인 영향(28:5-9)
 - a. 에서가 들은 것(28:5-7)
 - b. 에서가 희망한 것(28:8-9)

B. 야곱의 꿈(28:10-17)

1. 먼 나라(28:10-11)
2. 새로운 언약(28:12-15)
 - a.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하신 것(28:12)
 - b.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28:13-15)
3. 확고한 확신(28:16-17)

C. 야곱의 결단(28:18-22)

1. 야곱은 신속하게 행함(28:18a)
2. 야곱은 단호하게 행함(28:18b-19)
3. 야곱은 실제적으로 행함(28:20-22)

II.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종시키시는 방식(29:1~30:43)

A. 밧단아람에 도착한 야곱(29:1-12)

1. 우물에 다다름(29:1-3)

2. 우물가에서의 자신감(29:4-8)
 3. 우물가에서의 승리(29:9-12)
- B. 밧단아람에서의 야곱의 계획(29:13~30:43)
1. 야곱의 아내들의 갈등(29:13~30:24)
 - a. 그의 불타는 사랑(29:13-20)
 - b. 첫 번째 교훈(29:21-31)
 - c. 그의 가정생활(29:32~30:24)
 - (1) 르우벤 : 쓰라린 번민의 아이(29:32)
 - (2) 시므온 : 절대적인 실망의 아이(29:33)
 - (3) 레위 : 영적 침체의 아이(29:34)
 - (4) 유다 : 빛나는 운명의 아이(29:35)
 - (5) 단 : 지속적인 절망의 아이(30:1-6)
 - (6) 납달리 : 구원이라고 생각되었던 아이(30:7-8)
 - (7) 갓 : 슬픈 실패의 아이(30:9-11)
 - (8) 아셀 : 뜻밖의 즐거움의 아이(30:12-13)
 - (9) 잇사갈 : 통명스러운 혐오감의 아이(30:14-18)
 - (10) 스블론 : 강한 욕망의 아이(30:19-20)
 - (11) 디나 : 조용한 위엄의 아이(30:21)
 - (12) 요셉 : 소중한 헌신의 아이(30:22-24)
 2. 품삯의 문제(30:25-43)
 - a. 야곱의 확신이 일깨워진 이유(30:25-26)
 - b. 야곱의 확신이 제지된 이유(30:27-43)
 - (1) 그의 증거(30:27-30)
 - (2) 그의 품삯(30:31-36)
 - (3) 그의 계약(30:37-43)

III.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중단시키셨는가(31:1~32:32)

- A. 어떻게 옛 목표가 도전받았는가(31:1-16)

1. 야곱의 근본적인 걱정(31:1-3)
 - a. 갑작스럽게 위협적으로 바뀐 세상(31:1-2)
 - b. 갑자기 의미심장하게 바뀐 세상(31:3)
 2. 야곱의 가족회의(31:4-9)
 - a. 확인된 라반의 혐오감(31:4-5)
 - b. 계속된 라반의 부정직함(31:6-9)
 3. 야곱의 신앙고백(31:10-13)
 - a. 그의 번영에 관하여(31:10-12)
 - b. 그의 장래의 전망에 관하여(31:13)
 4. 야곱의 마지막 의뢰(31:14-16)
- C. 어떻게 옛 신들은 도전받았는가(31:17-35)
1. 라반이 가르친 것(31:17-21)
 - a. 무정한 편법(31:17-19a)
 - b. 잘못된 신앙(31:19b-21)
 2. 라반의 생각(31:22-30)
 - a. 어떻게 여호와를 만났는가(31:22-24)
 - b. 어떻게 야곱을 만났는가(31:25-30)
 3. 라반의 추구(31:31-35)
- C. 어떻게 오래된 원한들은 도전받았는가(31:36-55)
1. 야곱의 의로운 분개(31:36-42)
 - a. 라반의 맹렬한 추격에 의한 분노(31:36)
 - b. 라반에게 부당하게 비난받은 것에 대한 분노(31:37-40)
 - c. 라반에게 부당하게 속은 것에 대한 분노(31:41-42)
 2. 야곱의 종교적 간구(31:43-55)
 - a. 서약 : 라반에게는 경계(境界)(31:43-53)
 - b. 제물 : 야곱에게는 축복(31:54-55)
- D. 어떻게 오래된 죄는 도전받았는가(32:1-32)
1. 하나님께 받은 야곱의 확증(32:1-2)

2. 하나님께 대한 야곱의 혼동(32:3-23)

a. 협상해보려고 함(32:3-8)

(1) 은혜를 구함(32:3-5)

(2) 응답(32:6)

(3) 반응(32:7-8)

b. 간구해보려고 함(32:9-12)

(1) 하나님의 목적에 호소(32:9)

(2) 하나님의 섭리를 간구(32:10)

(3)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32:11)

(4)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32:12)

c. 화해를 청함(32:13-23)

3. 야곱의 하나님과의 대면(32:24-32)

a. 홀로된 야곱(32:24a)

b. 살아있는 야곱(32:24b-25a)

c. 변화된 야곱(32:25b-32)

IV.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분리시키셨는가(33:1~34:31)

A. 야곱과 그의 형(33:1-16)

1.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찾았는가(33:1-3)

a.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야곱(33:1-2)

b. 용기 있는 야곱(33:3a)

c. 뉘우치는 야곱(33:3b)

2.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는가(33:4-7)

3. 어떻게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었는가(33:8-11)

a. 단번에 야곱의 속죄헌물을 거절함(33:8-9)

b. 너그럽게 야곱의 선물을 받음(33:10-11)

4. 어떻게 에서는 야곱을 두렵게 했는가(33:12-16)

a. 함께해 주겠다는 제안(33:12-14)

- b. 보호해 주겠다는 제안(33:15-16)
- B. 야곱과 그의 타락(33:17~34:31)
 - 1. 순례자로서의 야곱의 실패(33:17-20)
 - a. 숙곳 : 야곱이 거주지를 세움(33:17)
 - b. 세겜 : 야곱이 돈을 주고 삼(33:18-20)
 - 2. 부모로서의 야곱의 실패(34:1-31)
 - a. 디나의 행위로 인한 수치(34:1-7)
 - (1) 그녀가 자신을 드러냄(34:1-2a)
 - (2) 그녀가 유혹받음(34:2b)
 - (3) 그녀를 요구함(34:3-7)
 - (a) 세겜의 사랑(34:3)
 - (b) 세겜의 열망(34:4)
 - (c) 세겜의 부채(34:5-7)
 - b. 디나의 오빠들로 인한 수치(34:8-31)
 - (1) 문제를 야기한 절실한 간청(34:8-12)
 - (a) 하몰의 세상적인 계획(34:8-10)
 - 세상적인 공동체를 제안(34:8-9)
 - 세상적인 안전을 제안(34:10a)
 - 세상적인 성공을 제안(34:10b)
 - (b) 세겜의 자발적인 서약(34:11-12)
 - (2) 진행과정의 성격을 드러내는 비열한 교활함(34:13-24)
 - (a) 시므온과 레위의 간교한 부정직함(34:13-17)
 - (b) 보다 단순한 하몰의 부정직함(34:18-24)
 -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34:18-19)
 - 제안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었는가(34:20-22)
 - 제안을 어떻게 합리화시켰는가(34:23)
 - 제안을 어떻게 확인했는가(34:24)
 - (3) 제후를 종결시키는 끔찍한 범죄(34:25-29)

(4) 계락을 저주하는 절망적인 외침(34:30-31)

V.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성화시키셨는가(35:1-29)

A. 믿는 자로서의 야곱(35:1-15)

1. 야곱의 영적 생명력을 새롭게 하심(35:1-4)
 - a. 장소(35:1a)
 - b. 목적(35:1b)
 - c. 준비(35:2-4)
2. 야곱의 영적 승리를 새롭게 하심(35:5)
3. 야곱의 영적 진실성을 새롭게 하심(35:6-15)
 - a. 하나님께 대한 그의 관계가 새롭게 고백됨(35:6-8)
 - b. 하나님께 대한 그의 관계가 새롭게 확인됨(35:9-13)
 - c. 하나님께 대한 그의 관계가 새롭게 요구됨(35:14-15)

B. 상(喪) 당한 야곱(35:16-29)

1.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야곱(35:16-26)
 - a. 라헬의 상실(35:16-21)
 - (1) 야곱의 알 수 없는 실수(35:16a)
 - (2) 야곱의 갑작스런 불행(35:16b-21)
 - b. 르우벤의 정욕(35:22-26)
 - (1) 추악한 정욕(35:21-22a)
 - (2) 감춰진 도끼(35:22b-26)
2. 자신의 아버지와 사별한 야곱(35:27-29)

제8장 공급자 : 요셉(36:1~47:26)

I. 요셉의 배경(36:1-43)

A. 에서의 개인 역사(36:1-8)

1. 에서의 직계가족(36:1-5)

2. 에서의 엄청난 재산(36:6-7)

3. 에서의 난공불락의 요새(36:8)

B. 에돔의 정치적 역사(36:9-43)

1. 에돔에 있는 에서의 자손(36:9-19)

a. 첩들의 자손들(36:9-17)

b. 특별한 아내의 자손들(36:18-19)

2. 에서 이전의 에돔 지배자들(36:20-30)

3. 에돔에서 에서의 탁월함(36:31-43)

II. 요셉의 소년시절(37:1-11)

A. 요셉의 영적 욕구(37:1-2)

1. 동화되려는 유혹

2. 감춰주려는 유혹

B. 요셉의 화려한 옷(37:3-4)

1. 제사장 직분의 옷

2. 조상의 자격의 옷

3. 장자의 우선권을 뜻하는 옷

C. 요셉의 깜짝 놀랄 만한 꿈들(37:5-11)

1. 곡식의 단들 : 세상의 자원에 대한 지배(37:5-8)

2. 별들 : 세상 지배자들에 대한 통솔(37:9-11)

III. 요셉이 당한 배신(37:12-36)

A. 어떻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보내졌는가(37:12-17)

1. 임무가 논의됨(37:12-14)

2. 임무가 수행됨(37:15-17)

B. 어떻게 그의 형들은 요셉을 보았는가(37:18-27)

1. 그들의 의식적인 사악함(37:18-23)

a. 연합된 적개심(37:18-19)

- b. 불타는 시기심(37:20, 23)
- 2. 죄가 되는 르우벤의 유약함(37:21-22, 29-30)
- 3. 유다의 세속적인 계산(37:25-27)
- C. 어떻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는가(37:28-36)
 - 1. 훌륭한 현금거래(37:28)
 - 2. 첫 번째 양심의 가책(37:29-36)

IV. 요셉의 형제(38:1-30)

- A. 유다와 그의 아들들(38:1-10)
 - 1. 그의 제멋대로 하는 행동(38:1)
 - 2. 세상적인 신부(38:2-5)
 - 3. 사악한 아들들(38:6-10)
 - a. 첫째 아들(38:6-7)
 - b. 둘째 아들(38:8-10)
- B. 유다와 그의 죄(38:11-26)
 - 1. 그의 왜곡된 가치관(38:11-14)
 - a. 그의 진실에 대한 인식의 실패(38:11)
 - b. 그의 진실에 대한 추구의 실패(38:12)
 - c. 그의 진실에 대한 실천의 실패(38:13-14)
 - 2. 그의 개인적인 비열함(38:15-23)
 - a. 그의 방종한 열정(38:15-16)
 - b. 그의 명백한 서약(38:17-18)
 - c. 그의 예기치 않은 문제(38:19-23)
 - 3. 그의 위선(38:24-26)
 - a. 그가 요구한 것(38:24)
 - b. 그가 발견한 것(38:25)
 - c. 그가 선언한 것(38:26)
- C. 유다와 그의 자손(38:27-30)

1. 구속된 아이(38:28, 30)
2. 왕실의 아이(38:29)

V. 요셉의 멨(39:1~40:23)

- A. 노예 : 부유한 주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신임받음(39:1-6)
- B. 성공한 남자 : 집요한 여인에게 지속적으로 시험받음(39:7-20)
- C. 누명 쓴 남자 :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시험받음(39:21~40:23)
 1. 요셉에게 요구된 믿음(39:21-23)
 2. 요셉이 보여준 사랑(40:1-22)
 3. 요셉에게 지연된 소망(40:23)

VI. 요셉의 복(41:1-44)

- A. 하나님의 섭리(41:1-8)
 1. 왕의 꿈(41:1-7)
 2. 왕의 근심(41:8)
- B.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41:9-13)
 1. 하나님의 완벽하신 최적의 순간(41:9)
 2. 하나님의 완벽하신 책략(41:10-13)
- C.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뜻(41:14-44)
 1. 요셉이 파라오에게 소개됨(41:14-37)
 2. 파라오를 통해 요셉을 높임(41:38-44)

VII. 요셉의 신부(41:45-52)

- A. 아스낫의 은혜 받은 자리(41:45-49)
 1. 높이 올려짐(41:40, 45)
 2. 높이 찬양받음(41:45-49)
- B. 그녀의 잊힌 과거(41:45)
- C. 그녀의 신실한 본분(41:50-52)

1. 므낫세 : “잊어버림” (41:50-51)
2. 에브라임 : “풍성한 열매” (41:52)

VIII. 요셉의 형제들(41:53-47:10)

A. 불가사의한 국면(41:53~44:34)

1. 얼마나 요셉 형제들이 걱정에 짓눌렸었는가(41:53~42:34)
 - a. 예고된 기근(41:53-57)
 - (1) 그 가혹함(41:54-56)
 - (2) 그 중요한 의미(41:56-57)
 - b.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집안(42:1-5)
 - c. 손가락이 지시하는 점(42:6-34)
 - (1) 단순한 무지(42:6-9)
 - (2) 미묘한 연루(42:10-17)
 - (3) 스스로 죄를 인정(42:18-23)
 - (4) 고통스런 위협(42:24-34)
2. 얼마나 요셉의 형제들이 당황했겠는가(42:35~43:34)
 - a. 야곱의 곤경(42:35-38)
 - b. 유다의 서약(43:1-15)
 - (1) 그 타당성(43:1-8)
 - (2) 그 성실성(43:9-10)
 - (3) 그 성공(43:11-15)
 - c. 요셉의 계획(43:16-34)
3. 어떻게 요셉의 형제들이 깨어졌는가(44:1-34)
 - a. 음모(44:1-3)
 - b. 대면(44:4-15)
 - (1) 재앙이 떨어짐(44:4-12)
 - (2) 분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함(44:13-15)
 - c. 회개(44:16-34)

(1) 유다가 죄의 책임을 함께 지겠다고 제안함(44:16-17)

(2) 유다가 죄의 책임을 전적으로 홀로 담당하겠다고 제안함(44:18-34)

B. 영광의 국면(45:1-24)

1. 요셉이 자신을 드러냄(45:1-16)

a. 자신의 실상을 드러냄(45:1-3)

(1) 갑작스런 의외의 일(45:1)

(2) 정신 차리게 만드는 계시(45:2)

(3) 간단한 계시(45:3a)

(4) 성공적인 계시(45:3b)

b.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45:4-16)

(1) 목적은 용서하는 데에 있음(45:4-5)

(a) 그들의 죄를 다룸(45:4)

(b) 그들의 고뇌를 다룸(45:5)

(2) 목적은 예비하는 데에 있음(45:6-12)

(a) 은혜로 보게 함(45:6)

(b) 은혜로 구원함(45:7)

(c) 은혜로 통치함(45:8)

(c) 은혜로 성화시킴(45:9)

(e) 풍족한 은혜(45:10-12)

(3) 목적은 찬양하게 하는 데에 있음(45:13)

(4) 목적은 가까이 하는 데에 있음(45:14-16)

2. 요셉의 재원(財源)(45:17-23)

a. 그것들의 출처(45:17-20)

b. 그것들의 풍요(45:21-23)

3. 요셉의 부탁(45:24)

C. 사역의 국면(45:25~47:10)

1. 제안(提案)(45:25~46:7)

- a. 야곱의 두려움(45:25-28)
 - (1) 그의 두려움이 드러남(45:25-26)
 - (2) 그의 두려움이 사라짐(45:27-28)
- b. 야곱의 믿음(46:1-7)
 - (1) 주님을 찾음(46:1)
 - (2) 주님을 봄(46:2)
 - (3) 주님을 섬김(46:3-7)
- 2. 번성(46:8-30)
 - a. 야곱의 가족(46:8-27)
 - b. 야곱이 총애하는 사람들(46:28-30)
- 3. 준비(46:31-34)
 - a. 성공적인 중재자(46:31-32)
 - (1) 파라오 앞에 선 요셉(46:31)
 - (2) 파라오 앞에서 간청함(46:32)
 - b. 성공적으로 섬기는 자(46:31-34)
 - (1) 명확한 지시(46:33-34a)
 - (2) 명백한 의도(46:34b)
- 4. 알현(謁見)(47:1-10)
 - a. 요셉이 파라오 앞에 형제들을 데려감(47:1-6)
 - b.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함(47:7-10)

IX. 요셉의 시혜(施惠)(47:11-26)

- A. 요셉의 은혜(47:11-12)
 - 1. 형제들에게 준 지위(47:11a)
 - 2. 형제들에게 준 소유(47:11b)
 - 3. 형제들에게 준 몫(47:12)
- B. 요셉의 통치(47:13-22)
 - 1. 돈(47:13-14)

2. 소유물(47:15-17)
 3. 소유지(47:18-20)
 4. 개개인(47:21-22)
- C. 요셉의 선(善)함(47:23-26)
1.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47:23-25)
 - a. 간단한 말로 말해짐(47:23-24)
 - b. 기쁘게 받아들임(47:25)
 2. 기본원칙이 세워짐(47:26)

제9장 결론(47:27~50:26)

I. 야곱의 죽음(47:27~50:21)

- A. 야곱의 예지(47:27~49:27)
1. 선택한 총애하는 자(47:27~48:22)
 - a. 야곱의 장례(47:27-31)
 - b. 야곱의 머리말(48:1-6)
 - c. 야곱의 사별(48:7)
 - d. 눈이 먼 야곱(48:8-12)
 - e. 야곱의 축복(48:13-16)
 - f. 야곱의 처신(48:17-20)
 - g. 야곱의 신념(48:21-22)
 2. 택함받은 가족(49:1-27)
 - a. 예언의 시작(49:1-2)
 - b. 르우벤(49:3-4)
 - (1) 르우벤의 특별한 지위(49:3)
 - (2) 르우벤의 불안정한 성격(49:4a)
 - (3) 르우벤의 파렴치한 욕정(49:4b)
 - c. 시므온과 레위(49:5-7)

- (1) 그들의 돈독한 형제관계(49:5a)
- (2) 그들의 범죄행위(49:5b-6)
- (3) 그들의 지속되는 책임(49:7)
- d. 유다(49:8-12)
 - (1) 지도자(49:8)
 - (2) 사자(獅子)(49:9)
 - (3) 주님(49:10)
 - (4) 다스릴 땅(49:11-12)
- e. 스블론(49:13)
 - (1) 그의 해안지역에 대한 관심
 - (2) 그의 상업에 대한 관심
 - (3) 그의 대륙에 대한 관심
- f. 잇사갈(49:14-15)
 - (1) 그의 힘(49:14a)
 - (2) 그의 만족(49:14b-15a)
 - (3) 그의 노예상태(49:15b)
- g. 단(49:16-18)
 - (1) 그의 지위(49:16)
 - (2) 그의 독(毒)(49:17)
 - (3) 그의 용서(49:18)
- h. 갓(49:19)
 - (1) 정복당한 자
 - (2) 승리자
- i. 아셀(49:20)
 - (1) 일상적인 보상
 - (2) 삶의 최고의 풍요
- j. 납달리(49:21)
 - (1) 그의 태생적 야생성

(2) 그의 탁월한 지혜

k. 요셉(49:22-26)

(1) 그의 풍부한 결실(49:22)

(2) 그의 대적들(49:23)

(3) 그의 믿음(49:24)

(4) 그의 충만함(49:25-26)

l. 베냐민(49:27)

(1) 그의 성격

(2) 그의 정복

B. 야곱의 장례식(49:28~50:21)

1. 서약(49:28-33)

a. 야곱의 마지막 말(49:28)

b. 야곱의 마지막 유언(49:29-32)

c. 야곱의 마지막 증거(49:33)

2. 준비(50:1-3)

3. 허락(50:4-6)

4. 장례행렬(50:7-14)

a. 장례식(50:7-9)

b. 공식적인 절차(50:10-13)

c. 마지막 이별(50:14)

5. 용서(50:15-21)

II. 요셉의 죽음(50:22-26)

A. 요셉의 거처(50:22)

B. 요셉의 후손들(50:23)

C. 요셉의 통찰력(50:24)

D. 요셉의 요청(50:25)

E. 요셉의 사망(50:26)

제1부
인류의 시작
고대의 역사
(1:1~11:32)

제1장
창조
(1:1~2:25)

I. 서론(1:1)

II. 서술(1:2-31)

- A. 어떻게 생명이 이 땅에 만들어졌는가(1:2-13)
 - 1. 온 세상이 혼돈 상태에 처함(1:2)
 - 2. 온 세상의 혼돈 상태를 몰아내심(1:3-13)
- B. 어떻게 법이 이 땅에 세워졌는가(1:14-31)
 - 1. 역할이 주어진 천체(1:14-19)
 - 2.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1:20-31)

III. 결론(2:1-7)

- A. 하나님의 안식(2:1-3)
 - 1. 창조의 완성(2:1)
 - 2. 창조자의 만족(2:2-3)
- B. 하나님께서 재검토하심(2:4-7)
 - 1. 천체에 대한 재검토(2:4)
 - 2. 농경법에 대한 재검토(2:5-6)

3. 인류학에 대한 재검토(2:7)

IV. 완결(2:8-25)

A. 아담의 거처(2:8-17)

1. 이상적인 환경(2:8-14)
2. 이상적인 임무(2:15-17)

B. 아담의 배필(2:18-25)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아담의 소망(2:18)
2.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소망(2:19-20)
3.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담의 소망(2:15-25)

제1장 창조

창세기 첫 장(章)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God-centered) 장들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31절(節)에서 32번이나 기록되었고, 인칭 대명사까지 합하면 적어도 4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탄이 이 장을 증오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불신하도록 그의 거창한 대포(artillery)를 이끌고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면(abandon), 즉 사실과 거리가 멀고 믿을 만하지 못한 것으로,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으로,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를 조작해서 베낀 것으로, 현대 과학이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면 사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님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땅(earth)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문시되면, 계시록 22장에서 하늘(heaven)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도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세기 1장에서 성령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요한복음 3:16에서 그분이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중요성이 의미심장한 수사법(修辭法)인 접속사반복법(polysyndeton)이 계속 사용됨으로써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the King James Version)에서는 “and-그리고”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된, 접속반복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서 그리고(and)라는 단어를 세어보십시오. 거의 백 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보통 글을 쓰는 데에 한 문장에서 접속사를 한 번 이상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여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¹ 접속사반복법(polysyndeton)은 천천히 읽게 하고 연결된 각 구절이나 단어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 단어와 구절을 깊이 숙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상당히 정확성을 기해서 쓰시는 이유입니다.

1. 서론(1:1)

헤롤드 포르테스크(Harold Fortescue)라는 신참내기 신문기자는 지방 사회면의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24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를 써서 편집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편집국장은 대강이라도 훑어보지 않고 “반으로 줄이게”라고 하며 곧바로 돌려주었습니다. 풀이 죽은 포르테스크는 지시한 대로 따랐습니다. 다시 편집국장은 냉담하게 “또 반으로 줄이게”라고 하며 원고를 돌려주었습니다. 젊은 기자는 나지막하게 혼자 투덜거리며 편집국장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시 완성된 기사를 제출했을 때, 편집국장은 다시 돌려주며 “이제 한 페이지로 줄이게”라고 말했습니다. 몹시 불쾌했던 기자가 항의하자 그의 상관은 잘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주의 창조주께서 창조에 대해 설명하실 때, 단지 열 단어(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

1. 접속사 반복법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어법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많은 다른 부분에서 볼 수 있다. 찾아보면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라)로 하신 사실을 자네는 묵과(默過)하고 있는 것이라네.”

성경을 여는 첫 서두(序頭)의 말씀은 부연설명 없이 그 말씀 자체의 힘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거나, 의심 많은 세대에게 변명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하게 확고한 진리는 자명(自明)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도도한 첫 마디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존재를 주장하여 무신론을, 스스로 하나이심을 선언하여 다신론을, 그리고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여 자연숭배를 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의 나이가 20억 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해 캄브리아기의 암석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정확한 생명의 기록 이전에 이미 사분의 삼의 지질학적 시간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을 천 년으로 간주하고서 과거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 걸음에서 그는 정복자 윌리엄에게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시기로, 세 번째는 트로이의 헬렌에게로,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로 갈 것입니다. 백삼십 걸음을 걸으면 그는 하이델베르그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에 천 년씩 1/4 마일을 걸었다면 그는 유럽의 구석기 시대(어떤 지질학자와 고고학자의 설에 의하면)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최초의 유기물 화석을 보려면 250마일을 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지구가 아주 오래 됐다는 주장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태초에” 창조하셨다고 할 뿐입니다.

창세기를 지질학적으로 일치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루-시대 이론”(the day-age theory)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들”은 문자 그대로의 하루인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중

요한 사건들, 시대들, 또는 방대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지질학과 일치시키려고 공들여 그린 도표도 있습니다. 확실히 창세기와 지질학 사이에 눈에 띄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간격이론’ (the gap theory)입니다. 창세기 1:1은 근원적인 창조의 설명입니다. 이론가들은 창세기 1절과 2절 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공백을 제시합니다. 그 공백에 그들은 지질학자들이 요구하는 모든 세대들을 집어넣는데, 그 세대들은 창세기 1:2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는 빙하시대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 첫 장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근원적인 창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에 맞는 거처로써 지구를 재건한 데 대한 설명입니다.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창조의 날들이 아닌 계시의 날들이라는 “계시 이론” (the revelation theory)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날들은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의 날이지만, 그 날들은 모세의 삶에서의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창조에 관한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각각의 날들에 모세는 자신에게 계시된 것들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이론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요구하는 문자 그대로인 하루 24시간과 일치하며 지구 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과학자의 견해도 만족시킵니다.

확실히 창세기 첫 장은 어떤 견해에서 보더라도 주목할 만한 사실의 선언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learn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사도행전 7:22)라고 하지만, 그는 창세기 1장을 그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는 창조 이론에 의해 쓴 것이 아닙니다. 애굽 신화에서는 알(egg)이 나타난 최초의 태양에 근거를 둡니다. 그 알에서 태양신이 생겨났고, 태양신에게 깎 (gap), 수(shu), 태프넛(tefnut), 그리고 넛(nut)이라 부르는 네 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태양신의 자식들로부터 창조는 시작됩니다.² 창세기 1장이 그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입니까!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 창조 설화 위에 히말라야 봉우리처럼 우뚝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설화는 신들 사이의 음모와 서로 대항하는 책략에 관한 이야기이며, 연회와 경쟁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아틀라스(Atlas)라는 이름을 가진 전설의 거인이 지칠 줄 모르는 머리와 팔로 지구의 경계에서 드넓은 하늘들을 떠받치고 있다고 합니다. 힌두인들은 우주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돌아다니는 큰 거북이 등 위에 세 마리의 코끼리가 서서 돌아가며 그 등으로 지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모든 조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주의 근원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 오랜 옛날로부터 오는 유일한 기록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줍니다.

수학자 피터 스톤너(Peter Stoner)는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를 13 과정으로 열거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우주창조(1절), 빛의 창조(3절), 지상에서 어둠을 몰아냄(4절), 대기권이 형성됨(6절), 바다의 경계가 정해짐(9절), 대륙의 융기(10절),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나무 같은 식물이 형성됨(11절), 해와 달과 별들로 운행케 함(14절), 바다의 생명체를 창조하심(20절), 날짐승들을 창조하심(21절), 거대한 동물의 시대를 명하심(21절), 땅의 척추동물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심(24절),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심(26절)으로 요약했습니다. 이러한 창조 과정은 정확하게 명명되고 올바른 순서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실수로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수치상으로도 31경(0이 21개인 수)분의 일입니다.

스토너 박사는 그 수만권의 경품권을 가정해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많은 경품권을 인쇄하려면 8백만 대의 인쇄기가 1분에 2천

2. 참조. Leonard Cottrell의 *Life under the Pharaoh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60), p.23.

장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찍어 낸다고 해도 500만 년이 걸립니다. 그 중의 한 장에 당첨표시를 한 후에 첫 번째 시도에서 그것을 뽑을 확률은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우연히 썼을 가능성과 같습니다.³ 모세는 이 사실들을 우연히 쓴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을 인간 이성의 논리로 쓸 의도도 없었으며(그는 당시에 수용되던 모든 학문과 배치되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쓴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에 세 히브리 단어가 사용 됩니다. 바라(bara)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 55번 정도 나오면서 순간적이고 기적적인 창조의 원리를 전해줍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단백질질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요소이기에 그 업적은 과학계를 흥분케 했습니다. 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Saturday Evening Post*)는 그들의 반응을 알기 위해 주요 인사 몇 명과 인터뷰했습니다.⁴ 록펠러 재단의 빈센트 알프레이 박사(Dr. Vincent Allfrey)는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금세기 최대의 사건입니다.” 저명한 생화학자도 말했습니다. “이번 세기는 생명의 신비가 밝혀지는 세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생명은 단지 화학일 뿐입니다.” 영국의 한 과학자는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과학자들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는 것이 필요한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스트지는 뉴욕에 있는 카디날 스펀맨 대교구의 대변인 신부 켈리(George A. Kelly)를 포함한 몇몇 종교인들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의 호언장담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그는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체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그때 그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라(bara)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3. 참조, Peter Stoner, *Science Speaks* (Chicago; Moody, 1958), p.11.

4. *Saturday Evening Post*, July 1965.

있는 의미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bara) the heaven and the earth—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윌버 스미스(Wilbur M. Smith)는, 창조를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에서 창조에 사용된 세 개의 단어 중 “바라”(bara)가 아마도 그 단어 자체로 무에서(ex nihilo)라는 전적인 창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적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창조의 원리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라(bara)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있는 재료로 무엇을 만들고(asah-아사) 지어낼(yasta-야차)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⁵

창세기 1장은 근원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과학자들은 연원(淵源)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사물들의 현상에 대해서 관여할 뿐이지 사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우주의 물질 안에 지배하는 법칙들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 법칙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인간은 시계추의 진동을 측정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

5. 참조. Wilbur M. Smith, *Therefore Stand* (Natick, Mass.: W.A. Wilde, 1945), p.278. Henry M. Morris는 그의 저서 “*The Genesis Record*” (San Diego: Creation-Life, 1976)에서 이 단어들의 사용에 대한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는 bara라는 단어를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바다의 거대한 동물들을 창조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다섯째 날의 생명(혼)의 원리를 도입하는 데에서 그 근거를 찾는 데에 *The Pulpit Commentar* (22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59)를 따랐다.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서 세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asah) 결정하였고, 그분은 사람들을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bara)(1:26, 27). 그분은 또한 사람의 몸을 지으셨는데(yasta), 즉 옹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모양을 빚어 형태를 갖게 하신 것이다.(2:7)

라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정확히 추측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식에 수치를 대입해서 지난 시간의 지침도 가능합니다. 얼마간은 그의 답변들이 옳은 것처럼 생각될 것이지만 언젠가 그의 공식이 황당한 결과를 주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만약 그가 너무 먼 과거로 거슬러 가면 그 공식은 추가 점점 더 큰 원호를 그리며 진동하다가 결국에는 동시에 두 방향으로 움직였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금 추의 진동을 지배하는 그 법칙은 처음에 어떻게 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둘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처음에 추의 진동을 시작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측자는 추가 언제 어떻게 처음 진동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없기에 그 시점에서 단순한 원리에만 집착합니다. 그가 자신 있게 “이것이 추가 처음 진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추가 진동을 시작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⁶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종류의 정보들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바로 모세가 창세기 1장을 쓸 때에 정보를 얻은 방법입니다.

II. 서술(1:2-31)

오늘날 사람들은 모세보다는 다윈을 믿기 원합니다. 그들은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아이작 뉴턴의 과학 이론들이 오늘날 쓸모없이 되었을 뿐 아니라 현시대의 과학자들의 이론들도 10년 혹은 20년 후에는 낡아버린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 년 반의 수명”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오 년 반이 지나면 틀린 것이 되고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리라는 것입니다. 우주

6. R. E. D. Clark, *Creation* (London: Tyndale, 1946), pp. 10-11.

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기에 창세기 1장이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원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창세기 1장의 설명을 우리는 겸손과 존경의 자세로 탐구해야 합니다.

이 장은 두 주요부분으로 나뉩니다. 한 부분은 이 땅에 생명이 자리 잡는 데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1:2-13), 다른 한 부분은 범이 자리 잡는 데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1:14-31). 두 부분 사이에 병행을 이루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A. 어떻게 이 땅에 생명이 만들어졌는가(1:2-13)

1. 온 세상이 혼돈 상태에 처함(1:2)

어떤 사람들은 2절이 물질이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의 원초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히브리 학자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프란스 데리츠를 포함하여) 그 절은 최초의 창조 후에 일어난 대재난을 묘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the land had become waste and void—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었다(was)라는 단어는 “되었다”(became)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을 이사야서 45:18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⁷

바울은 그 창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인용하는 것같이 여겨집니다. 바울은 “God who commanded the light to shine out of darkness hath shined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빛에게 명령하시어 어둠으로부터 빛을 비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비추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음이라”(고린도후서 4:6)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사탄에 의해 파멸되어 지능, 감성 그리고 의지 모두가 혼돈의 상태에 빠져 양심은 흐려지고 그의 몸은 먼지로 돌아갈 운명인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어둠 위를 움직이시면서 재생(再生)의 과정을 시작하시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내놓으십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표면적으로는 단지 희미하게 보이지만 깊이 있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온 세상의 혼돈 상태를 몰아내심(1:3-12)

혼돈 상태를 몰아내는 데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어두움을 처리하셨습니다(1:3). “And God said—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열 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일련의 첫 번째 명령들을 알려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결코 없습니다. 그 명령들은 하나님의 일련의 두 번째 명령들(출애굽기 20장)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
7. 지구의 혼돈은 아마도 루시퍼의 타락의 결과 중의 하나일 것이다.(이사야 14:12-17; 에스겔 28:11-19)
 8. 빛의 근원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관찰자가 보는 빛의 속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멈추어 있는 밝게 빛나는 두 우주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빛은 초속 186,273마일(약 300,000킬로미터)의 속도로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간다.

“Light be—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빛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 중의 하나입니다. 물리학에서 빛은 신기한 절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⁸ 빛은 그 자체로 $E=mc^2$ (에너지는 질량에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라는 유명한 공식의 핵심인데, 그 공식은 역으로 핵시대를 선도(先導)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을 세울 뿐 아니라 집행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에서 주무실 때, 겹에 질린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으로 인해 그들 모두가 물속으로 빠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엄청난 바람과 밀려오는 파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Peace—잠잠하라,” “be still—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아주 고요해졌습니다(마가복음 4:39). 그분의 말씀은 법을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집행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지나홀이나 되어 시신이 이미 부패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계셨습니다. “He cried…Lazarus, come forth. And he that was dead came forth—그분이 외치시기를…나사

이제 두 물체는 합해진 속도가 초속 1,000마일(1,600킬로미터)이 되도록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게 한다. 각각의 우주선에서 상대에게 도달하는 빛의 속도는 두 빛의 근원이 매초마다 1,000마일의 속도로 함께 움직이라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우주선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여행해서 빛의 근원이 점점 더 멀어진다 할지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우주선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속도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나왔습니다”(요한복음 11:43-44). 그분의 말씀은 집행력이 있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불결하고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 완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분께 왔습니다. 그는 “Lord, if thou wilt, thou canst make me clean—주여, 주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I will, be thou clean?—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해져라”(누가복음 5: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어둠이 동트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의 행선지로 날아가면서 들었던 동일한 전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음으로 무질서(disorder)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일으키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1:6-8). 순전히 기계 공학적인 점에서 볼 때, 창조의 둘째 날에 일어난 일은 깜짝 놀랄 만합니다. 우리 위에 계속 떠다니는 공기 중의 수증기 양은 무려 54조 4천 6백억 톤으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773배나 무겁기에, 물에서 물을 나누는 데 필요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비와 눈의 형태로 땅에 내리는 연간 강수량은 186,000 큐빅마일(78×10^{16} 톤)에 해당합니다. 그 정도면 지구 전체를 3자(three feet)의 깊이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땅 위의 물의 공급은 증발로 유지됩니다. 태양의 힘에 의해서 땅 위의 물이 지속적으로 대기로 증발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얼마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육지를 일으키셨습니다(1:9-10).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보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간결한 진술은 다른 어떤 인쇄물에서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영어 성경본문 9절과 13절 사이에는 약 126단어가 나오는데, 그중 100단어 이상이 단 한 음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지혜만이 그런 위대한 일을 그와 같이 간결한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물들을 “unto one place—한 곳으로” 함께 모으

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비평가들은 한때 그런 진술을 한 모세를 속맥으로 몰아 붙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본 바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바다가 유일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모세는 거대한 대서양과 태평양은 결코 보지 못했지만 결코 무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륙이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다가 한 해저(海底)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천 년 전에 영국, 덴마크, 그리고 노르웨이를 다스린 카누트(Canute)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어서 백성들은 그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의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왕좌(王座)를 바닷가로 옮기어 만조(滿潮) 때의 경계표시선 아래에 놓게 하였습니다. 왕은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며 그곳에 놓인 왕좌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파도가 그의 발 주변에서 소용돌이치면서 왕좌를 찰싹찰싹 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자리에게 일어나 그의 홀을 바다 위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라, 뒤로 물러서라, 파도야.” 그러나 파도는 당당하게 계속 물러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보잘것없는 자여.” 파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경계선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왕이 선포한 것이 라오.”

창조의 셋째 날 동틀 녘 이래로, 지구의 조류는 매일 두 번씩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랜트 경(Sir Robert Grant)의 불멸의 가사입니다.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비로 차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예부터 기초되어
 변치 않는 명령으로 튼튼히 세우셨네!
 옷자락 펼치듯 바다를 펼쳐 띠를 두르셨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행성의 불모의 상태를 다루십니다. 풀, 씨 맺는 채소, 과일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여 땅을 덮으셨습니다(1:11-13). 성경은 이 창조의 국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들은 “풀”로 번역한 데시(deshe), “씨 맺는 채소”로 번역된 에셉(eseb), 그리고 “과일”로 번역한 페리(peri)입니다. 첫 번째 식물의 경우, 씨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씨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풀 종류, 두 번째는 씨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인 채소, 세 번째는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식물의 구조와 그 씨를 지침으로 삼아 땅의 식물을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분류하였습니다.⁹

생명은 어찌다가 버둥거리면서 연약하고 외로운 형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출현한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십만 가지 이상의 식물이 있고 풀의 형태만으로도 오천 가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본 명령이 각각 “after its kind—그 종류대로” 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열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화론을 통째로 그 위에서 소멸시켜버리는 암반(巖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바뀌지 않는다고 선포하십니다. 주어진 어떤 종류 안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종류도 다른 종류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9. 오늘날에 식물학자들은 씨가 없는 식물인 무자엽(無子葉) 식물, 씨를 지니고 있는 단자엽(單子葉) 식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인 쌍떡잎 식물로 나누는 유사 식물 분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수백 년에 걸친 연구의 산물인 이러한 분류 방법은 모세에 의해 성경의 바로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 참조. Smith의 *Therefore Stand*, p. 319.

유전학 원리들은 물려받은 생명의 특성들이 유전자에 이식(移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여름에 플로리다에 간 사람이 벌레 피부가 그을리고 머리카락이 탈색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도, 이런 변화는 그의 아이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적 영향들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전자로 인한 육체적 변화만이 유전됩니다. 유전자 내에 잠복해 있는 한에서 폭넓은 변화는 가능하지만, 주어진 한 종류 안에서 존재하는 유전자들의 조합 밖에서는 그 어떤 명백한 변형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¹⁰

물론, 최근 몇 년에, 인간은 인공적인 진화를 만들어 보려는 기대 속에 여러 유기체의 유전적 구조에 손을 댔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의 모든 돌연변이는 본래의 유기체에 해롭고 치명적이거나 쓸모없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기술이 동원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을 실험에 투자해도 답신(答申)은 마찬가지로입니다. “after its kind—그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B. 어떻게 법이 이 땅에 세워졌는가(1:14-31)

1. 역할이 주어진 천체(1:14-19)

모든 도서관에는 인간들이 연구한 벌레 대한 책들로 가득합니다.

10. 한 음악가가 수많은 다른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방법으로 자신의 악기의 음을 조합하는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유전자들을 이용한다. 그러나 음악가들은 오직 자신의 악기로써 가능한 화성만을 만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종(種) 안에서 만들어지는 변이의 수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수에 의해서 제한된다. 순수하게 새롭게 유전되는 특질은 주어진 종 내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은 천문학이나 어떤 다른 분야의 과학에 관한 안내책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과학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실 때에는 틀림없는 정확성으로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And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rule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rule the night—하나님께서 두 큰 광원을 만드사, 큰 광원으로 낮을 지배하게 하시고 작은 광원으로 밤을 지배하게 하시며”(1:16)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해가 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통상의 관찰로는 반대의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름이 8자(eight feet)나 되는 듯이 보이는 거대한 추석 때의 보름달이 저녁 하늘에 우뚝 솟아 지평선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태양이 그만큼 크다고 본 적은 없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달이 태양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했었고, 태양과 비교해서 밝기와 열기가 떨어지는 것은 지구에서 태양보다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태양이 달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양이 육백만 개의 달을 담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꾸로 말하는 실수를 쉽게 저지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광원으로 낮을 지배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큰 물체로서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 첫 페이지에서 태양이 하늘에서 가장 큰 물체라고 선포했었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타레스(Antares)라는 별은 엄청나서 태양 6400만 개를 삼켜 버릴 만큼 큼니다. 그리고 마차부자리 별자리의 엡실론(Epsilon)이란 별은 매우 거대해서 지름이 우리 태양의 3000배나 되고 그 부피는 270억 배 정도나 됩니다.

놀라운 정도의 간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별들의 창조를 마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다섯 마디만 하십니다. “He

made the stars also—또한 별들도 만드셨느니라.” 얼마나 명쾌한 진리의 시각입니까! 성경은 성막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논하기 위해 50여 장(章)을 할애하십니다. 성막은 단지 아주 일시적인 성소(聖所)였을 뿐입니다. 성막에 대해서는 50장을, 별들에 대해서는 다섯 마디를 사용하셨습니다. 진실로 성경은 우리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 까닭은 성경이 구속(救贖)의 핸드북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속(救贖)하기 위해서는 그분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각(視覺)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썼다면,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매 장(章)마다 별들의 이야기가 쓰일 뻔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은하계의 수십억 개의 별들이나 알려진 다른 우주 공간의 수억의 은하계에 대해서 쓰였을 것인데, 그 알려진 우주 공간도 단지 이론상의 우주 공간의 10억분의 1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제임스 진스 경은 우리들에게 우주에는 온 세상의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수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십니다. “He made the stars also—또한 별들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행성들보다 사람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별들보다 혼들(souls)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사람(1:20-31)

a. 사람이 지배하도록 준비하심(1:20-25)

모세는 사람이 지배하도록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1:20-25).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찼고 하늘은 새들로 찼는데,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물고기와 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유선형의 형태를 가지기에 태어난 서식지에서 재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몸을 보호하는 매끄러운 지느러미나 깃털로 덮여 있고, 가볍고 속이 빈 뼈를 갖고 있고, 알을 낳으며 또한 이주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뛰어난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지상에서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만이나 시내 또는 여울목이나 해협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생물은 도랑의 물 한 방울에도 500억 마리나 담길 정도로 작아서 가득히 담긴 한 찻숟가락 정도의 물은 미생물에게는 대서양과 같습니다.¹¹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늘에서 보듯이 그러한 웅대한 규모로 일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다에서 보듯이 현미경적인 규모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크거나 작거나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배 영역으로서 땅에 대해 마지막 준비를 하셨습니다. 척추동물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세 부분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는 네 다리를 가진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브헤마(bhema-가축)라고 부릅니다. 땅에서 기어 다니는 피조물들을 레메스(remes-기어 다니는 것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움직이다” 또는 “떼를 짓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야생동물을 카이야(chaiyah-짐승)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종의 동물들을 분류해 놓았는데, 80만 종 이상 되는 각기 다른 종류의 곤충들, 3만 종의 물고기, 9000종의 새들,

11. 5억 개의 적충류(滴蟲類)들은 단 한 방울의 물에서도 편히 살 수 있다.

적충류는 천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데, 어떤 것은 초식이고, 어떤 것은 육식이며, 어떤 것은 껍질이 있고 어떤 것은 없다. 적충류는 입, 이빨, 근육, 신경 그리고 분비샘들을 가지고 있다. 어떤 종들은 100~200개 사이의 기낭(氣囊)이나 장으로 연결된 위들이 있는 것들도 있다. 이 위들을 둘러싼 피막의 두께는 대략 1인치의 1/50,000,000 정도로 추정된다!

6000종의 파충류, 3000종의 양서류, 그리고 5000종의 포유동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이 행성(行星)에 출현하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홀로 고립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 것으로 묘사하는 사람에 대해 어쩌면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생명의 다양한 형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날 만큼 풍성함으로 불가해한 우주 공간에 헤아릴 수 없는 별들과 그 별들의 행성들을 던져 내어 놓으시고, 우주 속에서 놀라운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지속해 나가게 하시지만,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우리가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나 혜성의 궤적을 미리 알게 하십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없는 풍성함으로 단 하나의 행성을 택하시고 그곳에 깜짝 놀랄 만한 수의 생명체를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시편이었던다면, 확실히 “셀라”(Selah)로 그 장을 마치셨을 것입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b. 사람이 지배하도록 주심(1:26-31)

모세는 사람이 지배하도록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 사람이 지배하도록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창조 부분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시작됩니다(1:26-27). 성령께서는 사람이 동물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¹² 하나님께서는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성과 인품과 인격에서, 도덕적이고 영적 능력에서, 그리고 감성과 지능과 양심과 의지에서 짐승 같은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부터 시작하시지 않으시고 또 사람을 짐승에 연관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성으로 시작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십니다. 참으로 사람의 몸의 창조에 관해서는 창조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각주로 처리하십니다.(2:7)

사람은 짐승과 결코 연관이 없습니다. 어떤 동물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축적된 성과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잘못했을 때에 진정한 죄의식을 느끼거나, 닥칠 심판을 의식할 만큼 계발되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예배드리려는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줍니까? 어떤 동물이 죽음을 뛰어넘는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짐승이 추상적인 도덕적 판단을 행하거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까? (지는 해를 감탄하는 개나, 울퉁불퉁하게 뺨친 산맥의 장관 앞에서 숨죽이고 서 있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읽고 쓰기 위해서 배우고, 의도한 목적을 갖고 행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 목적을 성취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먹을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천을 잘라 옷을 만드는 법을 배우거나, 정교한 연장을 고안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맘껏 웃으며 즐긴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동물이 연설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까? 가장 원시적인 부족일지라도 미묘하고 복잡하고, 표현이 풍부한 성품을 드러내는 언어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직립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람만이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서 유독 직립하여 걷고, 정신적으로는 사람만이 세련된 몸가짐으로 대화를 나

-
12. 인간의 몸과 짐승들의 몸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사점이 친족관계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백 년이 넘도록 활발하게 추구해온 조사들, 즉 고생물학, 분류학, 상동(相同)관계학, 태생학, 그리고 유전학에서 인간이 짐승에게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못했다. 인간과 영장류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의 대부분은 해부학적 구조의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을 닮았다는 가정은 거기에서 끝난다.

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영적으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영관(榮冠)을 씌워주셨습니다(1:28-31).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영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첫째로 “Be fruitful and multiply—다산하고 번성하라”(1:28a)고 하시면서 그에게 후손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온 인류가 나왔습니다. 아담은 성경에서 시종일관 인류의 시조로 등장합니다. 진화론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치명적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장을 부정하면 로마서 5장도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아담 안에 요약하시고, 세상에서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밝히십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성경은 거짓이고 로마서 5장은 꾸며낸 이야기 위에 세운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없습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예수께서는 잘못 말씀하신 것입니다(마태복음 19:4-6). 그렇게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에 기초를 둔 것이니,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시고, 인류는 그로부터 태어났음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지위로 영관을 씌워주셨습니다(1:28b). 그에게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의 새를, 그리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해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모든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 모든 공학의 업적, 자연과 우주의 기능에 관한 새로운 모든 지식의 단편들이 그 지배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잠재력이 훼손되었음에 불구하고, 인간은 산을 움직이고, 댐을 건설하며, 광산을 채굴하고, 이 행성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는 이 지구를 다스려왔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의 지배에 대해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Thou madest him a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thou crownedst

him with glory and honour, and didst set him over the works of thy hands. Thou hast put all things in subjection under his feet... But now we see not yet all things put under him... But we see Jesus—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씌우시고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셨으니, 주께서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직 그의 아래에 모든 것이 놓인 것을 보지 못하니라...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나니”(히브리서 2:7-9). 물론 아담은 자신의 주권을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 아담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¹³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소유로 영관을 씌워주셨습니다(1:29-3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낙원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막 만들어졌을 때, 원래의 손상되지 않은 모습이 어떠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에게 하루하루는 흥미로운 발견의 날들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꾸고 지배하라고 맡겨진 거대하고 광활한 세상을 탐색해 나갈 때, 얼마나 신기로운 새로운 소리들과 향기들과 느낌들을

13. 그분은 물고기 때든지(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에 따라 기적같이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때처럼, 이러한 사건은 한 번뿐만이 아니었다. 누가복음 5:1-11, 요한복음 21:1-11), 단 한 마리의 물고기이든지(베드로가 호수에 낚시를 던져서 입 속에 동전이 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을 때처럼, 마태복음 17:24-27) 간에 물고기를 지배하셨다. 그분은 들짐승이든지(예수께서 시험당하실 때에 그 짐승들이 그분을 광야에서 호위했던 때처럼, 마가복음 1:13),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든지(예수께서 여기저기에서 손을 흔들며 열렬하게 환호하고 길목마다 갈채와 꽃을 뿌리는 군중들과 함께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매일 경험했겠습니까.

그 서술은 그 창조의 작업이 “very good—아주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말씀이 그 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It is *not* good—그것은 좋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창조 작업의 완성으로 여자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II. 결론(2:1-7)

A. 하나님의 안식(2:1-3)

창세기 2장을 시작하는 절(節)들은 창조의 이야기에 대한 각주(脚註)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코 지치셔서 안식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면 할수록 그 물질세계는 단지 하나님의 끝없는 에너지의 표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각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자는 순수한 에너지 묶음으로, 에너지가 운동으로 전환되고, 운동이 현상들로 전환됩니다. 분명히 인간이 헤아릴 수

매처럼, 마태복음 21:4-11) 간에 가축들을 지배하셨다. 그분은 가금류들을 지배하셨는데, 그분은 베드로에게 그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자마자 수탉이 울리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22:34, 54-62). 그분은 온 지구를 지배하시므로써 말씀으로 마귀들과 질병과 죽음을 물리치셨다(마태복음 8:28-34; 마가복음 9:14-29; 누가복음 4:31-36, 7:11-15; 요한복음 5:1-9, 11:17-44). 그분은 파도 위를 걸으셨고(요한복음 6:16-21), 성난 바다를 잠재우셨으며(누가복음 8:22-25), 빵 덩이와 생선들이 엄청난 수량으로 늘어나게 하셨으며(마태복음 14:14-21, 15:32-39; 요한복음 6:10-14), 물을 포도주로 붉게 만드셨다.(요한복음 2:1-11)

있는 우주들보다 더 많은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고 또한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제거할 만큼 에너지를 그 미세한 원자 속에 두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피로해 지치신다는 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2:1).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그것들의 모든 무리도 그러하니라.” “It is finished—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창조를 마치실 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救贖)을 다 마치셨을 때,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신 창조의 일을 살피시면서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 서서서 자신의 손으로 마치신 작품을 감탄하시며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자께서 만족해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2:2-3).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시고, 그러고는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 날을 거룩히 구별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안식일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려는 듯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절과 3절에서 10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일부분으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연장시키셨습니다(출애굽기 20장).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하는 날로 왜곡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안식하는 날이 되는 대신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소한 일에 천부적인 종교적 재능을 발휘하여 그날에 엄청난 관습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 그 날이 참을 수 없는 짐이 되게 했습니다.¹⁴

하나님의 안식일의 쉬심은 죄로 인해 곧 깨집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비난하자, “My Father worketh hitherto, and I work—나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하노라“(요한복음 5:17)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고, 거기서 그것이 마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한 날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들의 안식은 종교 의식적인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계신 곳,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성하신 일 안에서 안식합니다.

B. 하나님께서 재검토하심(2:4-7)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하늘과 땅의 세대(世代)는 이러하니”라고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세대가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창세기에 14번 나옵니다. 세대는 창세기의 생성, 타락, 재생이라는 기본적인 흐름의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generation)라는 말은 “가족 역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담, 노아, 노아의 아들들,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에서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늘들과 땅의 “가족 역사”를 대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옛 창조

-
14. 예수께서 이 땅을 밟으셨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빵 한 덩어리도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가져다주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었다. 램프를 끄는 것도 일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안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만약 그 아이가 손에 돌이라도 들고 있었다면 그 엄마는 일을 한 것이 되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거울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지만 흰머리를 보고 뽑는 것은 일을 한 것이었다. 씨 두 개를 훌뿌리지만 해도 씨 뿌림이므로 일을 한 것이었다. 풀 한 잎 뽑는 것도 일이었다. 말린 무화과를 드는 것도 짐을 든 것이어서 일한 것이기에 안식일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였다. 주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요구에 따라 안식일 지키기를 거부하심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 가족 역사입니다. 타락으로 모든 것이 파멸되기까지 이어졌던 가족 역사입니다. 그 가족 역사에 아담은 자신이 다스렸던 그 창조와 함께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는 같은 독특한 혈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같은 세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새로운 가족 역사, 새로운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우리는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으로, 죄로 파멸된 옛 가족 역사로부터 죄가 영원히 추방된 새로운 가족 역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옛 혈통으로부터 새로운 혈통으로, 창조로부터 구속으로, 복수인 “세대들”로부터 단수인 “세대”로, 반복된 실패로부터 온전한 성취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가족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천체에 대한 재검토(2:4)

세 가지 성명으로 끝을 매는데, 첫 째는 천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2:4).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의 세대(世代)는 이러하니,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만드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행하신 분은 엘로힘(Elohim)입니다. 언제나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복수(複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단어 안에 깊이 감추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단어는 성경에서 2700여 차례 등장합니다. 그 복수 명사는 거의 언제나 단수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일체이심을 나타냅니다.

여기 창조를 마감하면서 재조명해 보건대,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LORD)라는 이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들과의 언약관계에서의 존재로서 조명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사람의 창조에 뒤이어서입니다. 그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구속(救贖)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주공간에 세상을 던져 넣으셨고, 여호와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기 훨씬 전에 사람의 구속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땅이 먼저 나온 것은 구속자(救贖者)로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이 조그만 지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주의 중심 초점이 되어, 불법에 관한 모든 신비가 해결되어야 하는 지점이 된 것입니다.

2. 농경법에 대한 재검토(2:5-6)

다음은 농경법에 관한 각주(脚註)입니다(2:5-6). 여기에서 언급된 그 성명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지구는 그 먼 동트던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이전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장수했을까? 아담의 시절에는 땅이 비가 아닌 안개로 젖었다는 진술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한때 지구가 얼음 덮개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둥글게 싸여 땅은 일정한 온실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빛은 방산(放散)되고, 해로운 태양광선은 걸러내어지고, 에너지 소비도 보다 적었고, 또 땅은 이슬 같은 안개로 적셔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는 그 하늘의 덮개가 붕괴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¹⁵

3. 인류학에 대한 재검토(2:7)

창조의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각주는 인류학에 관한 것입니다 (2:7).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구별된 창조물이라고 선언하여 그와 반대로 가르치는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formed—지으시고”에 해당하는 말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모양을 빚을 때에 사용하는 말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적인 골격을 구성하시고 빚으시는 데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의 이야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에 기인한 결과라고 46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각주에서도 인간의 몸의 창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각별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26.3킬로그램의 산소, 47.3리터의 물, 56.7그램의 소금, 1.4킬로그램의 칼슘, 11킬로그램의 탄소 그리고 염소, 인, 지방, 철분, 유황과 글리세린이 필요할 것입니다.¹⁶ 그런 품목들과 함께 일정량의 흙과 얼마간의 물을 집으로 가져 왔습니다. 사람의 몸을 만들 “자작”(自作, do-it-yourself)도

15. 이 이론은 명성 있는 미국 진보과학연합(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연구원인 Theodore Schwarze에 의해 지지받았다. 참조. Theodore Schwarze의 *The Marvel of earth's Canopies* (Westchester, Ill.: Good News, 1957).

16. 마요(Mayo) 의료원의 Mayo 박사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이것을 적용했다. 그가 말하기를, 장난감 총 한 번을 쏘려면 충분한 칼륨이, 비누 일곱

구세트도 준비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설명서입니다. 인간의 몸은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에 어떤 과학자도 몸의 구성과 기능의 단편적인 부분 이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표 크기 정도의 피부 조각에 300만 개의 세포와 90센티미터의 핏줄, 3.6미터의 신경, 100개의 땀샘, 15개의 지방 샘, 25개의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자는 우연이란 맹목적인 힘이 우리 몸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웹스터 영어대사전이 출판공장의 폭발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차라리 수월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훌륭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魂)이 되었더라.” 전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흙과 물, 그리고 이것저것을 취하시고, 그것들을 빚으셔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놀랍고도 섬세한 인간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등쳐먹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경배하도록 이끅니다.

IV. 완결(2:8-25)

개를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이, 대못 하나를 위해서는 충분한 철이, 개에게서 이를 잡으려면 충분한 황이, 닭장을 하얗게 칠하려면 충분한 석회가, 약 한 첩을 위해서는 충분한 산화마그네슘이, 그리고 성냥 몇 갑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것을 전부 구입해도 시장바구니 두 개를 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북쪽의 한 대도시에서 개최된 어떤 회합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는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하루는 그와 함께 자동차로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 기금으로 지은 고층 아파트 건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새 건물이었고 이 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저 건물들 보이시죠? 빈민굴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벽을 쳐서 구멍을 내고 시설물을 때 내어 팔기까지 한답니다. 그뿐 아니라 옥조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 놓고,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목사님께서 가시기에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도 안전치 못합니다.” 당국에서 한 가지 단순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바꿨지만, 빈민굴의 거주자들의 마음은 바꾸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론은 사람의 환경을 바꾸면 그 사람도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지구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환경 이론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 아래에서 이미 시험되었습니다. 이것이 여기 우리 앞에 놓인 구절의 주제입니다.

A. 아담의 거처(2:8-17)

1. 이상적인 환경(2:8-14)

인간의 첫 거처(居處)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거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밝은 대낮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평온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들관은 에메랄드 초록빛이었고, 산울타리의 관목들은 꽃으로 불타올랐고, 주변은 온통 꽃향기로 가득했으며, 숲에는 즐거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의 광대한 소유지를 거닐면서, 늑

대가 양과 숨바꼭질하는 것을 구경하거나, 밀림의 사자와 장난치거나 인간이 본 가장 아름다운 장미의 향기를 들이마시려고 멈춰 서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두를 따거나, 늘어진 포도나무를 벼랑목으로 받쳐주거나, 복숭아나무를 심거나,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최초의 나무인 생명나무를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주시하기 위해서도 멈춰 서곤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끝없는 소유지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면서 서서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기도 하며 배회했을 것입니다.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ou mayest freely eat: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 shalt not eat of it—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 거니는 중에도, 그 나무에 손대지 않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강가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a river went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and from thence it was parted, and became into four heads—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가 그 동산에 물을 대고, 거기서 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수원(水源)이 되니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그 강들을 탐사해 보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는 그 강들을 따라 각각 그 강어귀까지 가 볼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 강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를 향해서 흘렀고, 두 번째는 아라비아 아니면 카스피아 바다를 향해서 흘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티그리스라고 부르는 히데겔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진리의 예언이 기록된 광범위한 부분들을 떠맡고 있습니다.

에덴의 그 거대한 강을 따라 네 줄기로 나누어지는 지점까지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이 아담에게 스쳤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크게 나누어 지는 지점에 서서 에덴으로부터 흘러 나가는 네 강에 대해 궁금해 하며 서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는 이 강들의 기슭을 따라서 쓰일 후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2. 이상적인 임무(2:15-17)

아담에게는 구체적인 임무가 있었습니다(2:15). “And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to the garden of Eden to dress it and to keep it—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시더라.” 아담에게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셨고 취향에도 맞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을 주신 것입니다. 게으름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지만, 그 일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에는 항상 쉽고, 하나님의 짐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아담에게는 신성한 신임이 주어졌습니다(2:16-17).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saying, Of every tree of the garden though mayest freely eat—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그 신임은 가능한 한 유쾌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bu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gh shalt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though eatest thereof though shalt surely die—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니라”(그 신임은 가능한 한 명백하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낌없이 선심이 베풀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 하나의

금지사항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즐기도록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한 가지 그것도 단 하나만이 하나님께 따로 떼어져 있었습니다. 아담 앞에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선택의 능력이 없다면 아담은 도덕적이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없다면, 그는 단지 로버트나, 끈에 매달린 꼭두각시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일단 결정할 권한이 주어져서, 아담은 도덕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그 권한으로 인한 선택의 능력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피조물 앞에 그 문제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셔서 양자택일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B. 아담의 배필(2:18-25)

여자의 창조 이야기는 흥미로운 사실로 가득합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그 이야기에서 틀림없이 심각한 골칫거리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만드신 작업을 진화론적 방법에 의해서 보겠다고 정말 좋습니다. 진화론은 아담에 관해서라면 진화론자와 성경주의자간에 아마도 불안정하지만 어느 정도 유사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여자의 몸을 형성한 것은 그 절충안에 확실하게 일격을 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진실하든지, 아니면 거짓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브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해져 독특한 한 피조물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 신화에 불과한 것이면 예수께서는 속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사건을 역사적인

고 실제적인 것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마태복음 19:3-6)

1.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아담의 소망(2:18)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nd help meet for him—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만들어 주리라고 하시니라.” 아담이 아내가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 그에게 정확하게 맞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일에 착수하셨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아담에게 늘 안겨 있기 오래 전에 이미 그 아내는 하나님의 구상(構想)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착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 필요들을 채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불행한 결혼, 제멋대로 결정한 결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다른 구혼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해 마련한 그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까? 루이스(C. S. Lewis)는 스크루테이프가 워우드에게 보낸 편지 중의 하나에 좀 설득력 있는 말을 적어 넣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물론 선배 마귀이고 워우드는 후배 마귀로 유혹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워우드의 환자로, 지옥으로 확실히 이끌려 가리라고 여겼던 특정 인물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통탄할 상황을 최선으로 만회할 길을 찾기 위해서, 스크루테이프는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결혼”을 충고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 스크루테이프는 워우드에게 결혼은 사탄의 목적을 위해서도 쓸모가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

는 워우드에게 그 이웃에서 그의 환자의 신앙생활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 어떤 여인을 물색해 보라고 충고했습니다.¹⁷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온전하신 뜻이니”(로마서12:2)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제일 잘 아십니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소망(2:19-20)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fowl of the air; and brought them unto Adam to see what he would call them…And Adam gave names to all cattle…but for Adam there was not found an help meet for him—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온갖 짐승과 공중의 온갖 새를 지으시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그가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고자 함이라…아담이 모든 가축에게 이름을 주었으나…아담에게는 자신을 위해 돕는 자가 없었더라”(2:19-20). 주께서는 아담을 지적으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가 정서적으로도 힘차게 활동하기를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각 피조물이 자신의 짝을 갖고 있다는 단순한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에게 어떤 결핍감, 인간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아내를 원하고 필요로 함을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17. C. S. Lewis, *The Screwtape Letters* (New York: Macmillan, 1961), p.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선하신 때와 방법 안에서 만족하실 수 없고 또 만족하시지 않을 욕망은 결코 일깨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참을성 없고 충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性)의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은 이 세대 훨씬 전에 야기되고 부추겨져 걱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한 젊은이가 순결을 지켜, 결혼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명백하게 드러내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이상(理想)에 대적하여 작용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바로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는 남녀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담의 소망(2:15-25)

a. 아담을 위해 여자를 만드심(2:21-22a)

매튜 헨리(Matthew Henry)는 여자의 창조와 관련해서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떼어 낸 것인데, 아담을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에서나, 또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떼어 낸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떼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배필을 찾으려고 온 에덴동산을 정신없이 뛰어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내를 찾으려는 소망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무 아래에서 시무룩해 있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아담에게서 취해 그를 위해 이상적인 배필을 조용히 만드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한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자리에 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나,

분명히 하나님의 숭고한 목적(the divine ideal)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담이 조용히 하나님의 손에 일을 맡기고 있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마음 속 깊이 있는 소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착수하셨습니다.

b. 아담에게 여자와 결혼시키심(2:22b-25)

아담은 눈을 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여자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그의 결혼의 비전). “And Adam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because she was taken out of Man.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고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그것은 아담의 결혼의 서약이었습니다. 이어 결혼의 순결에 대한 선언이 뒤따랐습니다. “And they were both naked, the man and his wife, and were not ashamed—그리고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 사고(思考)는 정절과 도덕적 순결에 관한 개념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성간의 관계에서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결혼관계 안에서만 성적 욕구가 합법적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최초의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은 낙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이상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혼식은 구혼과 결혼에 관한 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높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담의 에덴동산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장
저주
(3:1~4:15)

I. 타락한 인류(3:1-24)

- A. 인간의 타락(3:1-8)
 - 1. 뱀의 간교함(3:1-6)
 - 2. 뱀의 성공(3:7-8)
- B. 인간의 장래(3:9-24)
 - 1. 소환된 아담(3:9)
 - 2. 조사받은 아담(3:10-13)
 - 3. 판결받은 아담(3:14-19)
 - 4. 구원받은 아담(3:20-24)

II. 최초의 거짓 종교(4:1-15)

- A. 가인의 종교의 거짓된 결론(4:1-7)
 - 1. 순전한 인간적인 계략(4:1-2)
 - 2. 순전한 인간적인 희생(4:3-4)
 - 3. 순전한 인간적인 만족(4:5-7)
- B. 가인의 격한 편협적인 종교(4:8-15)
 - 1. 폭력으로 특징지어짐(4:8)
 - 2. 거짓으로 특징지어짐(4:9)
 - 3. 헛된 것으로 특징지어짐(4:10-12)
 - 4. 공포로 특징지어짐(4:13-15)

제2장 저주

1. 타락한 인류(3:1-24)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람은 향상(向上)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파멸로 떨어지는 타락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의 본성(本性)은 선하지 않고 사악하며, 그의 존재 내면은 죄(罪)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우리로 그러한 진리에 직면하게 하고, 성경 전반에 걸쳐 내내 우리를 그 진리 앞에 서게 하다가, 인간의 죄의 결과에 관한 처참한 경고로 끝맺습니다. 인간 본성의 모든 법칙의 가장 근본인 죄의 법칙을 감안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인간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룰 바로 이 장(章)에서 그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A. 인간의 타락(3:1-8)

죄는 이 땅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최악의 비밀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최악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천사의 가슴 속에서 그 슬픈 근원을 갖습니다. 최악은 장성하여 에덴동산으로 들어와서 뱀으로 위장된 사탄에 의하여 소개되었습니다. 그 뱀은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인 세 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세 장에서도 그는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행한 결과는 그 사이의 매 페이지마다 등장합니다.

1. 뱀의 간교함(3:1-6)

“간교하다”라는 말은 “지혜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브와 거래한 상대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창 때로 말하면 간단하게 자신을 인도하는 말씀으로 이브는 원수를 상대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브가 “Thus saith the Lord—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간단한 말로 모든 제안에 대응했다라면, 그 사악한 자의 모든 술책과 교활함은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루시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충만”(에스겔 28:12)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총명했습니다. 이제는 타락한 자로 그의 지혜는 단지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뒤틀리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a. 이브의 지성에 호소함(3:1b-5)

에덴동산에서 사탄은 간교함(subtlety)을 기반으로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머리의 역할을 아담이 맡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브는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브는 머리의 역할을 맡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즉 내적으로 지닌 그녀의 중심 잣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담은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내적으로 지닌 그의 중심 잣대는 이지적 능력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틀었습니다. 그는 이브를 유혹하기 시작하여 그녀로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서 옳고 그름에 관한 지적인 토론에 말려들게 했습니다. 그는 이브를 철저히 속였고, 인류를 파멸로 쳐 놓았습니다(디모데 전서 2:11-14; 고린도전서 11:3). 그렇게 그 유혹은 이브의 이지적 능

력에 호소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의심(doubt)의 문제로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브의 유일한 방어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위(眞僞)로 도전했습니다. “Yea-참으로”라고 운을 떼며 그는 말했습니다. “Hath God said?-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따져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 너는 없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여 대답했습니다. 이브가 부주의(不注意)함을 드러냄으로써 원수는 더욱 용기를 얻어 대담해졌음에 틀림없습니다.¹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위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의 권위, 즉 마귀는 그 말씀의 정확성에 도전했습니다. “Yea, hath God said, Ye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애초에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전달되는 과정에서 뭔가 빠지지 않았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1.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덧붙였고, 하나님 말씀에서 두 번이나 뺐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라고 말씀하셨다.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두 번이나 살짝 바꾸어 말씀의 능력을 상실케 하고 말씀의 완벽함을 떨어뜨렸다. 나중에 그녀는 그 징벌을 최소화시킨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브는 그것을 “혹 죽을까 함이라”고 바꾸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덧붙였다.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이었다.(창세기 2:16-17과 3:2-3과 비교하라)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여부를 따지고 나왔습니다. 종종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자신의 욕구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브의 눈길이 그 금지된 나무를 주시하도록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우며, 얼마나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얼마나 지혜롭게 되는 데 바람직한지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립” 해서 행하고, “성숙” 해져서, “그녀 자신의 일을 처리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성경의 진위와 정확성의 문제에 대하여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진리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여 지지 않음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의심을 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브가 한 번 의심을 하게 되자, 그는 이어서 부인(否認)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는 “Ye shall not surely die—너희가 확실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Thou shalt surely die—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Thou shalt not surely die—너는 확실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응답한 것입니다. 모든 유혹은 믿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사탄 아니면 하나님, 누구를 믿으려고 합니까?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에게 바로 그 출발점을 상기시켜 믿음이 매우 중요한 필수요건임을 강조하십니다.

사탄은 의심과 부인에 이어서 망상에 사로잡히도록 이끅니다. 그는 “Ye shall be as gods, knowing good and evil—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신들”(gods)이라는 말은 엘로힘(Elohim)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브의 생각 속에 한때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과 똑같은 담대한 생각, 즉 그를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에서 마귀로 바뀌게 했던 그 담대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브는 그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써 온갖 지혜에 대한 그녀의 눈이 열리리라고 믿

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발견한 지식으로 남편을 놀라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양심에 대한 순결을 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흥정이었습니다.

b. 아담의 감정에 호소함(3:6)

아담에 대한 유혹은 아주 다른 노선을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아담이 지적 능력으로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기에, 사탄은 그에게 맞추어 아주 다르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아담의 감정에 호소(an appeal to Adam's emotions)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브로 아담을 유혹하도록 했습니다.

내리막길은 가팔랐습니다. 우리는 “이브가 보았다”라고 듣습니다. 즉 그녀의 시선이 그 금지된 열매에 완전히 쏠렸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바라봄을 욕망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바라만 보는 데에는 해될 것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종 문제가 있습니다. 유혹은 자주 눈을 통해 옵니다. 이브는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육신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안목의 정욕), 그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이생의 자람)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 요소로 매우 성공을 거두었기에 그 이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데에 언제나 그 방식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요한일서 2:16)²

그 다음에 우리는 이브가 선악과의 열매를 “뜯다”고 듣습니다. 이제 그 목적은 욕망을 결단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시키시거나 사탄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지도

2. 주 예수께 대한 사탄의 유혹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한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다. 그는 예수께 순간적으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였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이었다. 그는 예수께 아래에 있는 군중들의 경외와 감탄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아니하십니다. 사탄은 설득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짓도록 밀어붙이지는 못합니다. 사탄은 주께 몸소 뛰어내리라고 재촉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밀어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의 능력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타락에서도 한 요인(要因)이며, 구원에서도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브가 “먹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그 선택을 속박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첫 한 입에 베어 물음으로써 그녀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He that committeth sin is the slave of sin—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요한복음 8:34). 이브는 마귀의 덫에 걸렸고, 이제 그의 뜻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디모데후서 2:26). 그 선택은 속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녀가 “주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목표는 그 죄인을 유혹하는 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최고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타락한 여인을 그녀의 남편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덫으로 만들었습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선함에 대해 매우 짜증을 냅니다.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그들을 비난한다고 느낍니다. 자신들의 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양심적으로 잘못되었고, 열등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선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디모데전서 2:14).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여인이 타락한 상황을

서 도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놀라울 만큼 장관을 이루는 일을 하라고 재촉했다.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었다. 주 예수께서는 이브가 것처럼 경솔하게 내던져버린 바로 그 검(劍)을 사용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 세 번이나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고 답하셨다.(마태복음 4:1-11)

보고서, 다시는 순결한 상태로 되돌릴 길이 없음을 알고도 여전히 사랑하기에, 그녀와 같이 되기 위해 그녀가 처한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아담의 죄는 이브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2. 뱀의 성공(3:7-8)

정말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그렇게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귀신들은 틀림없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게 됩니다. “And the eyes of them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니라.” 얼마나 비참한 발견입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아마도 빛으로 옷 입혀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옷으로 덮으시듯이 빛으로 덮으시고(시편 104:2), 또 주 예수께서도 모습이 변하실 때, 유사하게 옷 입으셨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9:2-3).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이브는 빛이 소멸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던 영의 죽음으로 인해 그 빛이 꺼지게 되었고,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는 육체적인 면이 전에 없던 현상으로 갑자기 부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낙원 안에 있던 거처, 매일 누리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기대되는 삶의 희망을 영구히 팔아먹은 대가로 얻은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aprons—그들은 무과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에게 앞치마를 마련하더라.” 얼마나 잘못된 결정입니까.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스스로 마련한 그 무화과 나뭇잎들은 인간이 그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최초의 시도를 나타냅니다. 그 나뭇잎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자신을 맞추려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든 노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서로에게는 그 나뭇잎들이 충분히 훌륭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꿰뚫고 보시는 눈으로부터는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그들이 도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3:8).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던 주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고 도망하여, 동산의 나무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시간은 하루 중의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들의 생각은 이제 죄로 어두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B. 인류의 장래(3:9-24)

1. 소환된 아담(3:9)

아담과 이브는 이제 죄의 삯으로 사망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진지하고 근엄한 질문이 에덴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불타는 검(劍)처럼 아담의 비참한 혼속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잃어진 자가 되었고, 그곳이 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 질문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또 그의 하나님과도 직면하기 위해 무성한 잎에서 앞으로 나왔습

니다.

2. 조사받은 아담(3:10-13)

자신의 죄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아담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완곡하게 돌려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우에 서와 같이 그는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명을 살펴봅니다. "I heard thy vo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3:10).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었습니다. 진실이 그에게서 질질 끌려나왔습니다. 그의 전 존재는 뒤틀러버렸습니다. 한때 동산의 숲속 빈터를 거닐던 활기차고 솔직하고 바르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둘러대고, 솔직하지 못하고, 마음 내키지 않아 하며, 고민하는 저런 자는 누구입니까? 왜 그는 정직하게 나와서 "I have sinned before heaven and in Thy sight and am no more worthy to be called Thy son—내가 하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데에서 죄를 지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는 타락한 자였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desperately wicked—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하다" (예레미야 17:9)는 것을 온 우주에 처음으로 증명해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변명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아담의 판단으로 자신은 유죄(有罪)였습니다. "Who told thee that thou wast naked?—누가 너에게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하더냐?" 아담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열한 핑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The woman whom thou gavest to be with me, she

gave me of the tree, and I did eat—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나에게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땅에 기록된 사람의 삶의 지저분한 모든 사연 가운데 이보다 더 초라한 기록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는 하나님을 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인이.”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탐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주었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인간의 죄에 대해 그분께 책임이 있다는 그 사악한 결론을 무시하셨습니다. 아담이 그러한 점을 넘기지 비치고,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의 뼈!”라고 황홀경에 빠져 외쳤던 그 아내에게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죄의 황폐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³

아담이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썼던 것이 그대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3:13). 그 여자도 똑같이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여자는 “The serpent beguiled me, and I did eat—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

-
3. 항상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었다. 이것의 전형적인 증거는 나치 전범들이 그들의 반인륜적인 죄로 기소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였다. 행정 보좌관 조세프 수스(Josef seuss)는 훌쩍이며 “군인은 오직 명령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대대 지휘관 웰터(Walter Langlesit)는 “나는 보잘 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물들의 명령으로 행해졌습니다”라고 표명하였다. 250만의 유대인들의 목살을 개인적으로 지휘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지휘관인 헤스(Hoess) 대령은 “독일에서 만약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면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답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비밀경찰 지휘관이며 독일의 제2인자였던 헤르만 괴링(Hermann Goering)은 “우리에게는 총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라고 외쳤다. 히틀러는 자살로 꿈무늬를 뺏지만 그는 틀림없이 베르사이유 조약을 탐했을 것이다.

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문제에 대해 아담보다는 훨씬 더 솔직했지만, 여전히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가 나를 속였으니 그의 잘못이에요!”

3. 판결받은 아담(3:14-15)

판결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뱀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브에게 판결이 내려지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쟁(war)이 내포된 판결이었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unto the serpent, Because thou hast done this, thou art cursed above all cattle, and above every beast of the fiel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는 네 배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 여자의 씨 사이에 적의(敵意)를 두리니, 그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사악한 자에게 몸을 빌려주어 유혹의 도구가 된 피조물인 뱀에 대해서는, 티끌 속으로 떨어지는 조치에 처해졌습니다. 소리 없이 몸을 비트는 뱀의 행태는 오늘날까지 파동치고 꿈틀거리는 상형문자를 이루는데, 땅바닥에 먼지로 혐오와 위협으로 가득 찬 줄들을 그으면서 우리에게 저주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뱀을 혐오와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주는 뱀을 넘어 사탄 그 자신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어떤 협상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에게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전쟁 선포에서 아담과 이브는 최초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약속과 최초의 예언을 듣기 위해 새로운 소망을 갖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 오심을 함축하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승리가 비극보다 더 빛을 받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상함은 그 다음에 언급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만 궁극적인 승리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과멸의 판결로 사탄은 결국 자기 자신의 꾀에 넘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그를 위해 준비된 매복(埋伏)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를 쫓아낸 하나님께 복수할 길을 찾던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미스테리의 부정(the mystery of iniquity)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도록 스스로 길을 연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복수를 계획했던 바로 이 지구가 그의 마지막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자신이 사탄의 패배와 멸망의 도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그 영광스런 끝마무리를 이루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씨”는 죄와 사탄 모두에게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갑자기 지구는 우주에서 최고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⁴

두 번째 부분은 화(禍)가 내포된 판결이었습니다. “Un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thy sorrow and thy conception; in sorrow shalt thou bring forth children; and thy

4. 워털루(Waterloo)는 지도상에서도 가까스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그 이름은 전 세계에 걸쳐 알려져 있다. 1815년에 웰링턴(Wellington)의 아이언 듀크(Iron Duke) 군대가 나폴레옹 군을 맞아 굴복시키고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던 곳이 워털루였기 때문이다. 그 날로부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and he shall rule over thee—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네가 바라는 것이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슬픔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가장 큰 성취인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에 슬픔이 그 중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굴종(屈從)이 있게 되었습니다. 죄는 고뇌를 함께 달고 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남편의 권위는 종종 압제(壓制)로 바뀝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여자는 남편과 가정의 권위로부터 제공되는 보호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일이 내포된 판결이었습니다. “And unto Adam he said, Because thou hast hearkened unto the voice of thy wife, and hast eaten of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thee, saying, Thou shalt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in sorrow shalt thou eat of it all the days of thy life; Thorns also and thistles shall it bring forth to thee; and thou shalt eat the herb of the field—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에서 난 것을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슬픔 가운데에서 너는 평생토록 땅에서 난 것을

터 워털루는 그것의 실제 크기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중요한 곳으로 여겨졌다. 이와 비슷하게,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된 죄악의 비밀을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정하신 것은 우리의 이 작은 지구 위에서였다. 지구는 이 우주에서 그 크기가 차지하는 모든 비중을 떠나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사악한 자는 아담과 이브를 공격함으로써 그의 업적에 가장 큰 실책을 범했음을 배우게 되었다.

먹으리라. 또한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니라.” 보상 없는 수고, 죄로 인해 저주 받은 땅 위에서의 고된 노동, 그리고 그와 함께 무자비한 공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In the sweat of thy face shalt thou eat bread, till thou return unto the ground; for out of it wast thou taken: for dust thou art, and unto dust shalt thou return—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이 땀에 젖어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날부터 지금까지 죽음의 망령이 이 지구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담은 그가 고되게 노동하는 바로 그 땅이, 매일같이 그의 시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끔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든 무시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시신을 방부처리하거나 관을 꽃으로 둘러싸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씁니다. 그래도 죽음은 여전히 죽음입니다. 즉 공포의 왕이요, 마지막 원수요, 영원으로 가는 이쪽 길목의 결정적인 재앙으로써 죄의 궁극적인 대가입니다.

4. 구원받은 아담(3:20-24)

이 부분은 이 이야기의 최고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한 비참한 피조물을 구하시기 위하여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은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3:20-21). 구원은 항상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든 무화과 잎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기에 그 선고의 마지막 집행 시간만 남은 그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살펴봅시다. 그는 자신의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습니다. “because she was the mother of all living—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음이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으나 여자의 씨가 구원을 가져오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은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모든 죽어가는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부름으로써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었고, 즉시 하늘의 장부에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아담의 앞가림(Adam's covering)을 살펴봅니다. “Unto Adam also and to his wife did the LORD God make coats of skins, and clothed them—또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으로 옷들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에덴에서, 그 낙원에서 맨 처음으로 피가 흘러졌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낮이 나간 채 거기에서서 그 피조물이 그들 대신 불들려와 그들 눈앞에서 도살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피가 뿌려졌고, 그것으로 만든 앞가리개는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의 궁극적 대가인, 죄의 공포와 두려움을 제일 처음 극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실례였습니다. 죄는 근본적인 질병이기에 근본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타락한 부부를 구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통제도 하셨습니다(3:22-24).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도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상태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았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처럼 되어 죽을 수도 없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죄책감과 형벌 속에 영원히 갇힐 뻔했습니다. 그들을 회개시켜 새롭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부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를 전혀 건드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떼어놓기 위해서 무장한 문지기를 그 동산의 문 앞에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그때부터 노아의 홍수로 인해

지형이 바뀌는 그 날까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 불타는 검은 든 그룹이 에덴동산의 문에 서 있었습니다. 불타는 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참으로 잘 상징해줍니다! 결국 그 여인의 씨의 한가운데 있는 칼집에 꽂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화염검입니다.

II. 최초의 거짓종교(4:1-15)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뱀의 머리를 짓밟도록 약속된, 그 약속의 씨(the promised Seed)가 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I have gotten a man, even Jehovah!—내가 아들을 낳았고 정녕 여호와이시라!"⁵ 알렉산더 화이트(Alexander Whyte)가 힘주어 설명한 것처럼, 그녀가 그 밖의 무언가를 믿었다라면, 냉정한 무신론자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다가오실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녀의 구원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틀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과 그분은 그녀의 씨에 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 첫 젓먹이가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나자 곧 발끈하며 화내는 성격과 속이고 거짓말하는 타고난 능력과 그의 자아와 자만이 곧 드러났습니다. 십중팔구,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만아들이 "뱀의 씨"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기에, 그 둘째 아들을 아벨 "허무(Vanity)"라는 의미로 불

5. Scofield는 옛 스코필드 성경판본(the old Scofield Bible)의 난외(欄外)에 서 이렇게 외쳤다고 표현했다. 어떤 번역본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렸습니다.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허무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참으로 “be yea and amen in Christ—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아멘하게” 되는 것이지, 가인의 안에서 예가 되어 아멘하게 되는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에덴동산의 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버지 농장에서 두 소년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나이 터울이 많지 않은 형제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데에 쓰인 접속사 반복법이 그런 점을 암시해 줍니다. 접속사 반복법은 사건들이 확실히 끊임없이 진행됨을 시사해 줍니다. “*And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Cain, and said,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And she again bare his brother Abel. And—* 그리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느니라.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였느니라. 그리고 가인을 낳았느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노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 틀림없이 서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말다툼도 했을 것이고, 이 구원받지 않은 두 아들들은 아담이 이 세상으로 끌고 들어온 무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자라나서, 그 죄의 법이 그들 어린 혼 가운데에서 당연히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확실히 좋은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 모닥불 주위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각각 경작할 땅에 대한 계획도 세우며, 어린 양과 새끼 고양이와 송아지를 먹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룹과 화염검을 보려고 에덴동산의 문까지 소풍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 교육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라가면서 잡초를 제거하거나 늑대의 공격에도 대처하는 등, 여러 힘든 일을 하면서 인생의 보다 더 준엄한 교훈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두 소년은 성인으로 자랐습니다. “*and Abel was a*

keeper of down, but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그래서 아벨은 양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이제 그 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둘 중에서 아벨은 더 고상한 쪽을 선택해서, 구약성경의 위대한 목자들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목자들은 모두 이런저런 모습으로 앞으로 오실 선하신 목자의 예표였습니다. 가인은 농부가 되어, 흙의 아들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여 성공한 시장 공급 채소 재배자가 되어 자신이 생산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즐거운 휘파람을 불며 손에 괄이를 들고 자신의 전답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펄 벅(Pearl S. Buck)의 소설에 등장하는 왕릉처럼 그는 흙이 그의 혼에 스며들 때까지 그의 땅에 심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태양은 그에게 내려찍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얼굴은 땀방울로 반짝였을 것입니다. 그가 밭을 갈며 허리를 굽힐 때마다 그의 몸은 한결같은 리듬으로 물 흐르는 듯했고, 대지(大地)에서 해를 향해 몸을 돌릴 때마다 그 움직임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땅은 그의 괄이 끝에서 가볍게 갈려나가면서 검고 비옥하게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역센 잡초들은 가인이 끈질기게 작업을 계속하자 어지럽게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한편 아벨은 양떼를 몰고나가, 초원언덕 너머로 멀리 나아갔을 것입니다. 양들을 그의 앞에 두고 나무 밑에 앉아서, 풀마가 다가오는 지 눈을 부릅뜨고 살폈을 것이고,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렸을 것입니다. 그가 삶과 죽음의 신비(mystery), 잃어버린 낙원, 화염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십자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그의 머릿속은 영원한 진리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께 거슬리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룹들

이 있던 낙원의 문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무턱대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n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an offering unto the LORD. And Abel, he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 fat thereof—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헌물로 주께 가져왔고, 아벨 그도 역시 그의 양떼 가운데 첫 번째 난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살찐 것을 가져왔느니라.” 가인은 그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아니었고 꼼꼼하고 종교적이고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동생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앞장서 나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땅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린양을 가져 왔습니다. 흠이나 점이 없는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작은 돌 제단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쏘시개를 잘라 불을 붙이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어린양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크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믿고 안긴 온화하고 순수한 놈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놈은 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재빠르고 단호하게 칼을 잡고 그 어린양의 목을 자르고 붉은 피가 뿜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흐느끼면서 조용해진 그 형체를 들어 올려 불 위에 놓고 하나님께 바치며 그의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은 두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가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이고, 햇볕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이처럼 끔찍한 희생제물을 보고 격분하여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벨의 피투성이가 된 제단을 역겹게 바라보며 그 자신의 제물을 으스스대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화가 난 채 그 장면으로부터 당당히 걸어 나와, 들판의 과실들에서 나는 신선한 향기로 가득한 그의 제단 앞에 서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그의 팔 근육이 울퉁불퉁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And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but unto Cain and to his offering he had not respect. And Cain was very wroth, and his countenance fell—그리고 주께서는 아벨과 그의 헌물을 중히 여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라.” 아벨의 제물이 열납되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당한 것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s: and by it he being dead yet speaketh—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리고 그것에 의해 그는 죽었으나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히브리서 11:4). 로마서 10:17은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함에서 그들의 생각대로 하도록 맡겨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아담과 이브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미 “without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히브리서 9:22, NASB)는 것을 배워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틀림없이 무화과 나뭇잎이 동물의 가

죽음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벨은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물이 필요한 죄 짓고, 타락하고, 무력한 죄인으로서의 그의 위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주홍빛이어서 피 흘림으로만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얼마간, 자신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아벨은 갈보리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에게는 의로움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더기 조각 같은 자기 자신의 의(self-righteousness)를 꺼내들며 피에 근거한 구원을 경멸했습니다. 그러한 견해는 그가 보기에 야만적이고, 불쾌하며, 역겨웠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구원을 경멸했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의 길로 나아왔습니다. 그 길은 그 후로 그와 그의 영적 후손들에게는 충분히 옳다고 여겨졌으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길에는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그분께 다가 갈 수 있고, 아니면 가인의 길을 따라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길은 곧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다른 길은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우리 앞에 세상의 첫 거짓 종교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더할 나위 없는 관심거리입니다. 그 이후로 첫 거짓 종교는 모든 거짓 종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A. 가인의 종교의 거짓된 결론(4:1-7)

1. 순전한 인간적인 계약(4:1-2)

진정한 구원은 세 초점 주위를 도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증거입니다. 가인의 종교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른 것으로 대치해 놓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위를

선회하는 대신에 순전한 인간적인 계약에 그 첫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은혜로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2:8-9).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God’s] Son cleanseth us from all sin—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한일서 1:7). 하나님께서는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출애굽기 12:13)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redeemed…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의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구속된 것”(베드로전서 1:18-19)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종교는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사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적 사고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가인의 종교 배후에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구원은 행위로 얻어져야 하는 것이고, 공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가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은 지구상의 모든 거짓 종교와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모든 거짓 사교의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니어 윌리엄즈(Monier Williams)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어(Sanskrit) 교수로서 내 임무를 다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동양의 종교 서적들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책들에서 하나의 해답(key), 말하자면, 하나의 선율

을 찾아냈는데, 브라만의 베다이든, 시바와 비쉬누의 피나나스이든, 모하메드의 코란이든, 파시의 젠드아베스타이든, 불교의 팔만 대장경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한 하나의 후렴은 행위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들 모두는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자격으로 사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⁶

가인의 종교는 순전한 인간의 계략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생각과 반대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교는 금욕적이며 감동적이며 외면적인 형태는 아름다울 수 있으나,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 오류와 의도적인 불복종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무뚝뚝하게 “가인의 길”이라고 부르시고(유다서 11절) 배교(背敎)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2. 순전한 인간적인 희생(4:3-4)

가인의 종교의 두 번째 오류는 첫 번째 만큼이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에 중심을 맞추는 대신에 순전한 인간적인 희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분명히 큰 희생을 치른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벨의 제사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을 수 있습니다. 그 제사는 수고, 노력, 노동, 끈기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원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제일 아름다운 꽃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제단에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달콤한 향기를 뿜게 하려고 땅에서 가장 향기로운 허브를 찾아 선택했을 것입니다. 가장 크고 잘 익은 열매를 손으로 직접 딱딱한 땅에서 파거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무 맨 꼭대기의 가지

6. D. M. Panton에 의해 인용되었다. *Gnosticism : The Coming Apostasy*(London: Thynne/Jarvis, 1925), p. 37.

까지 올라가 잘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여야만 했고, 정말로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 어디에도 피 한 방울 있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헌물(獻物)을 가져왔으나 희생제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생각은 표시했지만 갈보리는 무시했습니다. 그는 예배드릴 마음은 있었으나,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다가간 방식은 그에게는 아주 합당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가인 편에서의 죄에 대한 의식, 그의 죄의식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의 소산물인 그의 헌물이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헌물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손으로 이룬 소산물이었지만, 전적으로 부적절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가인의 길로 서둘러 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생각들, 선행, 종교적 의식들, 그리고 사회 활동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3. 순전한 인간적인 만족(4:5-7)

가인의 종교적 체계의 세 번째 오류는 성령의 증거를 무시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신 그 체계는 순전한 인간적인 만족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인은 뒤로 물러서서 긍지를 갖고 그의 제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헌물을 쌓아올리는 데에 드린 그의 모든 노력을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저건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참 멋있지요! 나는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홀

룡한 것은 기대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것은 순전한 인간적인 만족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이 받은, 즉 아벨이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주께서는 가인의 헌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unto Cain and to his offering he had not respect—아벨과 그의 헌물을 중히 여기셨으나…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니라.”

가인의 만족과 안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순간에 적의와 분노로 변했습니다. “And Cain was very wroth, and his countenance fell. And the LORD said unto Cain, Why art thou wroth? and why is thy countenance fallen? If thou doest well, shalt thou not be accepted? and if thou doest not well, sin(or a sin offering) lieth at the door—가인은 몹시 분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라. 그러자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네가 제대로 행하면, 네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또는 죄의 헌물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벨의 길인, 그 올바른 길로 오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받아드리실 수 있는 유일한 죄의 헌물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간의 다른 점은, 즉 믿는 자와 종교적인 사람의 다른 점은 그 사람 자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받아들여시려고 하십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세계의 거짓 종교의 창시자인 가인은 그가 들은 것에 격분하였습니다.

B. 가인의 격한 편협적인 종교(4:8-15)

1. 폭력으로 특징지어짐(4:8)

가인의 종교는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폭력(force)으로 특징지어집니다(4:8). 분노가 끓어오른 가인은 들에서 아우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았을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벨이 그의 제단과 양을 가인에게 사용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영적인 후예들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수치스러워. 너희들의 복음은 핏덩어리 복음이야. 고상하고 감수성 많고 도덕적인 인간에게는 반발만 일으키지. 그리고 네가 제단에 드린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 아무것도 없잖아! 내 종교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는지 한번 봐. 내 노력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믿으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혐오스런 네 제단을 봐! 저 하늘 높이 악취 나는 검은 연기며 붉은 피로 흥건한 것 좀 봐! 내 것 좀 봐! 얼마나 아름다우냐. 와서 허브와 아름다움 꽃향기를 한번 맡아봐. 내 방식이 네 방식보다 더 나은 것을 고백하지.”

그러고는 아마도 아벨의 조용한 간증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종교가 고상해서 어린 양을 죽일 수 없다던 가인은 그의 동생의 심장에 그의 칼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가인은 거짓 종교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한 폭력이요, 박해요, 순교로 특징짓게 합니다. 한 시간이 채 못 되어, 가인의 종교는 세계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로 종교의 이름으로 땅에 흘리는 모든 핏방울은 폭력적인 가인의 길을 구별해내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 거짓으로 특징지어짐(4:9)

가인의 거짓 종교는 거짓(falsehood)으로 특징지어집니다(4:9). “And the LORD said unto Cain, Where is Abel thy brother? And he said,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그러자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라.” 주께 넘고 무례하게 가인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고작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전지하심이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의 수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 종교의 중심에 속임수와 사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흉악한 거짓 진리를 퍼뜨립니다.

3. 헛된 것으로 특징지어짐(4:10-12)

그것은 헛된 것(futility)으로 특징지어집니다(4:10-12).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를 간단히 벗겨버려, 가인과 그의 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What hast thou done? the voice of thy brother’s blood crieth unto me from the ground…a fugitive and a vagabond shalt thou be in the earth—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땅에서 도망자가 되고 떠돌이가 되리라.”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종교는 가인을 도망자와 유랑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잃은 자요 저주받은 자로 이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광야처럼 되었고 무의미하고 황폐해졌습니다. 더 이상 만족함은 그에게 없었고, 그의 에너지는 소진(消盡)되고, 그의 인생은 망친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방황하며 그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종교의 열매입니다.

4. 공포로 특징지어짐(4:13-15)

그것은 공포(fear)로 특징지어집니다(4:13-15). 가인은 울부짖었습니다. “My punishment is greater than I can bear…every one that findeth me shall slay me—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나이다…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하리이다.” 가인의 종교에는 회개나 죄책감이 없이 오직 그의 운명에 대한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보복의 손길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는 그에게 더 큰 범죄, 깊은 불안, 끝없는 불행, 그리고 떨치지 못하는 두려움만 가져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잘못으로 얽매여 있는 한 그의 가장 깊은 혼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허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최초의 거짓 종교 설립자는 방랑자로 이 땅을 떠돌며 언제 어디에 묻혔는지 기록조차 없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수많은 거짓 종교의 창설자들이 한 것처럼 하나의 크고 번성한 문명을 흔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커다란 사회적, 세속적, 과학적인 활동으로 특징짓는 한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모두 죄로 가득 찬 활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대홍수를 직접 초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3장
재앙
(4:16~9:29)

- I. 심판을 향해 내달음질치는 세상(4:16~6:22)
 - A.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4:16~6:7)
 - 1. 경건치 않은 자들(4:16-24)
 - 2. 세속적이 아닌 사람들(4:25~5:32)
 - 3. 무법한 자들(6:1-7)
 - B. 그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6:8-22)
 - 1. 한 사람(6:8-13)
 - 2. 계획(6:14-22)

- II. 심판으로 마침내 버려진 세상(7:1-24)
 - A. 믿는 자들의 구원(7:1-9)
 - B.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7:10-24)
 - 1. 멸망의 시기(7:10-16)
 - 2. 멸망의 완전함(7:17-24)

- III. 심판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된 세상(8:1~9:29)
 - A. 노아의 기다림(8:1-5)
 - B. 노아의 시험(8:6-14)
 - C. 노아의 신뢰(8:15-9:17)
 - 1.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8:15-19)
 - 2. 노아와의 주님의 언약(8:20~9:17)
 - D. 노아의 수고(9:18-23)
 - E. 노아의 증거(9:24-29)

제3장 재앙

I. 심판을 향해 내달음질치는 세상(4:16~6:22)

타락과 대홍수사이에는 대략 15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오랜 세기 동안의 이야기는 놀랄 만한 이야기이지만 특유의 간결함으로 쓰였습니다. 그 시대에 관해서 많은 책들이 쓰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계서는 그 이야기를 140절로, 다섯 장(章) 반이라는 짧은 장들로 압축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개될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대홍수의 원인을, 또 하나는 재앙 그 자체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A.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4:16-6:7)

지금 우리에게 살펴보도록 주어진 그 시대 자체에 대해서 예수께서 몸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노아의 날들처럼”(마태복음 24:37), 주님의 재림 이전의 날들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 경건치 않은 자들(4:16-24)

창세기 4장과 5장은 두 조상의 계통의 발자취를 추적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 즉 가인의 계통이 처음에 설명되고, 경건한 자들인 셋의 계통이 그 다음으로 살펴집니다. 성경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두 계통의 일곱 번째 세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바라보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그는 가인의 계통에서는 가라지가 마지막으로 여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라멕에서 잠시 멈추고, 셋의 계통에서는 밀이 여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에녹에서 잠시 멈춥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출현할 불법의 사람에게서,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계신 하늘로 휴거되는 데에서 그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a.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4:16-17)

하나님을 부정하는 계통은 세계 최초의 거짓 종교를 세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불안정하며 반항적인 사람이었고, 강한 기질에 독단적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이며, 아집이 강하고 지독하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교를 거부하셨으므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격(位格, God's person)에 대한 무관심으로 시작하면서(4:16) 그의 계통은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었습니다(4:16-17). “And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on the east of Eden—그리고 가인이 주의 눈앞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낫 땅에 거하니라.”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났던 곳, 즉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있는 에덴의 문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유랑”의 땅인 낫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았던 적도, 그분과 어떤 교제도 나눈 적도, 그분의 말씀을 접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하였듯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나누었

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것은 바로 배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 가인을 배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격(位格)에 대해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치 않고, 가인은 하나님의 낙원(paradise)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과시했습니다(4:17). 그는 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녹의 이름을 따라 불렀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처음으로 세운” 또는 “헌신(獻身)된” 또는 어떤 이가 제시하듯 “낙성(落成)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개시(開示)한 것입니다. 그는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지금은 잃어버린 진정한 낙원을 대신할 인공의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같은 낙원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가인에게는 장래의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그때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좋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가 그 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면, 그는 도시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살기에 안락하고 편한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그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호화로움과 쾌적함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늦의 땅은 방랑의 땅이었겠지만, 그는 재능과 부지런함과 추진력을 다해서 그 땅을 영속적이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낙원을 유지하실 수 있으셨고, 가인도 그 자신의 낙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b.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4:18-24)

인류 초기의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은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처음 품었던 반감은 노골적인 적의(敵意)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상당 부분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름들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¹

가인의 계열에서 몇몇 이름들이 하나님(Elohim)을 의미하는 “엘”(el)로 끝난다는 사실은 얼마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인의 족속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음을 가리켜줍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순전히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바울(Paul)이라는 이름 가진 모든 아이들이 그 위대한 사도를 따라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인의 계통에서 가끔 뻘뻘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던 것은 이내 사라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잊히고 말았습니다.

이랏(Irad)이란 이름은 “도망자”, “도시의 증인”, 또는 “난폭한 나귀”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드러내는 이미지는 그가 거둬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일 모세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난폭한 나귀”의 의미가 시사해주는 바가 많은데, 나귀의 첫 태생은 어린 양으로 대속되든지 아니면 그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므후야엘(Mehujael)은 “하나님께 벌 받다” 또는 “야(Jah)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다”라는 의미로 불렸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상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므드사엘(Methusael)은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그들은 찾다가 죽었다”라는 의미인데, 어쩌면 가인의 족속 가운데에도 세상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하여 염려했던 사람이 얼마간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이 여러 의문들을 가졌지만 어떤 올바른 대답도 얻지 못한 듯합니다.

-
1. 비록 몇몇 명칭의 정확한 의미는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들은 그 시대를 합당하게 비추어준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칭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히브리 문장은 모음을 사용하지 않는 까닭에 그 뜻이 항상 확실하지는 않다. 애매한 히브리말의 의미는 보통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명칭들을 다루는 데에서 그 문맥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어사전(Lexicons)은 종종 히브리 이름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예들을 제시한다. 어떤 모음이 주어지느냐에 따

마지막으로 잠시 깜빡거리던 촛불이 라멕에 의해 곧 꺼져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라멕의 이름은 “강력한”, “정복자” 또는 “거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에게서 정복자가 나오고, 강력한 자가 나오고,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오리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첫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욱망과 불법이 마귀의 메시아인 짐승에게서 꽃 피우고 열매 맺듯이 라멕에게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간 가인의 계통은 결국 라멕의 가족에서 끊어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멕 안에서 대홍수 이전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은 노골적인 도전으로 숙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동이 트는데, 그 세대에서는 과학, 예술, 철학, 그리고 종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그 절정을 향해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도덕적으로 혼란스런 시대였습니다(4:19). “And Lamech took unto him two wives: the name of the one was Adah, and the name of the other Zillah—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라멕으로부터 최초의 결혼에 관한 법이 공공연하게 깨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멕은 스스로 관례를 무시할 만큼 강하다고 여겼고, 남자들은 여러 아내들을 둘 수 있다는 구실로 새로운 도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일부다처제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

라 자음이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 절을 볼 때 거기에 담긴 이름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을 참고하는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Enock”은 “선생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 의미를 풀기 위해서 위에서의 기준을 따라, 성경 이름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J. B. Jackson의 *A Dictionary of the proper Names of the Old and New Testament* (New York: Loizeaux, 1909)과 같은 성경 사전과 책들을 참고해야 한다.

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째 아내 아다의 이름은 “장식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둘째 아내 실라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음” 또는 “유혹하는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라멕은 그 여인들에게서 견딜 수 없는 매혹을 느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아다에게서는 성경에서 일컫는 “안목의 정욕”에, 그리고 실라에게서는 “육신의 정욕”에 휩싸였습니다.

그 새 시대는 놀라운 발견의 세대였습니다(4:20-22). 라멕의 세 아들들은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야발은 “the father of such as dwell in tents, and of such as have cattle—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여러 세기 동안 사람들은 도시로 물러들었습니다. 야발은 초기의 유목생활을 접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 적응했습니다. 그는 그 방면의 삶에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그 방면의 삶의 발명가였으며 창설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 “가축”이라는 말 역시 흥미로운데, 그 말은 문자 그대로 “소유”라는 의미이고, “손에 넣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발은 새로운 생활방식이나 기술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분야를 지배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는 시장의 상품을 매점했습니다. 그는 가축사업을 “독점했습니다.” 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케팅이 그의 전문분야가 된 듯했습니다. 그는 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르면, 야발이라는 이름은 바로 “생산자”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다른 장기, 즉 음악에 전문가였습니다. 그 이름은 “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자” 또는 “즐거운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He was the father of all such as handle the harp and organ—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현악기와 관악기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 체제는 그만의 오락 매체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잇는 방편

으로 적절히 시간을 메울 즐길 거리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자”가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장단과 리듬과 생동하는 가락을 제공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라벡의 셋째 아들은 두발가인이었는데, “an instructor of every artificer in brass and iron—놋과 쇠를 다루는 모든 기술자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고대의 세계에 산업혁명을 이끌어 들인 야금술의 발명자였습니다. 우리는 제련과 대장 기술의 발견이 그 선진 문명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발가인은 모든 그 분야에서 “스승”으로 불리거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이 “Tubal-cain, the forger of every cutting instrument of brass(copper) and iron—두발가인은 놋쇠(구리)와 쇠로 된 모든 종류의 자르는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독점했습니다. 그 금속작업은 극비 사항이었을 것이고, 가족 내에서만 전수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가족은 이 기밀로 인해 지배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발가인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르는 도구”였습니다. 그 도구들로 무장한 그의 가족들은 그 고대 세계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의 발견들은 지금 이 시대의 핵에너지의 발견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명만큼이나 그 당시에 불길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 세 형제가 사악한 가인의 계통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인 야발, 유발, 두발은 모두 “유통하다” 또는 “생산하다”를 의미하는 같은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들은 발견의 시대를 열었고, 번영과 쾌락 그리고 권력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즐거움(혹은 쾌락)” 또는 “사랑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다룬 두 여인의 이름과 연결 지으면 그녀는 아마도 “이생의 자랑”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로써 세속성의

삼부작이 완성되는데, 그 시대를 특징짓습니다.(요한일서 2:16)

또한 그 세대는 호전적인 저항으로 특징지어집니다(4:23-24).
 “And Lamech said unto his wives…Hear my voice; ye wives of Lamech…I have slain a man to my wounding [for my wound], and a young man to my hurt. If Cain shall be avenged sevenfold, truly Lamech seventy and sevenfold—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내가 부상을 당해 한 사람을 죽였고, 내가 다쳐서 한 청년을 죽였음이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일곱 배로 보복을 받는다면, 참으로 라멕은 일흔일곱 배로 다고 하더라.” 70인역 성경(Septuagint)은 “칠십의 일곱 배”로 번역하여, 라멕의 뽀냄을 주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치심과 예리하게 대조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는 성경에서의 최초의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인간의 독립과 능력과 복수심을 찬양하기 때문에 “칼의 노래”로 불립니다. 두발가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무기로 그의 손에 놓게 된 권력에 의기양양해하며 교만하게 누구든지 그를 다치게 하면 죽이겠노라고 위협했습니다. 오만스런 불경건함으로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수를 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와 같은 노래는 라멕의 인격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호전적인 저항의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물질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는 조직화된 도시의 삶을 누렸고, 중앙 통제 아래에서 경제적 문제들을 처리했습니다. 예술과 문화의 모든 세련됨을 갖추고, 새롭고 개방적인 도덕성을 지녔으며, 혼자서도 능력을 과시하는 무기들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고대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분명히 특징짓는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2. 세속적이 아닌 사람들(4:25~5:32)

이제 이야기는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작에서부터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세계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의 세계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중인을 세우시며 일하십니다. 그래서 매 세대마다, 사악한 세대가 드러나는 데에 보조를 맞추어 거룩한 사람들의 계통도 뒤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관련되어서 그들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공헌한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새로운 고안을 낸 것도 없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의 형태를 소개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모두 그들이 살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증거의 횃불을 들고 갈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데려다 놓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경우 이 말이 두 번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계통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계보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들은 살아서, 그들의 손에 세상을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개혁, 과학적인 발달, 세속적인 진보는 확실히 그들이 “훌륭한 삶”을 살았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불법과 죄 속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셋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함이라”(요한복음 10:10). 그들은 그 진리에 거했습니다.

또한 셋의 사람들도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인의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미심장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허울뿐이며, 의미 없는 허구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영원히 수치스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셋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도 죽었고 저 사람도 죽었다고 되풀이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5장(章)을 따라가면서 “and he died…and he died…and he died—그리고 그가 죽었고…그리고 그가 죽었고…그리고 그가 죽었고” 라는 조종(弔鐘)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Thou shalt not surely die—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사탄이 말했는데, 성령께서는 “and he died—그리고 그가 죽었고”라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 조종소리는 “the wage of sin is death—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인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사람들의 죽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각각의 성도의 죽음은 하늘에서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한 것”(시편 116:15)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들을 이 보잘것없는 세상의 슬픈 시선과 소란스러움으로부터 해수로 시간을 헤아리지 않는 곳,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곳,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a. 새로운 씨의 시작 방식(4:25~5:5)

그 다음 이야기는 아벨의 죽음으로 끝난 씨를 대신할 새로운 씨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계보가 시작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태어남(4:25-26)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d Adam knew his wife again; and she bare a son, and called his name

Seth: For God, said she, hath appointed me another seed instead of Abel, whom Cain slew. And to Seth, to him also there was born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Enos: then began me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니,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해 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셋에게도 또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하여 하신 많은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로, 아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셋으로 그 계통이 시작되었는데, 그 계통 자체는 그 여자에게 약속된 씨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마칩니다. 그 새 계통의 기본원칙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고,” 또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로마서 10:13)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셋의 계통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태어남만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책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에 이름들을 기록하셨는데, 아담의 모든 자손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아담이 한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태어나지 못하고, 그 초라하고 타락한 아담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한복음 3:7)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부터 잘못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성품으로 죄 안에서 불법으로 형성되었기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책은 아담의 가족의 두드러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의 장례에 관한 슬픈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그는 930세였습니다(5:5). 에덴에서의 사형선고가 그에게 집행되는 데에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셋,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레엘, 야렛, 그리고 에녹은 모두 그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에녹은 306세이었고 거의 두 세기 반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까지 단지 다른 한 사람의 죽음만이 기록되었었는데, 순교자 아벨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그 첫 두 사람이 죽어 천국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현세를 떠난 사람은 에녹이었을 것인데,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지옥을 채우기 전에 천국을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담은 살면서 타락의 무서운 열매를 보았습니다. 경박한 쾌락에 미친 가인 족속의 세계가 완전하게 하나님 없는 문명을 꽃피우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seed)를 보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b. 새로운 씨의 지속 방식(5:6-32)

이 땅에 새로운 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께서는 그 씨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셋에서 노아까지, 타락에서 홍수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어지는 명단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다섯 명의 이름은 모두 족장들의 이름입니다(5:6-20). 첫 번째로, 순교한 아벨을 대신하여 셋(약속된)이 나옵니다. 그는 아벨을 대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노스입니다. 그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의미로, 인류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인

간이란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연장된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반드시 조만간 끝이 납니다. 가이난은 “그들의 대장장이” 혹은 “소유물”이라는 의미로, 셋족속은 가인의 세계에서 커져가는 군사력과 물질만능주의에 저항했습니다. 마할랄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찬양하고 축하하며 모든 규율을 다 내던져버린 그 시대에, 이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자신의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야렛이라는 이름은 “가계”(家系)라는 의미로 많은 세대가 오고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이어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그 스스로 가계의 올바른 혈통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즉 그는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 이르기까지를 연결하는 데 또 하나의 살아있는 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족장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간증에 또 다른 목소리를 더하셨습니다. 그들은 몇 백 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고귀한 자들은 각자가 자신의 간증을 같은 무리의 간증과 함께 엮어 점점 더 큰 합창소리로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누가 이 경건한 사람들의 증거의 협주(協奏)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의 찬송은 시끄러운 음악과 웅성거리는 시장 바닥과 가인 자손들의 소란스런 행진에 다 묻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늘의 음악은 이 땅의 죄에 묻혀버렸습니다.

새롭게 예녹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증인들 사이에 삽입되어 그로부터 예언자들의 계통이 시작되었습니다(5:21-32). 네 명의 중요한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녹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예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짧은 유다서에 간결하게 첨가된 설명과 함께 창세기에서 단 몇 마디로만 나와 있는 그의 삶의 이야기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감에서 절정(絶

頂)을 이루었습니다.²

므두셀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거의 천 년에 달하는 960년을 살았으며,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녹은 므두셀라의 이름 속에 그의 예언 중의 하나를 넣었습니다. “When he dies, it shall come—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올 것이다.” 므두셀라가 장수하는 동안 이 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베드로후서 3:9),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심을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이거나 무관심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라멕은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력한”이라는 의미로 심지어 세상의 쾌락에 미친 가인의 자손들조차도 그를 경외(敬畏)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증거는 “침”, “평안”, “위로”라고 자신의 아들 노아에게 지어준 이름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2. 그의 생애 첫 번째 특징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이다. 그가 살았던 시대 전반에 걸쳐 악으로 향하는 행보는 늘어만 갔다. 실제로 그는 노아가 태어나기 70년이 조금 못 미쳐서 들려 올라갔다. 그의 생애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의 은혜였다. 어떤 곳에서 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다른 자처럼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걷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따랐으나”(에베소서 2:2),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이 변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그의 생애의 세 번째 특징은 소박한 선(善)이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증거를 말

“This same shall comfort us concerning our work and toil of our hands, because of the ground which the LORD hath cursed—바로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 손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혹은 “This shall give us rest from the grievous toil and trouble—이 아들이 극심한 노역과 고난에서 우리를 쉬게 하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그는 세상 도처에서 널리 일어나고 있는 사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멕은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전에 행동하시라고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그는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던 상관없이 이 지구의 사악함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라멕은 하나님께서 조만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목적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의(義)의 설교자”였습니다(베드로후서 2:5). 그는 셋의 경건한 계통 중에서도 처음으로

해준다. “He had this testimony, that he pleased God—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음이라.” 유다서는 사람들을 향한 그의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에녹이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의 생애의 네 번째 특징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영광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육체 그대로 천국의 집으로 데려가셨다. 그는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것의 모형으로, 마침내 악이 절정에 이르러 마침내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들려 올라갔다. 그런 점에서 그는 끔찍한 심판의 날에 보호받아 홍수로 잠겼던 땅에 안전하게 방주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노아와 대조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두 번이나 나온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타락하고 경솔한 세대에 조용히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증거한 것이었다.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된 자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새로운 인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어 “자기 집을 구원하였고”(히브리서 11:7),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올 심판에 대해 그의 세대에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악(惡)과 폭력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간 거룩한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증거의 횃불을 넘겨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증거하시는 분이심을 증명해보였습니다.

3. 무법한 자들(6:1-7)

a. 그들의 엄청난 배교(6:1-3)

성령님께서 그 시대의 태피스트리(tapestry : 실내장식용 주단) 위에 검정 바탕으로 수놓은 악(惡)의 실타래를 뽑아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이 얼마나 오래 전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셋의 계통의 에녹과 가인의 계통의 라멕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노아시대에 점점 더해가는 불법의 이야기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엄청난 배교에 대한 간결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사태는 서서히 끓어터질 지경으로 무르익어갔습니다. 드디어 인간의 타락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이 터졌습니다(6:1-2). “It came to pass, when men began to multiply on the face of the earth, and daughters were born unto them, that 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ves of all which they chose—이런 일들이 일어 났으니, 사람들이 지면에

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그 시대의 첫 번째 뚜렷한 특징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였습니다. 사람들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영적인 부패, 파렴치한 타락, 사회적 갈등, 그리고 강력한 미혹(迷惑)으로 이어졌습니다.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인구가 증가하면서 쉽사리 모든 것이 악화되고 이내 엄청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여성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의 금지된 성관계로 “거인”이라는 잡종 족속이 생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악함이 무서운 가속력을 내려면 어떤 새롭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불법이 인류의 삶의 흐름 속으로 주입(注入)되었음이 성경구절에서도 명백하게 보입니다.³ “It came to pass, when *men* began to multiply...*the sons of God* saw the daughters of *men*—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여기서 “사람들”이란 말은 분명히 전 인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세대와

-
3. 하나님의 자손이 셋 족속이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가인의 족속과 경건한 셋 족속 사이의 구별이 허물어졌다는 견해를 사실로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어떻게 단순히 경건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 사이에서 “거인” 족속이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단순한 타락이 대홍수를 필요로 할 만큼 그런 엄청난 악의 천재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귀신숭배로까지 절정에 이른 배교가 그런 결과에 상응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는 대홍수 사건에 대해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4. “하나님의 아들들”(엘로힘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 네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욥기(1:6; 2:1)에 세 번 나온다.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도 그들 중

는 주의 깊게 구별되고 있습니다.⁴

창세기 6:1-2는 천사들의 군대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더 중대한 비교가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천사들의 한 군대는 이미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반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 타락한 천사들 중의 일부가 더 추하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무시하고 그들은 “strange flesh-낯선 육체”(유다서 7절)를 따랐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따르면, 일부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일부는 더 이상 공중을 자유로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지옥(Hades)보다 더 무서운 구렁인 타르타로스(tartarus)에 유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종 심판을 기다리며 사슬에 묶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탐욕, 부정(不淨) 그리고 난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두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인 사탄에 종속되어서 “정사와 권세”(principalities and powers)로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의 타락한 천사들과는 다릅니다. 이중(二重)으로 타락한 이 천사들은 단순히 인간을 속이고 그들과 짝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

에 있었다. 결국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욥기 38:7에서 다시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음을 읽는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은 명백하게 초인간적인 존재이다. 또 다른 인용은 다니엘서에 나온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만든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네 사람이 걷는 것을 보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그 중의 세 명만이 자신이 회생시키려고 용광로에 넣은 자임을 알았다.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하는데(이 경우는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에 나타나신 것 중의 하나였다), 역시 초인간적인 존재였다.

이때까지 구약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은 천사와 같은 존재나 예수님께만 한정되어 쓰였다. 70인 성경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항상 “하나님의 천사”라고 번역되었다. “엘로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자기들의 체제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기보다

라 실제로 결혼행위를 한 그 자체로써 자신들의 존재법칙을 어겼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서는 모두 이들 타락한 천사들의 죄를 “낮선 육체”를 따라간 죄,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나란히 놓았습니다.⁵

그러므로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홍수 이전 사람들의 엄청난 배교, 즉 인류의 타락을 야기한 배교를 보여줍니다. 소돔에서와 같은 죄는 혼한 것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인간과 외계의 종족간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참으로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는 대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인내하셨으나, 그들의 결정적인 죄들로 인해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6:3). “And the LORD said, My spirit shall not always strive with man, for that he also is flesh: yet his days shall be an hundred and twenty years—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靈)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백이십 년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제 장면은 다시 하늘나라와 종말이 눈앞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

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직접 창조된 이들에게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듯하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천사들과 인간을 구분짓는 특징이다. 구약에서 이와 유사한 “여호와와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었고, 이 단락이 단순히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을 구별 짓기 위한 의도였다면 창세기 6장에서 사용된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창세기 4:26에는 에노스의 날들 이후로 인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특별히 적당한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와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본문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보관해둔 표현을 사용한다.

5. 혼히들 마태복음 22:30의 천사들은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것이 천국에서 그들의 본래 상태이다. 그러나 누가 타락

의 선포로 바꿉니다. 오직 120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행 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세대에게 마지막 간청과 경고를 하기에 꼭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b. 하나님 없는 행위(6:4)

엄청난 배교를 설명하고서, 홍수 이전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그 당시 땅에 살던 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몇 세기를 건너뛰어, 그 후의 일인 네피림의 훼방(毀謗)에 대하여 언급합니다.⁶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불법적인 연합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은 “명성 있는 자”라 불립니다. 아마도 그들이 인간에게 신들의 죄와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거대한 피조물인 고대의 프로메티안들(Promethians)이었을 것입니다.⁷ 이전에는 세상이 그냥 악한 곳이었으나, 이제는 총체적

한 천사들이 육신의 형상을 하여 인간과 동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뛰어난 지혜와 힘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천사들이 사람과 같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음식과 마실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창세기 18:1-8; 19:13). 근대의 신비주의 악의 화신들은 육체를 입고 있다. 사탄이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Earth's Earliest Ages*에서 펴머(G. H. Pember)는 이것에 대한 예를 든다. 마술에 관한 책들은 몽마(incubi : 잠자는 여자를 범한다는 상상 속의 악마)와 마녀(succubi : 잠자는 남자와 정을 통한다는 악령)를 언급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영혼들을 언급한다. 근대에 부활한 심령술, 마법, 신비주의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세상에 대해 앞으로 올 짐승(Beast)을 기대하면서 유사한 선상의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 같은 저자의 *Only God Can Prophecy* (Wheaton: Shaw publications, 1975)에서 특히 7장 “Invasion From the Pit”을 참조하라.

인 부패와 사악함이 엄청난 몫을 담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c. 그들의 더해가는 사회적 혼란(6:5-7)

다음 이야기는 홍수 이전 사람들의 더해가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점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분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6:5). “And GO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창궐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의 모든 상상이 지속적으로 사악함뿐인 것을 보시니라.” “상상”이라는 단어는 도기(陶器)와 관련된 히브리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이 빚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사악한 철학들을 빚어내고, 음란한 가공물들을 만들어냈으며, 추악한 주장들을

-
6. 몇 세기가 지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출정했을 때, 그들은 거인 부족인 아나킴(아낙의 자손들)과 맞서야 했다. 틀림없이 홍수를 초래했던 같은 형태의 불법들이 그 당시 가나안에 더욱 급증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손자 가나안에게 떨어진 노아의 저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두 번째 발생은 모세에게 알려졌을 것이다(신명기 2:10~3:11).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 문제들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었다.
 7.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의 사랑에 대한 전설은 틀림없이 그 뿌리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헤시오도스(Hesiod)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지상으로 불을 가져옴으로써 신들의 분노를 살 각오를 했던 용감한 개척자인 프로메테우스(Prometheus)에 대해 말한다. 그는 상자를 열어 인류에게 재앙이 될 모든 종류의 고통들이 튀어나오게 한 판도라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리스 신화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재조명하고, 기이하고 두려우며 고통을 실은 선물들인 인간에게 전달된 “영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설들

열심히 받아들이고, 각종 타락한 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사회를 쇠물처럼 자신의 틀에 부어 넣어 주조(鑄造)했습니다.

노아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명백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새로운 프로메디안, 즉 입자 가속기들(atom-smashers), 건강 관리자, 음식 연구가, 컴퓨터 해커들, 독심술가들 그리고 우리의 개척자들이 있습니다.⁸ 우리에게는 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든 발견들을 개발시키기로 작정한 현대판 에피메디안들(Epimetheans)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이고 사악한 것들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교묘하게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가려고 힘쓰면서, 포르노와 동성애 그리고 음란함을 전파하는 데에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부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망이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6:6). “And it repented the LOR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으니,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다고 기술함으로써 인간적인 감정(anthropopatheia)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은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

로 가득하다. 아마도 이 영웅들이 창세기 6장의 “이름난 자들”일 수 있다. 그리스 신화는 전해지면서 왜곡된 초기의 진실들의 잔재가 구체화된 것이다.

8. Robert S. de Ropp이 쓴 *The New Prometheans* (New York: Delacorte, 1972)을 참조하라.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거인 신들의 종족인 티탄족(Titan)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간들에게 주었다. 그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Epimetheus)는 판도라(쥬피터가 만든 여자)와 그 여자의 불길한 상자까지도 받아들였다.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인류를 괴롭게 하는 무수한 해악들이 퍼지게 되었다.

말은 사람들의 반역과 사악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비탄해 하심을 드러내는 최고조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친절은 조롱받았고, 그분의 인내는 악용되고, 그분이 내미신 구원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6:7). “And the LORD said, I will destroy man...it repenteth me that I have made them—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멸하리니...내가 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 나를 후회하게 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만드셨기에 그 생명을 파괴하실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한 달, 한 달이 지나도,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도, 사태는 변치 않고 계속되어 사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분노 사이의 결정적인 경계선은 영원히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주의 기계장치는 주어진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작동하기 시작했고, 아주 깊은 곳의 샘들은 터지고 하늘의 창들은 깨뜨려져 열릴 것이었습니다. 대홍수가 오게 되었습니다.

B. 그러한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6:8-22)

1. 한 사람(6:8-13)

하나님의 원칙은 시대가 타락해 갈수록,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그분께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세상이 붕괴되고 있을 때, 그 위인은 조각된 화강암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외로운 석상(石像)처럼, 그의 시대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활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6:8-10). 하나님께서는 세대를 이어가시면서 하늘로부터 특별한 힘이 부여된 독특하고 특별하게 선택된 그분의 그릇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세 가지 면에서 그 자체를 입증하면서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는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주께서 보시는 데서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은혜는 공(功)없이 받는 특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데에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들로 이어진 계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자라는 촌수(寸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대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발견했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진리에 가까이 있었고(그 당시에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가 아직 살아있었고 노아가 팔십이 넘을 때까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길러졌으나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신실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a just man and perfect in his generations—의로운 사람이요, 그의 세대에서 완전한 자였고” 또한 “walked with God—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노아가 “의롭다고”(즉 의로워졌다고) 선언된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고 의로워진 영혼만 소유할 수 있는 확고한 지위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칭의(稱義)에 따라 그는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완전했습니다”(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in his generations—그의 세대에서” 완전했다고 했는데, 그 말은 틀림없이 노아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세대”라는 말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위한 새로운 무게 중심을 갖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선회하듯이, 노아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엄청난 힘이 없이는 자연적 경향, 즉 그의 삶의 통상적인 동인(動因)은 그가 살고 있는 사악한 세대의 어둠으로 그를 끌어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 족속의 문명은 그를 매혹시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매력을 찾았고, 그 후로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언급된 유일한 다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아가 어린 소년으로서 거룩했던 에녹과 그의 하나님과 놀라운 동행을 하면서 드디어는 영광의 땅에 도달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던 모습을 그려보는 데에는 큰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노아는 다산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거명(擧名)됩니다. 세 아들로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세 아들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활력을 주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주셨습니다(6:11-13).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6:11-12). “The earth also was corrupt before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And God looked up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his way upon the earth—땅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으니, 땅은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의 길을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나 거리낌도 없고 극악하며 공공연하게 방탕하고 무법한 짓을 행하는 것뿐이었습

니다. 악과 폭력은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소름끼치는 죄들이 과시(誇示)되고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종류의 일들을 현대의 세계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도덕기준과 종교적 제약(制約)들은 비웃음거리로 내버려지고 말았습니다. 대도시의 한 시장은 어떠한 항의조차 거의 받지 않고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 변태성욕자들, 그리고 가장 비열한 부도덕한 행태를 명예롭게 한다고 공식적으로 “자랑스러운 게이 주간”을 선언했습니다. 책방들은 가장 노골적인 종류의 외설 문학 작품들로 그들의 서가를 진열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들은 가장 저속(低俗)하고 혐오스러운 포르노를 “성인”(成人) 대상 즐길 거리로 상영하겠다고 경쟁입니다. 성적 변태자들이 정부고위층으로 승진될 뿐만 아니라, 또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 관료가 “온전히 승화된 동성애는 그 가치가 금값”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부패가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도처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대홍수를 야기했던 죄들은 이 세상에 다시 번성하며 빠르게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드러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6:13). “And God said unto Noah,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and,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종말(終末). 이 말은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語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노아에게 드러내시어 피할 수 있는 길을 택하려고 하는 자들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 계획(6:14-22)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예시하고 있었습니다(6:14-16). 노아는 방주를 지어 그 저주받은 세대에게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방주는 관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했고, 고대 사람들이 관을 만들 때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나무(cypress)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였습니다.⁹ 다 완성되었을 때,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야 했습니다(역청에 쓰인 말은 구약성경에서 속죄(贖罪)로 쓰인 말과 같습니다). 방주는 한 개의 창문과 한 개의 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창문을 관리해야 했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책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이전의 위대한 목수인 노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잃어진 세상을 위해서 심판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구원의 차(車)를 만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사렛의 목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심판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 의(義)를 주셨고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속죄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피난(避難)한 모든 사람들은 결코 폭풍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과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사이로 오십니다.

노아의 날에서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달려 있었습니다(6:17-22). “And, behold, I, even I, do bring a flood of waters upon the earth…but with thee will I establish my

9.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대성당의 문은 전나무(gopher wood)로 만들어졌다. 그 문은 부식의 흔적도 없이 콘스탄틴(Constantine) 시대부터 유진 4세(Eugene IV)에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다.

covenant; and thou shalt come into the ark—그리고,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키리니…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대의 세계를 위한 구원의 계획은 오늘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주이시고, 구원은 그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주는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를 공급했지만, 또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탱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었습니다(6:21). 모든 필요가 예견되었고 또한 채워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족시키십니다.

II. 심판으로 마침내 버려진 세상(7:1-24)

노아의 방주는 결코 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방주는 살아있는 수많은 피조물을 보호할 피난처로서의 목적만을 위해 설계된 주위를 둘러막은 거대한 케였습니다.¹⁰ 어떤 선박도 그런 폭풍에 견디어 내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치고 눈사태와 같은 물이 쏟아 내리고, 바다 깊은 곳이 갈라지고 터져 파멸의 소용돌이가 분출했습니다. 굶주린 물결은 죄인들의 숨은 곳을 찾아 산꼭대기까지 훑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안전했습니다.

A. 믿는 자들의 구원(7:1-9)

방주는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나무는 베어졌고 마지막 목재도

제 위치에 튼튼하게 놓였고, 마지막 못이 박혔고, 마지막 남은 한 통의 역청도 다 칠해졌습니다. 완전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도 이제 모두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만이 한 사람을 방주 안에 들여 넣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데에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에게 완전한 의뢰를 요구하시는 것(full commitment demanded of Noah)을 봅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Noah, Come thou and all thy house into the ark; for thee have I seen righteous before me in this generation—그리고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는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운 것을 너에게서 보았기 때문이니라”(7:1).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그분과 함께 방주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음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과 폭풍 사이에는 심판을 건디는 방주의 목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 안에서 안전을 찾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 폭풍을 건디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값으로 자신들을 위해 제공된 구원에 전적으

10. 방주는 가로 1350미터, 세로 450미터, 높이 135미터의 크기였다. 84,900 평방미터보다 더 큰 용적으로 근대의 항해선박에 견줄 수 있다. 1609년에 화란의 매노과 교인인 피터 안센은 홀란드의 호른(Hoorn)에서 방주의 3분의 1로 축소된 크기의 선박을 만들었다. 그 배는 물에서 무겁게 움직였으나 같은 용적의 공간의 선박보다 3분의 1의 짐을 더 실을 수 있었다. Eric Sauer가 쓴 *The Dawn of world Redemption* (London: Paternoster, 1951, p. 67)을 참조하라.

로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뢰가 없다면 구원은 헛되이 주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복음에로의 초대는 “Come—오라!”는 영광스런 말씀으로 노아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후에 성경을 영원히 덮으실 때까지, 성경에서 반복해서 울리며, 그분은 되풀이해서 타진하십니다. 오라! 노아는 “내 모습 그대로 왔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전적으로 의뢰해야만 했던 노아에게 이제는 마지막 위임이 주어졌습니다(7:2-4). 그는 “정결한” 짐승을 모두 종류대로 일곱 마리씩 방주 안으로 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6:19). 그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정결한 짐승들은 대홍수 이후에 인간이 그 때로부터 고기를 먹게 된다는 새로운 법이 예기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각 일곱 중의 하나는 분명히 희생 제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명명되어지기 위해 아담 앞으로 정렬되어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짐승들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인류의 두 번째 수장 앞에 나와 섰습니다.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로 노아에게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뱀의 쉼 곳이 되기도 하고, 사자의 굴도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자들”은 변화되었고(고린도후서 5:17) 마찬가지로 이 짐승들의 본성도 방주 안에 있는 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의 존재는 노아와의 언약(창세기 9:10)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짐승들도 구속하신다(로마서 8:19-22)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암시합니다. 방주는 심판의 폭풍을 무사히 지나 새 땅으로 나아가는 새 창조의 축소된 모형이었습니다.

다음 기록은 노아가 보여준 신실한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7:5-9). “And Noah did according unto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그래서 노아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들이 다른 세계를 향해서 끝없이 줄을 지어 좁은 트랩으로 방주로 올라가는 그 땅의 짐승들을 볼 때에 얼마나 증거가 되었겠습니까. 방주는 곧 항해를 시작해야 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자들만이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완고하고 강박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판으로 포기하시려는 세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하시는 원칙이 있는데, 신실한 설교와 예언의 실현입니다. 즉 설교와 표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머나먼 세계에서 노아는 “의(義)의 설교자”였으나, 역사가 그토록 자주 증명하듯이 그의 증거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루어진 예언도 또한 있었습니다. 므두셀라는 죽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의 예언이었습니다. “When he dies, it shall come—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일어나리라.” 그 세대에게 므두셀라의 죽음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피난처를 찾기 위하여 노아의 문 쪽으로 길을 내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불안한 광경이었겠습니까. 틀림없이 이성론자(理性論者)자들은 거기에 대해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표적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그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가 들어갔고,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으며, 그 남은 인류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품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고 값비싼 구원의 역사(役事)가 모두 헛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의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어리석게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였고, 인류를 위해 제공된 구원에 온전히 응답했습니다.

B.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7:10-24)

1. 멸망의 시기(7:10-16)

아마도 성경의 어떠한 사건도 대홍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날짜가 자세하게 기록된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연월일과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모두 열여덟 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마치 노아가 경험했던 불후의 대재앙을 사건마다 날마다 달마다 적으며 날날이 일기에 기록하듯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더 지연된 것에 주목합니다(7:10).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고, 일주일 동안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경건치 않은 자들은 틀림없이 매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인내로 망설이고 계심마저도 허비하고 있음을, 즉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기다리심과 친절하심을 악용하고 있음을 조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주어진 은혜의 일주일은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진노를 자신들 위에 쌓는 데에 그 은혜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로마서 2:4-5)

심판이 마침내 시작됨을 또한 주목합니다(7:11-16). 확실한 날짜가 주어졌습니다. “the six hundredth year of Noah’s life, in the second month, the seventeenth day of the month—노아의 생에서 육백 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열 이레”라고 날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날 매우 깊은 곳의 모든 샘들이 터져 나왔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And the rain was up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그리고 비가 땅에 사십 일 밤낮으로 내렸더라.” 그 날은 지나간 어느 날처럼 햇빛이 나는 밝은 날로 동텃겠습니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천둥소리와 갑자기 무섭게 내려 퍼붓는 비, 그 즐기치게 내

리는 비로 강물이 독을 넘고 바다로부터 밀려드는 성난 밀물에 그들은 잠자리에서 깨기 시작했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단지 약한 이슬비였다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로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불가사의의 시간이 타종(打鐘)되었고, 위와 아래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결한 사람들로 인하여 악해진 이 지구를 깨끗케 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2. 멸망의 완전함(7:17-24)

처음에 물이 불어나 방주가 물 위로 떠올랐고, 그러고는 물이 흘러 넘쳐 땅 위로 크게 불어나고 마침내는 엄청나게 불어나서 “all the high hills, that were under the whole heaven, were covered—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학자들은 대홍수의 전 세계적 보편성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술되는 용어는 지구의 완전한 침수의 개념을 확실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볼 수 있는 한 이 세상 전체가 심판의 물 밑으로 잠겼습니다. 우리는 대홍수 이전의 인구가 지구에 어느 정도로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홍수는 전 세계적이어야 했습니다.¹¹

대홍수의 물은 도피하는 인류를 급히 따라가서 보다 더 높은 지대로 사람들을 몰아갔고 마침내 산 정상(頂上)도 약 7.5미터의 물 아래로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지구는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여기 저기로 흔들리는 방주에 살아남은 여덟 사람만을 태운 채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물에 덮여 우주공간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And the waters prevailed upon the earth an hundred and fifty

11. 무엇 때문에 대홍수가 일어났는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 유명한 미국과학진흥협회회원(과학자에게 수여될 수 있는 최고의

days—그리고 물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7:24). 만 오 개월 동안 물은 바다를 덮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구원해 주신 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III. 심판으로 인해 새롭게 회복된 세상(8:1~9:29)

아라랏 산은 4876.2미터로 하늘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산은 가차 없이 덩벼오는 물결에 쫓겨 공포에 질린 채 숨차게 가파른 곳으로 서둘러 도피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은신처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방주가 멈춘 그 거대한 산 정상(頂上)은 지브랄타르와 카스피안 해의 중간지점과 희망봉(the Cape of Good Hope)과 베링 해협(베링 해협)의 중간지점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구에 다시 사람을 살게 하여 인류를 확산시킬 새로운 중심지였습니다.

폭풍이 약화되면서 바다 깊은 곳에서 치솟아 오르던 용솟음도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되자, 그 방주는 아라랏 산 위에 조용하게

명에 중의 하나)으로 적어도 5개의 다른 세계 인명사전(Who's Who publications)에 그 이름이 등재된 Dr. C. Theodore Schwarze에 의해 발전된 흥미로운 이론들을 요약한다. Dr. Schwarze는 30년 동안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헌신했다.

Dr. Schwarze에 의하면 이 지구는 한때 얼음덮개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그것이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의견과 믿을 만한 논거를 제시한다. 창세기 첫 몇 장에 있는 사건들을 통한 암시로 그의 이론을 신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대홍수 이전의 놀랄 만한 수명이나 왜 대홍수 이전에는 땅에 비 없이 안개에 의하여 물이 공급되었는지가 설명될 수 있다. 또한 대홍수 이후에는 비가 자주 오는 현상이 되었기에 왜 무지개가 노아에게 증표가 될 수 있었는지도 설명된다. Dr. Schwarze는 폭발

앞뒤로 흔들리며 떠돌았습니다. 온 사방(四方)은 남(南)에서 북(北)으로, 동(東)에서 서(西)로, 눈길이 닿는 한, 물에 잠긴 쓰레기 더미로 덮인 채 죽은 듯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뒤는 물에 침수된 세상이, 그리고 앞은 깨끗하게 씻긴 세상이, 그리고 눈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은 깊은 수면의 요람 속에 흔들리는 외로운 방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홍수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 노아의 기다림(8:1-5)

방주 안에 갇혀 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까지(8:1-2) 기다리며 참고 견디었습니다. “And God remembered Noah—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신인동감설(anthropopatheia)로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 어린 돌보심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표

로 인해 덮개가 찢어졌기에 문자 그대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얼음과 물이 지구를 씻어 내면서 대홍수 이전의 지구문명의 모든 증거를 바다의 깊은 곳으로 잠게 했다. 그 재앙에 따른 혹독한 추위는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모든 짐승들이 갑작스럽게 꽁꽁 얼어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 이론은 또한 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삶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화들을 설명할 수 있다.

Theodore Schwarze가 쓴 *The Marvel of Earth's Canopies* (원본에서 요약한 것이다.) (Westchester, Ill.: Good News, 1957)을 참고하라.

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동정 어린 관심이 그 방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쳤습니다. 방주 주변에 고요함이 내려앉고 물결이 그 주위를 끊임없이 찰싹거릴 때에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주 한 주가 지나며, 한 달 한 달이 지나면서 얼마나 길고 지루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셨습니까?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대홍수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8:3). 150일 동안 심판의 물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만 오 개월이 걸렸습니다. 물이 지면(地面)을 덮기까지는 단 40일이 걸렸지만, 노아와 그에게 딸린 것들은 온전히 일 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이 허락되기 전에 땅이 그 구속받은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고 그분의 진노의 흔적이 다 지워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는 방주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8:4-5). 마침내 그 거대한 배가 굳은 지면에 닿을 정확한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in the seventh month, on the seventeenth day of the month—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 중요한 날을 그의 일기에 적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방주가 십칠일째에 “rested—멈추었다”고 기록하십니다. 바로 그 같은 달과 같은 날에 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확실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¹² 심판의 물들을 통과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의 안식일이 아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B. 노아의 시험(8:6-14)

노아는 땅에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어 가는지 세 번 살펴보았습

니다. 먼저 방주가 멈춘 후 다시 40일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서, 그는 창문을 열고 한 마리의 까마귀와 한 마리의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인 까마귀는 만족스러운 만큼 많은 먹이를 발견했고 방주를 떠나 사는 데 매우 만족했습니다. 다른 특성을 지닌 비둘기는 아직 땅에서 지속적으로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 후에 그는 다시 시도했고, 그 때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습니다. 방주에 있었던 여덟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몹시 기뻐하며 그들은 분명히 그 살아있는 증표를 서로 건넬 것입니다. 일주일을 더 인내로 기다린 노아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 때에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에 연관되어 안식일들이 거듭 언급된 것은 노아가 일시적이거나 임의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깊은 종교적인 경험의 영에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영적 훈련은 새 땅 위에서 이제 이루어질 새 시작을 확실하게 잘 정착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모든 사건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마침내 노아는 방주의 “덮개”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또 다시 정확한 날짜가 주어집니다. 그의 육백한 번째 해의 첫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8:13). 이제 눈길이 닿는 데까지 멀리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56일 동안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즉 여덟 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최대환을 이루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갇혀 있음이 육신으로는 그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긴

12. 출애굽기 12:2에는 일곱째 달이 첫째 달로 바뀌었다(유대력으로는 아빍 또는 니산이다). 그들은 그달 10일에 유월절 양을 준비했고, 14일째에 그 양을 죽였다. 주 예수께서는 17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

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오랜 시간도, 너무 긴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C. 노아의 신뢰(8:15-9:17)

1.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8:15-19)

드디어 방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날이 왔습니다. 그 새로운 경험은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nd God spake unto Noah, saying: Go forth of the ark, thou, and thy wife, and thy sons, and thy sons’ wives with thee—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8:15-16).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방주에 들어가셨기에 맨 마지막으로 내리셨습니다. 자신의 7세기를 맞는 첫 해에 노아는 일을 다 마치고 안식일의 안식 가운데 새 땅으로 나왔습니다. 짐승들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옛적의 명령에 따라 그 짐승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새와 짐승 중에서 하나씩을 취하여 성대한 번제에 바침으로써 그 새 땅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헌물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헌물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려는 충만한 마음이 넘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은 그분의 아들의 죽음의 가장 높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재산에 비해서 더 많은 헌물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는 결코 흔치 않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노아와의 주님의 언약의 기반이 되었

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노아의 첫 행동을 보았다면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무슨 낭비란 말인가! 이 무슨 잔학한 행위란 말인가! 새 땅에서 삶을 이렇게 잔인하게 시작하다니! 인간의 마음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8:21) 노아의 헌신과 믿음의 행위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2. 노아와의 주님의 언약(8:20~9:17)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전에도 그러셨듯이, 노아의 번제 헌물에 대해 반응하시면서 은밀히 말씀하셨습니다(8:20-22). 노아의 제물의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분은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not again curse the ground any more for man’s sake; for the imagination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neither will I again smite any more every thing living, as I have done—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치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제부터는 계절이 자연의 이치대로 오고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워진 땅에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의 조건들을 노아 앞에 내놓으시면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9:1-17). 첫째로 그 언약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9:1-7). 새날이 밝아 올랐습니다. 대홍수까지 이르게 한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는 인간들이 죄를 짓게끔 방치된 방종이었습니다. 법이 없었고, 질서도, 범죄에 대한 인간의 구속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바뀌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채식으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것 또한 바뀌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지구를 점유하여 살기 위해서는 쌍방이 수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와의 언약에서 식생활이나 규제 조항이 폐기되지 않은 단순한 이유는 그들을 억제해야 할 여건들이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Every moving thing that liveth shall be meat for you—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의 몸은 감옥이 아니라 귀신들의 부정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고안된 요새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몸은 귀신들의 더 대담하고 난폭한 공격들을 효율적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울타리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고, 그때부터는 악한 대적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동의 없이 난생처음 죄면에 걸리는 것은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아마도 특정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어떤 특별한 취약점이 있다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굴복하게 되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병든 사람에게 새로운 힘의 작용이 가해질 때마다 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어울릴 경우에, 인내하지 않고는 영매가 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관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귀신들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¹³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신들의 세력에 대항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수단 중의 하나가 육식(肉食)이라고 믿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홍수를 촉발시킨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귀신의 자손을 갖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의 교접(交接)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혁신적인 성격을 띤 음식규정의 변경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펨버(G. H. Pember)는 “육식의 허락이 천사의 과계(破戒)후에 즉시 주어졌더라면, 사람들로 초자연적인 존재와 의식적이고 지적인 교제관계를 갖는 능력을 한층 덜 갖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활함에 한층 덜 노출되었으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만일 그랬더라면 귀신들의 편에서는 그 욕망을 포기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된다”라고 믿었습니다.¹⁴ 후일 배교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ome sha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seduc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vils… forbidding to marry, and commanding to abstain from meats, which God hath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마음을 두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창조하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1-3). 채식주의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그분 스스

13. G. H. Pember, *Earth's Earliest Ages and Their Connection With Modern Spiritualism and Theosophy*, 14th Ed. (London: Alfred Holness, n.d.), p. 256.

14. *Ibid.*, p. 372. Pember는 그의 시대에조차 행하여졌던 귀신 숭배의 진보된 형태의 실례를 제시한다. 그는 최소한 한 명의 여성이 어떤 영에 의해 “뚜렷이 감지된 포옹”(palpably embraced)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그 여인은 그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도록 요구되었다(pp. 389-90). 그는 영에 형체가 부여되어 그들이 육체적으로 안을 수 있는 몇몇 예들을 제시한다(pp. 327-31). 그는 강신술에 대해 철저히 깨우치게 하는 항목을 다음과

로 부활한 몸으로 고기를 드셨습니다.(누가복음 24:41-43)

노아에게 주신 언약의 일반적인 규정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처벌 역시 다루었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하라(9:6)는 명령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 법 또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4에 의하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국가의 권리는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신성함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이유만으로 살인자는 사회로부터 처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일반적인 규정과 함께 중요한 규정, 즉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계적인 홍수로써 이 세상을 침수시키지 않겠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9:8-17). 그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무지개를 보게 하셨습니다.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I bring a cloud over the earth, that the bow shall be seen in the cloud: and I will remember my covenant...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upon the earth—내가 구름을 땅으로 가져올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생물들 사이의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라.” 그 무지개는 얼마나 아름다운 상징입니까. 그 아치(arch)는 하늘을 향해 활처럼 구부러져 있으나 화살이 없는 활입니다. 그 화살은 이미 쏘기 때문임

같은 질문으로 결론짓는다. “교황 이노센트 8세(Pope Innocent the Eighth)가 몽마와 마녀와의 교접을 반대하는 교령을 호통쳤을 때에 진리의 진정한 통찰력을 가졌던 것이었겠는가!” (p. 390). 이 동일한 주제의 현대의 세속적인 처리방식에 대해서는 R. H. Robbins가 쓴 *The Encyclopedia of Witchcraft and Demonology* (New York: Crown, 1959) “몽마”와 “마녀” 항목을 참조하라.

니다.

D. 노아의 수고(9:18-23)

여덟 사람이 대홍수 이전의 세계의 과멸로부터 구원되었습니다. 그 여덟 사람은 새로운 언약의 보호 아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의 노아가 언급됩니다(9:18-19).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인류의 새로운 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인류의 두 번째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이 다시 거명(擧名)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거의 항상 셈, 함 그리고 야벳의 순서로 불렸습니다. 실제로는 야벳이 첫째이고(10:21) 셈이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셈은 그 두 형제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셈의 계열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막내가 우선권을 떠맡은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흥미롭습니다. 인류의 세 인종 각각의 조상의 이름은 그가 대표하는 인종이 쓰는 언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셈”은 히브리어로 “영광” 또는 “명성” 또는 “그 이름”을 의미합니다. “함”은 애굽인이 그들의 나라를 부를 때에 쓰는 말인 “켄”(Kem)에 해당하는 말로 그 의미는 “검은”이며, 야벳은 아리안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으뜸 인종”이라는 의미입니다.¹⁵

함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그가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것들에 대해 대비하게 합니다. 함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 저주받은 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이 함의 막내아들이라고 생각되고(10:6),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은 대홍수가 있는 지 몇 년

15. Marcus Dods, *The Book of Genesis* (Edinburgh: T. & T. Clark, n.d.), p. 43.

이 지난 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노아는 농장으로 묘사됩니다(9:20). 그는 농부(그 말은 “땅의 사람”이란 의미로,¹⁶ 즉 스스로 경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였고, 특히 포도밭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Armenia)는 아직도 포도의 발상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는 실패자로 언급됩니다(9:21-23).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부끄러운 방식으로 그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었고,¹⁷ 함에게는 큰 재밋거리가 되었습니다.

함의 불성실한 행위의 전모(全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위를 갖추지 못한 채 그의 아버지가 부끄럽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소문으로 퍼뜨렸습니다. 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의 머리에 아버지의 침묵의 불만이 떨어졌고 그의 아들의 머리에 확실한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셈과 야벳이 그들의 아버지의 수치스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돌아서서 들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애쓰면서 아버지를 덮어주었습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예언 중의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16. “전쟁의 사람”(군인), 여호수아 5:4; “피 흘린 사람”(살인자), 사무엘하 16:7; “가축의 사람”(목자), 창세기 46:32; “언어의 사람”(달변가). 출애굽기 4:10과 비교하라.

17. 노아를 변호함에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새로운 기후 조건으로 인해 전에 널리 퍼져 있던 포도들과는 아마도 달라졌을, 발효된 포도 주스의 효력을 알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적절한 주장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언급된 포도주는 나쁘게 평해져 있다. 그것은 술 취함과 수치를 야기했고, 함(Ham)의 혼에 밀려오는 악한 욕망을 표면화시켰다.

E. 노아의 증거(9:24-29)

노아는 술 취해서 자다가 깨어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언적 통찰력으로 즉시 그의 아들들의 행위의 먼 장래에 미치는 의미를 보았고 예언의 영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그의 입술과 그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9:25-27). “And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unto his brethren. And he said, Blessed be the LORD God of Shem; and Canaan shall be his servant. God shall enlarge Japheth, and he shall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Canaan shall be his servant— 그가 이르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하고, 그가 말하기를, 셈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요,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왜 가나안이 특별히 저주받도록 선택되었습니까? 노아는 함의 죄는 완전히 침묵한 채 넘어갔습니다. 그 위대한 예언을 선포함에서 그는 함의 계열의 민족들에 관해서는 전혀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¹⁸ 그는 또한 함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하고 그 막내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를 노골적으로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나 비난에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선지자의 긴 전망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은 함은(9:1) 이제 노아에 의해 저주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성취에 따라(출애굽기 20:5) 아들이 저주받음에서 아버지가 벌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기록되지 않은 어떤 태도로 노아의 수치에 대한 그의 아버지의 악한 즐거움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영적으로 감동된 예언자의 선견지명으로 함의 조악하고 파렴치함이 미래에 가나안 족속의 타락과 상스러움으로 완전하게 드

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함 족속은 단지 노아에 의해서 무시되었고, 그래서 축복이 없었습니다. 니므롯과 애굽의 문명 아래에서 뚜렷하게 초기의 찬란한 번영을 꽃핀 후에, 함족은 대부분의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위대함에서 모자랐습니다. 그 검은 백성은 특히 압제와 착취의 멍에 아래에서 신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셈 족속은 노아에 의해서 축복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절정은 여호와께서 셈의 하나님에 되시리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셈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啓示)하시고 구속(救贖)하시는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약속은 셈의 자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벳은 제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특별한 경로로 셈의 영적인 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벳은 그리스와 로마와 페르시아와 인도-튜턴 인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아리안 인종은 야벳이 그 기원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간 사람들의 운명을 그들의 손 안에 쥐고 왔습니다.

그러나 수 세기 동안 고대의 의심 많은 자들은 그 예언으로 인해서 틀림없이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함에 따라 그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듯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지배할 권한을 쥐고 있는 백성은 야벳의 백성이 아니라 함과 셈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제국 건설자가 된 것은 함 계열의 니므롯이었습니다. 번성했던 것은 애굽과 바빌론 그리고 아시리아였습니다. 옛 로마의 경쟁자였던 카르타고까지도 야벳 족속이 아니고 함 족속이었습니다. 카르타고는 두로의 식민지였고, 그 페니키아인들은

18.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흑인들을 저주하셨다는 생각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분은 함(Ham)이 아닌 가나안을 저주하셨다.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 동안 야벳의 백성들은 뒷전에 머물러 있었으나, 드디어 그들의 시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치하에서 야벳 종족은 전쟁에 승리한 힘으로 활동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셈족의 바빌론은 쓰러지고, 야벳은 동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셈이나 함 족속도 야벳의 세계패권을 깨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¹⁹ “That night was Belshazzar the king of the Chaldeans slain—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니라”(다니엘 5:30)는 날짜도장(日附印)을 찍는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함과 셈의 세계통치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고, 야벳이 그 자신의 세계에 등장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의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 참조. Erich Sauer, *The Dawn of World Redemption* (London: Paternoster 1951), p. 77.

제4장
연합
(10:1~11:32)

I. 하나님의 통치하심(10:1~11:9)

- A. 인류의 분산이 완료됨(10:1-32)
 - 1. 아벳의 족속들(10:1-5)
 - 2. 함 족속들(10:6-20)
 - 3. 셈의 족속들(10:21-32)
- B. 인류가 흩어지게 된 원인(11:1-9)
 - 1. 그들의 재료(11:1-3)
 - 2. 그들의 방법(11:4a)
 - 3. 그들의 동기(11:4b)
 - 4. 그들의 실수(11:5-9)

II. 하나님의 은혜(11:10-32)

- A. 아브라함의 계보(11:10-26)
- B. 아브라함의 족보(11:27-32)

제4장 연합

I. 하나님의 통치하심(10:1~11:9)

바벨탑 이야기는 연대기적으로 창세기 10장에서 설명된 족속들의 족보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 족보는 인류가 다양한 족속으로 흩어진 결과가 마무리되어 우리 앞에 제공된 것이고, 바벨탑 이야기는 족속이 흩어지게 된 원인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일람표는 인종의 지리적인 분포를 도표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가장 오래된 시도입니다. 그것은 인종학적으로도 믿을 만합니다. 인류를 기본이 되는 세 종족으로 나누는데, 셈족, 아리안족, 그리고 우랄알타이어족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유럽의 주요 종족과 거대한 아시아의 아리안족을 받아들여 인도 유럽족속을 야벳의 후손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셈족에 아시리아인과 히브리인 그리고 욥단족의 아랍인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함 족속에 애굽인, 이디오피아인, 남부 아랍인, 초기의 바빌로니아인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족들의 일람표는 야벳의 종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야벳이 노아의 아들 중 장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정학적으로도 언제나 성경에 등장하는 지역들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인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이동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람표는 애굽인, 가나안인, 아라비아인,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데에 그 배후 인물인 니므롯의 업적과 함께 함의 민족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셈의 백성들을 노아의 다른 후손들로부터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고, 또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

장에서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으로 야벳의 족속을 북쪽으로 이동시키셨고, 그때부터 그들은 서편으로는 유럽, 동편으로는 인도까지 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의 민족들은 남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의 가장 중심부분을 주심으로써 후일에 그 모두를 더 없이 높여주시려고 중심지역을 셈에게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세 대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지역의 공통 지렛대 역할의 지점(支點)에 귀착(歸着)하게 됩니다.

A. 인류의 분산이 완료됨(10:1-32)

1. 야벳의 족속들(10:1-5)

인류를 통치하심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지게 조처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신 것은 민족들을 분리시켜 이 지구 땅 위에서 신속히 분산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족들의 일람표는 야벳 종족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14야벳 종족이 계보에 올랐고, 함의 30종족과 셈의 26종족을 모두 합치면 70종족이 됩니다.

먼저 고멜(Gomer)로부터 시작해서 야벳 족속을 세운 사람들이 명단에 오릅니다. 고멜의 후손들은 종종 키메르족(the Cimmerians)으로 확인되며, 그들은 카스피해와 흑해의 해안지방에 처음 정착해서 훗날 멀리 대서양까지 유럽으로 퍼져서, 독일과 웨일즈 지방까지 그들이 존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¹ 다음에는 마곡(Magog)이 나옵니다. 그의 족속은 “곡”(“파라오”나 “가이사”에 비교되는)이라는 왕의 호칭을 가진 군주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납고 호전적인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스키타이족으로 확인되고 그들의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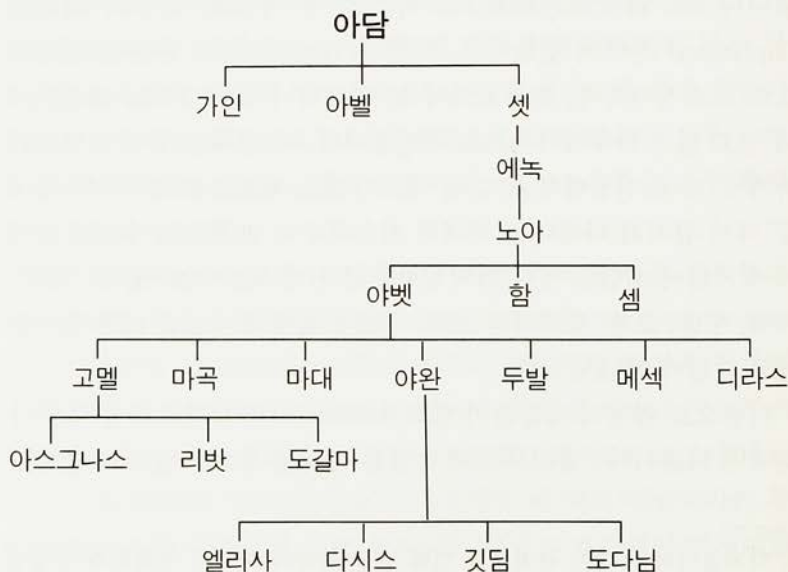
코카서스로 추정됩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이라고 봅니다. 마대(Madai)는 세 번째 시조로 명단에 오릅니다. 그의 후손들은 메대인(Medes)들로 생각되고, 그들의 지역은 카스피해의 남서 해안 지역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야완(Javan)은 그리스 백성의 시조가 됩니다. 두발(Tubal)과 메섹(Meschech)은 아르메니아 북부를 그들의 정착지로 삼았고, 이들 역시 오늘날의 러시아인으로 추정됩니다. 디라스(Tiras)는 트라키아 민족(the Thracians)의 조상이 되었거나 다우루스(the Taurus) 주변에 정착한 어떤 족속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시조(始祖)의 이름이 언급된 후에, 이야기는 고멜의 아들들로 시작하는 기초가 되는 일곱 종족(families)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아스그나스(Ashkenaz)입니다. 유대인 주석가들은 그의 후손들이 독일을 세운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과 중앙유럽 출신 유대인들은 아시케나지(Ashkenazis)로 불립니다. 또 리밧(Riphath)의 이름을 딴 카스피 북부의 리파안(Riphaean) 산맥이 있습니다. 도갈마(Togarmah)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프리지아족과, 카파도키아족, 아르마니아족 그리고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타우리아족으로 확인됩니다. 이 민족들 중에서 몇몇은 마지막 때에 전투대형을 갖추어 이스라엘로 내려오려고 “북쪽 가장 끝”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적대적 반유대주의 민족으로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에스겔서 38~39장). 마곡, 메섹, 두발, 고멜, 도갈마는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완의 아들들이 엘리사(Elishah)를 시작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나옵니다. 엘리사의 후손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엘리사

1. 학자들마다의 다른 관점으로 인해 일부 족속과 지역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

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하여튼 그리스의 혈통의 해양인(海洋人)이었을 것입니다. 다시스(Tarshish)는 종종 스페인 해안의 남서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부유하고 중요한 항구도시로 유명합니다. 예언적으로 이곳은 “서쪽 가장 끝”, 즉 서방세계를 상징합니다. 깃딤(Kittim)은 키프로스(Cyprus) 혹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해안지방으로 확인됩니다. 도다님(Dodanim)이 어딘지는 불분명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미래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야반의 수많은 후손들이 이에 대항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야벳 민족에 관한 설명은 “이방인들”(이교도들)의 지리, 언어, 부족, 국가가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요약하며(10:5) 끝맺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의 몰락 후에 패권을 잡게 되며 그 이후로 계속 세계를 지배해온 민족들입니다.



2. 함 족속(10:6-20)

다음 일람표는 함 족속 차례입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에 그들은 활발하고 공격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제국을 건설했으며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의 회의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야벳 족속이 거대하게 번성하리라는 예언은 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들은 번번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있고, 성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옛 회의론자들의 경우에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전망이었을 뿐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함의 명단은 잘 알려진 이름들(10:6-7)로 시작하는데, 그 첫 이름은 구스(Cush)입니다. 구스의 원래의 정착지는 나일강 상류로 추정되며, 비록 그의 후손들이 아라비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인디아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는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은 구스 족속들을 검고(예레미야 13:23), 키가 장대했다(이사야 45:14)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Mizraim)은 애굽을 세웠습니다. 언어는 이중 언어였기 때문에 긴 나일강을 따라 뻗친 애굽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원래 이름은 켈이었고 함과 관계가 있다고 어떤 이들은 생각합니다. 붓(Phut)은 아프리카 해안의 리비아를 세웠습니다. 가나안(Canaan)은 후에 자기 이름을 붙였었고 한동안 애굽 영토였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구스의 많은 아들들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아라비아 해안과 페르시아 만 사이의 지역, 또는 에티오피아에 정착했습니다. 시바(Seba)의 자손들은 에디오피아 북부 누비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월라(Havilah)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해안과 페르시아 만 사이의, 본래 셈족의 지역이었던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확인됩니다. 그 방대한 지역은 두 주요한 족속으로부터 온 백성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리만큼 광활하였습니다. 삼다

(Sabtah)의 자손들은 에디오피아와 아라비아에까지 연결되었고, 라아마(Raamah)와 샵드가(Sabtechah)의 두 자손들은 페르시아 만까지 이어져 살았습니다. 라아마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한 아들인 스바(Sheba)의 이름은 아라비아에 있는 그의 이름을 딴 거대한 도시와 연계되어 있고 또 다른 아들인 드단(Dedan)의 이름은 페르시아 만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의 계통에서 잘 알려진 이름들이 거명된 후, 이야기는 이제 악명 높은 니므롯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는 그들 속에 가려진 자였으나 분명히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반역하다”는 의미의 “Marad”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는 바벨탑을 건설한 배후의 주동자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니므롯은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진 사법치안의 칼을 빼앗아 정복자의 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제국을 세운 제국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함 계통에서 그에게 상당 부분이 할애되어 있는 사실에서, 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나타난 거인 중의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세속의 자료에서 우리는 그녀가 악명 높은 세미라미스(Semiramis)라는 사실을 얻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으로 이 땅에 우상을 들여왔고 바빌론을 “신비주의”의 영원한 고향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 후에 지구를 재빠르게 침식해 버린 거대한 이방 종교 체계는 바빌론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²

니므롯은 “began to be a mighty one in the earth—땅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자가 되었다”(10:8). 즉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묶은 믿음의 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10:9)이었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앞에서”(before)라는 말을

2.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Alexander Hislop, *The Two Babylons* (New York: Loizeaux, 1948)를 참조하라.

“대적하여”(against)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기질로 뚜렷하게 성공을 거두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니므롯은 함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사람들은, 셈 족속의 경건한 창시자인 셈에 의해 확실하게 지속되어온 엄격한 신앙관을 그들에게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니므롯을 틀림없이 투사(champion)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니므롯 제국은 바벨(바빌론)에 세워졌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셈 족의 언어로 “신에게 이르는 문”(the gate of the god)이란 의미입니다. 민족들이 흩어진 후, 바빌론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이교도적인 신비주의 종교체제를 지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그 도시는 582평방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자, 우상 숭배를 하는 유대인들을 바빌론으로 추방하시어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영원히 치유토록 하십니다.

니므롯의 정복지는 세 도시였는데, 각각 바빌론의 남쪽, 바빌론의 북쪽, 그리고 바빌론의 북동쪽에 자리 잡은 에렉과 악갓과 갈네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들과 바빌론은 니므롯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말하는 “the land of Shinar—시날 땅”(10:10), 즉 아시리아와는 다른 바빌로니아 제국을 통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니느웨 도시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그 큰 도시를 세운 것이 셈의 아들 앓수르라고 암시하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니느웨가 세워진 것을 니므롯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그(니므롯)가 앓수르에게 나아가 니느웨를 세웠다”(10:11)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듯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따르면 니므롯이 앓수르(아시리아)를 침략했고, 바빌로니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그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바빌론의 경쟁자가 되었으며 훗날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제국의 두려운 수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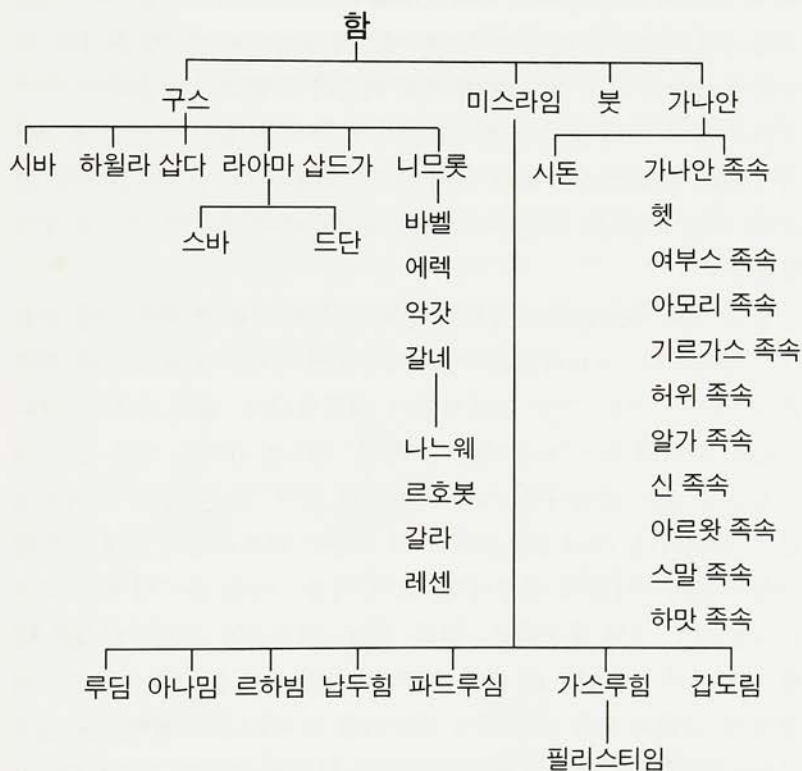
니느웨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르호봇, 갈라, 레센이라는 다른 세 도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르호봇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그 말은

“대로(大路)의 도시”라는 의미로 니느웨를 묘사하는 이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라와 레센 모두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두 지방 모두 아시리아의 고대 수도인 앗수르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느웨의 외곽도시를 말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느웨는 “큰 도시”(10:12)이고 요나 시대에도 니느웨에 대한 그 표현은 여전히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잣대로 니므롯은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고, 성경은 그러한 사실들로 인해 그를 그와 같이 평가해줍니다. 모든 민족의 일람표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쓰였기에 성경은 다시 함에게서 나오는 족속들을 기술하며 인근의 이웃들(near neighbor)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미스라임(Mizraim)의 자손들이 그 이름이 명단에 오릅니다. 그들은 모두 애굽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기자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애굽 족속으로부터 나왔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필리스티임”(Philistim)이란 말은 “이주하다”라는 의미의 에디오피아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라 전해집니다.

가나안(Canaan)의 후손들은 마지막으로 명단에 오릅니다. 그들 중에서 장자이고 으뜸가는 시돈(Sidon, 10:15)은 가장 오래된 가나안 도시를 세웠고, 그곳은 자매 도시 두로와 함께 유명한 상업과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페니키아 탐험가들과 식민지 개척자들은 이 도시들에서 출발했습니다. 고대 로마제국의 경쟁자였던 아프리카 해안지대의 카르타고는 두로의 식민지였습니다. 헷(Heth)은 히타이트 민족을 세웠고, 여부스(Jebusites) 족속은, 다윗의 강력한 군사들이 힘들게 빼앗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Amorites) 족속들은 요르단과 훗날 유다에 속한 산지 양쪽에 굳게 정착했습니다. 기르가스(Girgashites) 족속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히위(Hivites) 족속들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혹은 “도시들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알가 족속과 신 족속,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 그리고 하맛 족속이 더하여져 가나안 족속

의 계보가 완성됩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너무나 타락하여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3. 셈의 족속들(10:21-32)

다른 족속들을 다루고 난 후에, 모세는 셈 족속들에게 집중합니다. 그 계통은 벨렉과 욱단에까지 이르는데, 틀림없이 바벨에서의 언어의 혼돈으로 인해, 그 당시의 인류는 엄청나게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셈의 아들 중 첫째는 바빌로니아의 동쪽 산지에 정착한 엘

람(Elam)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앓수르(Asshur)로, 그는 아시리아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르박삿(Arphaxad)의 영역은 아시리아의 북부라고 전해집니다. 룿(Lud)의 후손들은 소아시아의 리디아족으로, 셈에 더 가깝다고 판정되는 나라로부터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람(Aram)의 자손들은 다마스쿠스와 메소포타미아에 정착했습니다. 특별하게 아람의 자손 가운데 네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스(Uz)의 땅에 그의 장자가 정착했습니다. 우스는 욥이 살았던 유명한 지역으로, 아라비아 사막의 팔레스타인 남동쪽 지역 일대입니다. 그의 또 다른 자손 훌, 게델, 마스는 아르메니아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삿은 전체 족속의 계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고귀한 계통을 이어가는 것은 그를 통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셈의 손자인 살라(Salah)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이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보아 그는 식민지 개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그의 아들이 히브리인의 조상인 에벨(Eber)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 “에벨”은 “이주민”이란 의미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강의 저편”(여기서는 유프라테스를 말합니다)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습니다(여호수아 24:2-3, 14-15). 에벨의 두 아들은 모두 도표에서 윗자리를 차지합니다. 벨렉(Peleg)의 이름은 너무나도 적절하게 “분열”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민족들로 분열하고 바벨에서 언어의 저주가 일어나게 된 것이 그의 이름에서 상기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잠시 뒤로 하고 욥단을 통해 이어지는 관련된 계통(the related line)을 짧게 요약하면서 족속들의 일람표를 끝맺습니다.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열셋 자손들의 명단이 올라 있습니다. 알모닷(Almodad)은 예멘을, 오빌(Ophir)은 아마도 페르시아 만의 오만지역을 세웠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다

른 아들들도 모두 대략 아라비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의 일람표를 마감하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합니다. “These are the families of the sons of Noah, after their generations, in their nations: and by these were the nations divided in the earth after the flood—이들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들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세대들을 따른 것이니라.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들에 의하여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여기에서 나뉘었다고 하는 것은 “분열되다”(disrupted)라는 의미로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분열을 강조한 것입니다](10:32). 이 장(章) 전체를 통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류의 분산이 완결되었고, 여기에 제시된 상황들 중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의 세계적인 분산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B. 인류가 흩어지게 된 원인(11:1-9)

민족들이 흩어지게 된 근본 원인은 바벨탑의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아마도 니므롯의 후원이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종의 통합을 나타내고 조장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의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국가 연맹이자 마지막 때의 축도(縮圖)였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벨에서 시작해서 바벨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계시록 17~18장). 강력한 배반이 첫 바벨의 배후에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바벨의 배후에도 강력한 배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초의 국가 연합 조직이 정치, 문화, 종교의 통합에 모든 것을 집중시킨 것처럼 마지막 연합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킨 사회를 건설하려던 인간의 첫 시도가 여기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일에서 그렇게 제외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현장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1. 그들의 재료(11:1-3)

먼저 이야기는 어떤 재료로 세계적 조직을 세우려고 했는지 말해 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네 번이나 “Let us—우리가 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 번은 인간들이 한 말이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네 번의 언급이 그 줄거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말했습니다. “Let us make brick, and burn them thoroughly—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철저히 벽돌을 굽자.”(11:3)

하나님께서 돌로 지으십니다(베드로전서 2:4-8).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의 돌로 묘사됩니다(다니엘 2:34-35, 44-45). 그러나 인간은 벽돌을 사용합니다. “They had brick for stone, and slime had they for mortar—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또 그들은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니라”(11:3). 벽돌은 그냥 진흙이 단단해진 것으로, 인간을 적절하게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고대 제국은 인간주의적(人間主義的)이었습니다. 굳어진 점토와 진흙

으로는 진정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불완전하고 허약하기 마련입니다. 옛날 건축가들이 사용했던 진흙은 역청으로 강한 접착력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천국의 도시에 있는 값진 옥석들(계시록 21:19)과 바벨탑의 점토와 진흙은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진흙은 점토만큼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 짐승(Beast)이 마지막 이방 세계 제국을 서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접착제는 똑같이 끈끈하고 마찬가지로 사악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를 “최악의 인간”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악(惡)으로 연합시킬 것이고, 악이 영광을 받고 숭배되는 하나님이 없는 연합으로 그들을 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진흙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의 건설자들은 “of one language, and of one speech—한 언어를 썼고 한 말을 썼습니다”(11:1).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문화적으로 하나였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동일한 말씨로 서로 표현하면서 그런 방식이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의 동일성, 그들의 표현의 편제는 한 부분을 보면 나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짐승(the Beast)의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대중 전달 매체가 어떻게 인간들의 사고를 통제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세뇌의 기술이 너무나 완벽해져서 8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똑같은 모택동의 유니폼을 입고, 모두 똑같은 구호를 외치며, 모두 같은 작은 붉은 책을 읽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짐승(Beast)은 그 과정을 완벽하게 할 것이며 세상을 세뇌시킬 것입니다.

2. 그들의 방법(11:4a)

이야기는 최초의 세계 연방주의자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And they said, Go to, let us build u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may reach unto heaven—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자아, 우리 스스로 한 도시와 탑을 세워 그 끝이 하늘에 닿도록 하자”(11:4). 그들은 도시로 상징되는 정치적 공동체와 탑으로 상징되는 종교적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탑을 세워 그 끝이 하늘에 닿도록”이라는 표현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도록 하자…탑을 그리고 하늘들과 함께하는 꼭대기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마도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의해서 씌워진 탑, 즉 십이궁의 별자리(the sign of the Zodiac)를 꼭대기로 하는 탑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탑은 천문과 점성술의 자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고(思考)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별에 대한 관측과 신비주의가 그들의 종교 체계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세계 제국을 미리 전망하게 합니다. 똑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종교를 크게 사용할 것이나, 신비주의나 자기 자신의 숭배에 근거를 두는 종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의도대로 인류를 꿈쩍 못하게 복종시킬 범세계적 정치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3. 그들의 동기(11:4b)

고대 세계 제국의 설립자들의 동기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Let us make us a name, lest we be scattered abroad up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우리의 이름을 내어 우리가 온 땅의 표면으로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11:4). 이 모든 사고방식은 인간성(人間性)에 영광을 돌리고 인류를 영구적인 연합체 안에서 결속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4. 그들의 실수(11:5-9)

그들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And the LORD came down to see the city and the tower, which the children of men builded—그래서 주께서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시니라.” 그 나타나심은 주님의 강림으로 이어집니다. “Go to, let us go down, and there confound their language—자아,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동하게 하자.” 주님께서 그 현장에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제외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배제시켰다고 착각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신속하고 영속적인 심판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제외된 사회제도가 지속하는 것을 인간에게 허용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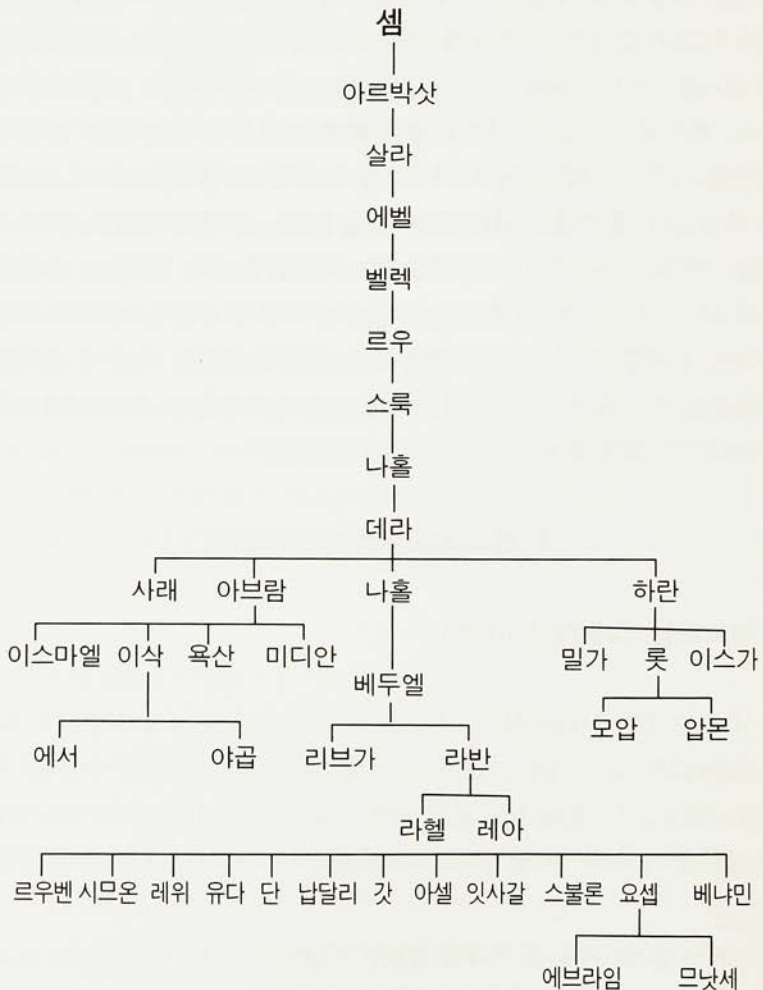
II. 하나님의 은혜(11:10-32)

A. 아브라함의 계보(11:10-26)

이제 모세는 전체에서 긴 부분을 차지하게 될 조상의 일람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작성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³ 그는 셈과 아르박삿에게로 다시 돌아가 벨렉에 이르기까지 계통을 다시 한 번 열거하고, 그러고는 데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함

3. 편의상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중요한 인물들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족보가 여기 기술되었다.

니다. 데라에서 그는 잠시 멈추는데, 그의 세 아들(아브람, 나홀, 하란)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아브라함의 가계를 셋을 경유한 노아에서부터 추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결정하게 될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내셨는데, 그것은 셋의 계보에서였습니다.



B. 아브라함의 족보(11:27-32)

데라에 이르러, 모세는 아브람의 족보를 살펴보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제와 조카와 조카딸이 각각 한 명씩 있습니다. 그의 형제 하란의 세 자녀는 밀가, 이스가, 그리고 롯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람과 대조되어 여러 면에서 눈에 띄게 되는 사람인 롯이 이야기 안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둘째 형제 나훔은 그들의 조카딸 밀가와 혼인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결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람 자신이 사래와 결혼했을 때에도(11:29) 그는 실제로 배다른 동생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20:12). 모세가 아브람의 형제인 나훔의 결혼에 대해 언급한 것은 훗날 그가 아브람의 손자 야곱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할 라반과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인간 아브람을 살펴보고, 읽는 이들에게 주인공의 직계가족관계를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있을 많은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합니다. 끝부분에서 모세는 사래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체에 대해 소개하는 데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중(意中)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창세기의 25%나 되는 비중을 할애하십니다) 모세는 아브람의 최초의 모험을 순례자(pilgrim)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여기서는 살아계신 진실한 하나님께서 언제 또는 어떻게 우르의 이교도인 우상숭배자 아브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람뿐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데라와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은 모두 첫발을 내디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기까지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아브

람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신 일은 너무나 강력하고 확실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데라는 순례에 참여하도록 설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의 우르는 바빌로니아에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쾌락과 번영의 도시였으며 달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순례자 가족은 하란에 이를 때까지 여행을 계속했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멈추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국경지대의 마을이었고, 갈대아의 우르처럼 달의 신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순례 여정 전체가 주저앉게 되면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약 25년간 무기력하고 나태한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데라로 대표되는 옛 성품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단지 겉치레의 반응들만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치 않았고(12:1) 자기와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이 끼어들도록 허용함으로써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삶에서 너무 어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허비되어 흘러갔고, 마침내 데라의 죽음으로 더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없어지게 되자, 아브람은 일어나 이교도들의 어둡고 불명료함으로부터 믿음의 밝은 빛 속으로 큰 걸음을 앞으로 떼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2부
히브리 민족의 시작
족장의 역사
(12:1~50:26)

제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1~25:18)

I. 믿음의 길(12:1-20)

- A.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12:1-9)
 - 1. 믿음의 길을 찾음(12:1-4)
 - 2. 믿음의 길을 따름(12:5-8)
 - 3. 믿음의 길을 버림(12:9)
- B. 죄에 빠진 아브람(12:10-20)

II. 믿음의 대가(13:1-18)

- A. 영적인 사람의 특징(13:1-4)
- B. 영적인 사람의 생각(13:5-9)
 - 1. 걱정되는 상황들(13:5-6)
 - 2. 사악한 이웃들(13:7)
 - 3. 보다 연약한 형제들(13:8-9)
- C. 영적인 사람의 행동(13:10-18)
 - 1. 하나님께서 제약하심(13:10-13)
 - 2.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심(13:14-16)
 - 3. 하나님께서 조정하심(13:17-18)

III. 믿음의 능력(14:1-24)

- A. 처절한 전투(14:1-11)
- B. 미혹에 사로잡힌 형제(14:12)
- C. 역동적으로 믿는 자(14:13-24)
 - 1. 욱신의 연약함(14:13)
 - 2. 세상의 지혜(14:14-16)
 - 3. 악마의 간계(14:17-24)

IV. 믿음의 보증(15: 1-21)

- A. 아브람의 가족 형성(15:1-7)
 - 1.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15:1-4)
 - 2.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15:5-6)
 - 3.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15:7)
- B. 아브람의 믿음의 근원(15:8-12)
- C. 아브람의 밝은 미래(15:13-21)
 - 1. 연관된 구체적 시간(15:13-16)
 - 2. 구체적으로 연관된 영토(15:17-21)

V. 믿음의 담보(16:1-16)

- A.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시험(16:1-6)
 - 1. 아브람의 이중적인 마음(16:1-4)
 - 2. 사래의 거짓된 마음(16:5-6)
 - 3. 하갈의 반항적인 의지(16:6)
- B.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실(16:7-16)
 - 1. 하갈에게 주신 계시(16:7-12)
 - 2. 하갈의 응답(16:13-16)

VI. 믿음의 잠재력(17:1-27)

- A. 언약을 받는 방법(17:1-16)
 - 1. 절대적 복종으로(17:1-3)
 - 2. 절대적 침묵으로(17:4-16)
- B. 언약을 믿는 방식(17:17-27)
 - 1. 믿음의 웃음(17:17)
 - 2. 믿음의 이치(17:18-22)
 - 3. 믿음의 삶(17:23-27)

VII. 믿음의 기도(18:1-33)

- A. 실용적인 사람(18:1-8)
 - 1. 서두름(18:1-2)
 - 2. 손님 접대(18:3-8)
- B. 특혜 받은 사람(18:9-15)
 - 1. 약속(18:9-10)
 - 2. 문제(18:11-15)
- C. 증명된 사람(18:16-22)
 - 1. 예기되는 위대함(18:16-18)
 - 2. 개인적인 위대함(18:19)
 - 3. 지위에 따른 위대함(18:20-22)
- D. 기도하는 사람(18:23-33)
 - 1. 아브라함의 태도(18:23a)
 - 2. 아브라함의 논쟁(18:23b-32)
 - 3. 아브라함의 확신(18:33)

VIII. 믿음의 위치(19:1-38)

- A. 소돔의 부정한 도덕성(19:1-11)
- B. 소돔의 불경건한 정신상태(19:12-38)
 - 1. 세속화된 롯의 믿음(19:12-26)

2. 타락한 롯의 가정(19:27-38)

IX. 믿음의 여정에서의 위험들(20:1-18)

- A. 이동하는 순례자(20:1-2)
- B. 가련한 선지자(20:3-16)
 - 1. 선지자로서 즉시 인정받지 못함(20:3-7)
 - 2. 아직은 선지자로 간주되지 않음(20:8-13)
 - 3. 선지자로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20:14-16)
- C. 사역하는 제사장(20:17-18)

X. 믿음의 상급(21:1-34)

- A. 이삭에 대한 엄청난 기적(21:1-8)
- B. 이스마엘의 무서운 조롱(21:9)
- C. 사라의 전형적인 메시지(21:10)
- D. 아브라함의 비극적인 실수(21:11)
- E.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21:12-13)
- F. 하갈의 눈물 어린 고통(21:14-21)
- G. 투명하게 드러나는 아비멜렉의 동기(21:22-34)

XI. 믿음의 증거(22:1-24)

- 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련해두신 갑작스런 시험(22:1-2)
- 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신 순수한 믿음(22:3-12)
- C.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엄숙한 진리(22:13-24)

XII. 믿음의 인내(23:1-20)

- A. 아브라함의 애통(23:1-6)
- B. 사라의 무덤(23:7-18)
- C. 에브론의 선물(23:19-20)

XIII. 믿음의 삶에서의 경계(24:1-67)

- A. 지혜로운 체류자(24:1-9)
- B. 놀라운 종(24:10-28)
- C. 세속적인 죄인(24:29-33)
- D. 자발적인 성도(24:34-61)
- E. 기다리는 아들(24:62-67)

XIV. 믿음의 이별(25:1-11)

- A. 열매 맺은 사람(25:1-4)
 - 1. 아브라함의 결정(25:1)
 - 2. 아브라함의 후손들(25:2-4)
- B.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25:5-6)
- C. 완전한 인간(25:7-11)
 - 1. 아브라함의 날들의 분량(25:7)
 - 2. 아브라함의 죽음의 방식(25:8)
 - 3. 아브라함의 소망(25:9-11)
- D. 하찮은 인간(25:12-18)
 - 1. 이스마엘의 계보(25:12-15)
 - 2. 이스마엘의 다섯 가지 승리(25:16)
 - 3. 이스마엘의 최후의 비극(25:17-18)

제5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믿음의 길(12:1-20)

아브람의 나이는 일흔 다섯이었고 백 년의 세월이 그의 앞에 더 놓여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인생에서 이제부터 펼쳐질 백 년의 세월의 결과가 인류의 발전에 미친 모든 영향을 생각할 때에 그 세월은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기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이미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업에서도 성공적이었고, 행복하게도 뛰어난 미모의 여인과 결혼했으며, 집안 사람들이나 거느리는 종들의 애정을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가계에서 아담의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였고, 존경도 받고 종교적이기도 했지만,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당시에 그는 영원한 과멸을 향해 서둘러 가고 있는 불쌍한 길 잃은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삶의 진정한 기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조금 언급되나 이제 연대순으로 충실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도 중요했기에, 그 이후의 창세기 열두 장은 아브람의 영적 순례의 전개(展開)에 전적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

A. 하나님을 믿는 아브람(12:1-9)

아브람의 믿음의 이야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우상들에 매어 있기 때문에 그 만남의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 에녹, 노아, 셈 등과 같은 영적으로 위대한 조상들의 이름을 손꼽는 대단한 가계(家系)를 갖고 있었던 아브람일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었기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그들의 가구의 품목들을 수집하여 맞추듯이, 그들의 믿음도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능한 한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도록 고안되고 자기 취향에 맞추어진 것들을 여기서 몇 개, 저기서 한두 개 수집하듯이 조각들을 모아 맞추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의 요새를 깨뜨리기 위해서 능력으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믿음의 길을 찾음(12:1-4)

아브람의 영적 변화에는 두 가지 진전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계시와 반응,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행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12:1-3). “Now the LORD had said unto Abram, Get thee out of thy country, and from thy kindred, and from thy father’s house, unto a land that I will shew thee—이제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새 땅과 새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혼의 어둠과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아브람은 다른 땅으로 순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그 새로운 땅이란 가나안이지만, 아브람의 영적 변화는 이 땅 위의 어떤 지역을 훨씬 뛰어 넘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기초가 닦인 한 도시를 찾아 나섰는데, 그 도시의 기초를 지으시고 설계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눈은 처음부터 하늘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참으로 물질적인 그의 시선의 초점에 맞춰진 그의 터전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의 궁극적인 믿음과 소망은 하늘나라 그 자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 뒤에 있는 실재(實在)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의 순례는 다른 나라, 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히 복 받은 본향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례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믿음이 동트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실행(12:4)으로 이어집니다. “So Abram departed, as the LORD had spoken unto him; and Lot went with him: and Abram was seventy and five years old when he departed out of Haran—그리하여 아브람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가니,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올 때 그는 칠십오 세였더라.” 본래의 비전은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그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귀결(歸結)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부분적인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람은 혈연과 동족의 인연, 두 가지를 다 포기하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했어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모험이 아주 멀리 진행되기도 전에 멈추어버렸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야 진정한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첫 걸음은 뎌 것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걸음일 수 있어도 걸음은 걸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승리의 순간을 맞다가도 패배의 순간을 겪어야 했고, 산 정상에서의 경험과 어두운 계곡의 시간들도 가졌으며, 멈추다가 다시 시작하고, 자신만만했던 한 순간이 바로 이어진 혼돈으로 뒤덮여지기도 하면서, 아브람은 새로운 차원에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에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2. 믿음의 길을 따름(12:5-8)

우리는 이제 아브람의 증거(Abram witnessing)를 봅니다(12:5). “And Abram took Sarai his wife, and Lot his brother’s son, and all their substance that they had gathered, and the souls that they had gotten in Haran; and they went forth to go into the land of Canaan; and into the land of Canaan they came—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 그리고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 그리고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이끄니라.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섰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왔더라.” 아브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담하게 움직이기로 한 결정은 그의 가족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주변에는, 그가 갈데아에서 멋진 장래를 버리고 신화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장담하는, 통상적인 회의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대가를 이미 계산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영국신사는 그리스도를 보다 대담하고 긍정적으로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여행하는 사람이어서 기차나 역(驛)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행가방 하나를 골라 그 위에 굵은 글씨체로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고 페인트로 썼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여행 가방을 자기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항상 그는 호기심이 있거나 비판적인 군중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일단 관중이 모이면 그는 자기 여행 가방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다른 쪽에 “너는 누구의 바보요?”라는 말을 써 놓았습니다. 아브람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즉 그가 절대로 바보가 아닌 것을 알고 있던 그의 가족과 그의 종들은 즉시 그들의 운명을 그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위해 강하게 도전해 나간 것입니다. 그는 얼마간의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람의 믿음이라는 금 동

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실성이라는 고리에 꿰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브람이 거래하는 은행과 거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대담하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브람의 행보(Abram walking)를 봅니다 (12:6a). “And Abram passed through the land unto the place of Sichem, unto the plain of Moreh—아브람이 세겜 지방, 모레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거쳐 가니라.” 그는 여전히 믿음의 저지대(低地帶)에 있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새로운 삶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한 걸음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 비춰진 빛 가운데로 걸으면서 새로운 빛이 비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아브람의 기다림(Abram waiting)을 봅니다 (12:6b-7). “And the Canaanite was then in the land. And the LORD appeared unto Abram, and said, Unto thy seed will I give this land: and there builded he an altar unto the LORD, who appeared unto him—아브람이 세겜 지방, 모레 평야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거치니라. 그리고 그때에 가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그리고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이르시기를, 네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시니,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주께 그가 제단을 쌓았더라.” 그 가나안 사람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은 종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도착한 그 땅을 돌아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모든 그 선택된 터전을 보면서 “거참, 이런 걸 기대한 것은 아닌데”라고 혼잣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나 기지(奇智)에 의존하지 않

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처럼 “이들 가나안 사람들과 혼약에 의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서 재산을 사들이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야지”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¹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경배하고 모든 세세한 것들을 더 높은 신분의 손에 기꺼이 맡겼습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마자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핍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허물을 갖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의 문턱에서 믿음의 삶의 원칙들을 배우고 경험을 통해 더 강하게 되도록 실망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브람의 경배(Abram worshipping)를 봅니다 (12:8). “And he removed from thence unto a mountain on the east of Bethel, and pitched his tent, having Bethel on the west, and Hai on the east: and there he builded an altar unto the LORD, and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벳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벳엘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그곳에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이제 영적 체험의 높은 고원 하나에 이르러, 보다 높은 땅에 발을 디고, 바울이 “천상”(heavenlies)이라고 부른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순례는 그 높은 음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1. Lord Rothschild도 마찬가지였다. 열렬한 시온주의자였던 그에게 왜 자신이 소유한 막대한 부로 유대인을 위해 팔레스타인 땅을 사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내가 왜 그래야 하지요? 우리는 이미 그 땅의 권리 증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순례의 길에서 높은 한 지점에 이르렀어도, 아브람은 그곳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산으로부터 내려와 그 믿음의 고원들로부터 멀리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3. 믿음의 길을 버림(12:9)

“And Abram journeyed, going on still toward the south—그리고 아브람은 계속 남쪽을 향하여 이동하더라.”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의미를, 아이는 “폐허 더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 채치 있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집을 잃은 자들에게 그분의 집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거해야 할 하나님의 집을 폐허더미 옆에 가까이 두어 그로 하여금 세상이 진실로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고 계시지만, 아브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떠나려했습니다. 애굽이 주는 유혹과 매력은 그로 하여금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B. 죄에 빠진 아브람(12:10-20)

믿음의 길을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그 자체로서 항상 복잡한 사연을 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람이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가 모자라는 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근(famine)이었습니다(12:10). 가나안에는 아브람이 전혀 겪으리라고 예기하지 못했던 두 가지 사실, 즉 가나안 족속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둘 다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온 땅을 뒤덮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브람이 베델을 버린 후에 그는 개인적으로 영적 기근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부터 멀리 떠나가면 항상 영혼의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불길한 예감(foresight)입니다(12:10-12). 기근에 대한 걱정과 함께 베델을 떠난 이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브람은 임시방편을 찾아 나섭니다. 애굽은 그의 문제의 좋은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²

그러나 애굽으로 가기로 하자,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래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I know that thou art a fair woman to look upon: therefore it shall come to pass, when the Egyptians shall see thee, that they shall say, This is his wife: and they will kill me, but they will save thee alive—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애굽인들이 당신을 볼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일어나리니,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일 것이나 당신은 살려 둘 것이라.”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영혼을 덮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기간 중에 조지 6세(King George VI)는 BBC 라디오방송을 통해 영국 사람들에게 때때로 말하곤 했습니다.

2. 이것이 성경에서 애굽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애굽은 약 육백여 번이나 언급되는데, 예표론으로 말하면, 이곳은 언제나 세상을 예표한다. 그 중요성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라는 것이다. 애굽은 구별되어 믿는 자에게 매력적인 세상을 나타낸다. 그 부, 지혜, 사악함, 숭배, 모두가 다 유혹적이다. 애굽이 아브람에게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과 같다. 죄인에게는 사탄의 소굴이며, 성도에게는 거짓 미끼인 것이다. 애굽은 아브람에게 그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장소로 보였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는 던커크(Dunkirk) 폭격 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연합군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국민을 다시 결속시키려고 힘쓰며, 민방위대(허약하고, 늙고, 정규 군인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남자들로 구성된 보잘것없는 부대)를 조직하고, 해협을 건너 저항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대는 빗자루를 들고 행진하는 종이 군대와 같았습니다. 앞날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구원받은 경건한 영국의 조지 6세는 라디오에 나와 국민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려고 했습니다. 던커크 폭격 바로 직후, 영국 전투를 막 앞에 두고 있었던 때입니다.

조지 6세가 그 날에 무슨 말을 했는지는 대부분 다 잊었지만, 그가 인용한 시 한 편은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해(年)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빛을 밝혀 주시오, 미지의 세계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둠속으로 나아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빛보다 나으며 아는 길보다도 안전할 거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찾자 어둠속을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덕 있는 쪽으로 인적 드문 동녘의 새벽에 나를 인도했습니다.

루이스 해스킨(M. Louise Haskins)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바라신 것이었지만, 아브람은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 내었습니다. 그는 동트는 아침을 등지고 애굽을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짓(falsehood)이 있었습니다(12:13). “Say, I pray thee, thou art my sister: that it may be well with me for thy sake; and my soul shall live because of thee—내가 부탁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당신덕분에 나는 무사하고 내 목숨은 당신으로 인하여 살게 되리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요청입니까! 사래가 그를 다시 상대한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리 떨어지자간 성도가 얼마나 더 타락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아브람은 사래가 이복 여동생이라는 사실로써 그 말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20:12). 그러나 절반의 진실은 그 자체가 완전한 거짓말이고, 이런 궤변을 이용함으로써 그는 더욱 깊은 곤경으로 빠지게 될 뿐이었습니다. 아브람이 거짓말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 하늘은 틀림없이 비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자주 이와 비슷한 구실과 핑계로 피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좌절(frustration)이 옵니다(12:14-15). 아브람이 피하기 원했던 바로 그 일이 마치 폭풍처럼 덮쳤습니다. 사래는 파라오의 후궁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비록 사래는 65세였지만, 여전히 보기에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가엾은 처지의 아브람! 그는 사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봐, 사래, 당신은 곱게 늙어가는 군.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애굽에서 우리 둘 다 걱정되는군.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은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가는 곳은 집안사람들은 금세 과부가 될 수 있는 곳이지. 그러면 당신은 파라오의 후궁이나 다른 왕족의 후궁으로 납치될 거야.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굽으로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아예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첨(flattering)이 옵니다(12:16). 우리는 “Pharaoh entreated Abram well for her sake: and he had sheep, and oxen,

and he asses, and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and she asses, and camels—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람을 잘 대접하니,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갖게 되었더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富)를 얻게 되자 뭇은 기뻐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브람 아저씨, 또 다른 양떼가 와요. 와! 그리고 이 젖소 떼도 보세요. 또 이 멋진 여종들도 와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탄성(歎聲)을 들을 때마다 가엾은 아브람은 다시금 신음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래를 잃었고, 부부사이임을 부인했고, 바보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라를 잃었습니다. 그 대가로 얻어진 부는 정말이지 엄청난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이러한 조건,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가(代價)로, 영적 파산과 파멸의 대가로 기꺼이 부자가 되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손실입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얻은 부(富)는 그 근원에서부터 썩어빠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실패(failure)뿐이었습니다(12:17-20).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작정이셨습니다.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여기서 세상의 권력을 지닌 거대한 지배자를 처음 만나게 되나 그에게 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되었습니다. “And the LORD plagued Pharaoh and his house with great plagues because of Sarai Abram’s wife—그래서 주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으로 고통을 주시니라.”

이러한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람은 붙잡혀 와서 파라오 앞에 끌려 나갔고, 그 부끄러운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What is this that thou hast done unto me? why didst thou not tell me that she was thy wife? Why saidst thou, She is my sister?—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

너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내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분노로 타는 듯한 파라오의 질문 앞에서 아브람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 한 마디 못한 채 성난 왕 앞에서 찢찢매매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기에 한 개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사래를 그 남편에게 넘겨주면서 통명스럽고 경멸스런 어조로 떠나라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Take her, and go thy way—그녀를 데리고 네 길을 가라.” 모든 면에서 이교도인 파라오가 믿음의 사람 아브람보다 더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래가 그 알현실(謁見室)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올 때, 정말로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을 향해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흥!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꼴이라면, 다시는 믿는 자를 만나고 싶지 않군!”

우리가 말이나 행위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잘못 전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삶으로 증거하는 일에 조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II. 믿음의 대가(13:1-18)

애굽에서의 이야기는 끝났고, 아브람은 보다 더 슬픈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두 번째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떠내려갈 때에 구원받은 자였던 그가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등장했습니다.

A. 영적인 사람의 특징(13:1-4)

영적인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는 구별됨(separation)

입니다. “And Abram went up out of Egypt, he, and his wife, and all that he had, and Lot with him, into the south—그리고 아브람은 애굽을 벗어나 위로 올라오니,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과 롯도 그와 함께 남쪽으로 들어가니라”(13:1).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라는 성경적 진실이 아마도 고립주의에 대한 한 반응으로 생각되는 불운에 처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구별(separation)은 고립(isolation)이 아니며, 오히려 차단(insulation)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in the world)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누전(漏電) 가능성에 대비해서 절연체로 싸놓은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선(電線)과 같이, 믿는 자는 삶의 한 쪽 끝을 힘의 공급원에 연결하고, 또 다른 한쪽 끝을 분명히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그 증오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르키메데스(Archimedes)는 자신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와 우주 밖에 받침점으로 쓸 충분히 먼 지점만 주어 진다면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도 오직 그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통 안에 서서는 그 통을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의 첫 번째 특징은 결국 이 세상으로부터 성경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³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화(santification)입니다. 아브람

3. 옛 수도승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은 수도원으로 은둔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바울은 콜로새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콜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at Colossae) 거한다고 말하며 구별의 진정한 의미를 표현했다. 믿는 자들은 두 장소에서 살고 있다. 그는 천국이라는 장소(“그리스도 안에 있고”)에 살고 있으면서 또한 세상이라는 장소(“콜로새에 거함으로”)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곳은

의 세상의 부를 언급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nd he went on his journeys from the south even to Bethel, unto the place where his tent had been at the beginning, between Bethel and Hai—그리고 그는 남쪽으로부터 벵엘까지 그의 여행을 계속하여, 벵엘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까지 이르렀으니”(13:2-3). 구별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성화는 “무엇으로부터의 성화”(separation from)라기보다는 “무엇에로의 성화”(separation to)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애급에서 몹시 타락하고 난 후, 아브람은 이제 자신과 세상간에 가능한 한 상당한 거리를 둡니다.

몇 년 전 어느 부인이 새 마부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 부인이 광고를 낸 후에 얼마 안 있어 세 명이 지원했는데, 부인은 그들에게 각각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을 바로 밖에 있는 가파른 언덕과 또 길이 갑자기 협곡으로 빠지는 그 좁아지는 지점을 아시죠? 겁내지 않고 몰아서 그 끝까지 얼마나 바짝 내 마차를 댈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람은, “부인, 마차 바퀴가 벼랑 끝에서 15센티미터 정도 이내에서 멈추면 저는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마부는, “부인, 제 생각에 바퀴 중의 하나가 바로 벼랑 끝에 닿아도 저는 말들은 정지시키고 마차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부로 고용된 것은 세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인, 저는 마차를 가능한 그 협곡으로부터 아주 멀리 세우겠습니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너무 얽매어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세상에 거함을 잊을 수 있다. 또는 우리가 “골로새에 거하는” 사실에 빠져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야 할 필요를 잊을 수 있다. 진정한 세상으로부터 구별은 “그리스도 안에” 서의 차원과 “골로새”에서의 차원의 완벽한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내포한다.

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신의 증거(testimony)를 잃지 않고 가능한 세상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계속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가난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은 한때 세상의 주변을 배회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 의 집인 베델로 돌아가 순례자로서의 자세를 확실히 함으로써 자신 과 애굽간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베델에 그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희생(sacrifice)입니다. “Unto the place of the altar, which he had made there at the first: and there Abram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서 아브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13:4). 장막은 아브람의 이 세상(this world)에 대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순례자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뿌리를 두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따라 어느 순간에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제단은 다음 세상(next world)에 대한 그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고, 이제부터 하늘을 향한 소통의 길을 계속 열어놓기로 걱정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내와 십대의 세 아이들이 있는데 전화기가 한 대뿐 이어서, 집에 전화하면 통화중일 때가 더 많습니다. 계속 통화를 하려고 애쓰지만, 그 때마다 통화중이라는 신호소리가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삶에서 통화중이라는 신호를 받고 계십니까. 아브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통화의 선을 열어놓겠다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의 가족의 제단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수행하겠다는 주께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구별(separation), 성화(sanctification) 그리고 희생(sacrifice)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험에서 아브람에게서 드러날 것입니다.

B. 영적인 사람의 생각(13:5-9)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생의 문제들과 난처한 일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사람의 인생에 대한 태도는 육신적인 사람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었던 롯과 영적인 사람이었던 아브람은 앞으로 기록되는 사건들에서 서로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에 섭니다.

1. 걱정되는 상황들(13:5-6)

롯과 아브람은 각각 수많은 가축 무리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내기에는 그 목초지(牧草地)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람으로서는 당연히 롯에게 “이봐 롯, 이 땅은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게 약속한 땅이야. 너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겠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취한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배웠습니다.

몇 년 전 나의 아버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려고 매우 번민하셨습니다. 그런 변화와 연관되어 좀 근심스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스테판 올포드(Stephen Olford)에게 충고를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들을 따져보더니 스테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렌, 내 충고는 이렇게

간단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하지 마.”

아브람은 걱정되는 상황,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곧 자신의 길을 분명히 처리해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악한 이웃들(13:7)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걱정되는 문제의 상황에 성질이 거친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And there was a strife between the herdmen of Abram’s cattle and the herdmen of Lot’s cattle: and the Canaanite and the Perizzite dwelled then in the land—아브람의 가축의 목동들과 롯의 가축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때 그 땅에 가나안인과 브리스인도 거하였더라.” 형제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데, 그것도 특히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보다 더 신속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일이 없기에, 바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Do all things without murmurings and disputings: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뒤틀린 민족 가운데서 책망들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자 함이니라.” (빌립보서 2:14)

3. 보다 연약한 형제들(13:8-9)

아브람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존재

였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같은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먼저 행해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간직한 제단을 상기하면서, 아브람은 영적이면서 희생적인 일을 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람은 영적인 솔직함(spiritual directness)으로 롯을 대했습니다. “Let there be no strife, I pray thee, between me and thee—칭컨대, 너와 나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게 하자.”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는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듯이 먼저 스스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둘러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에 이르러 그 문제가 다툼이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롯,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앞에서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말다툼하는 것은 중단해야 해. 나는 이 다툼을 중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순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아브람은 영적인 분별력(spiritual discernment)으로 롯을 대했습니다. “Let there be no strife…for we be brethren—서로 다투지 말자…우리는 형제이니까.” “이봐, 롯,”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묶는 관계는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리스도인인 두 여인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창문을 열어놓기 원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창문을 닫아놓기 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애!”라고 창문을 열고 싶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감기에 걸려 죽을 거야!”라고 창문을 닫고 싶은 여인이 대꾸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명이 숨 막혀 죽을 때까지 창문을 닫아 놓았다가 다른 사람이 폐렴으로 죽을 때까지 창문을 열어놓지 그래. 그러면 여기는 좀 평화로워지겠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웃지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갈라놓는 일들이 대부분 얼마나 하찮은 일들입니까! 이 두 그리스도인들은 창문을 두고 서로 매섭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

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아브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더구나 그는 영적인 품위(spiritual dignity)로 롯을 대했습니다(13:9). 그는 말했습니다. “My dear young borhter, you choose. I’ll take what you leave—내 귀한 형제여, 네가 선택하라. 네가 남겨놓은 것을 내가 갖겠노라.” 그러한 희생정신으로 아브람은 그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브람은 롯보다 연장자였으며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자로서도 두 인물 중 훨씬 더 강자였으며,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이며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단에 있었고, 어떻게 희생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스펀전(Spurgeon)은 “두 번째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용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람이 여기서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자신의 권리와 강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바보라 부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를 복 주셨습니다.

C. 영적인 사람의 행동(13:10-18)

1. 하나님께서 제약하심(13:10-13)

하나님의 제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롯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에서 잠시 벗어나고자 합니다. 아브람이 영적인 자제력으로 행했다면, 롯은 육신적인 결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롯은 헌신하는 데 연약했습니다. 롯은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롯에

게 없는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서 “주여, 이것이 과연 나와 나의 가족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롯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았으며, 헌신도 없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헌신하는 데 연약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세상적인 욕망(wordly in his desires)을 좇았습니다(13:10). 그는 “이곳이 아이들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인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장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로 소돔과 물이 넉넉한 요단의 계곡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였고, 다른 하나가 진짜 이유였습니다. 요단 계곡은 “even as the garden of the Lord—주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애급의 땅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롯은 애급에서의 삶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애급 땅에 머무름으로써 아브라함이 경험한 영적인 훈련으로부터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헌신하는 데 연약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된 결정(wrong in his decisions)을 내리게 됩니다(13:11-13). 롯은 요단 전 평원을 택하고 경건한 삼촌으로부터 스스로 분리해 나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쳤는데, 성령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But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and sinners before the LORD exceedingly—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심히 죄인들이었더라.”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첫 번째 질문은 “천국인가, 지옥인가?”이며, 두 번째 질문은 “천국인가, 이 땅인가?” 입니다. 롯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소돔을 선택한 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제약하시는 사람인, 아브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경건했던 노년의 조지 무러(George Mueller)는 선(善)한 사람의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멈추어 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요단 계곡을 선택하는 것을 놀랍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포와 걱정의 끔찍한 한 밤에 불과 유황불로 그 평지의 도시들을 멸하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 사실을 몰랐잖아!”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점(要點)입니다. 아브람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심(13:14-16)

아브람은 하나님께 제약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재확인 또한 받습니다. 먼저 그의 소유와 관련해서 받습니다(13:14-15). 성경에는 “Lot journeyed east—롯이 동쪽으로 여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Lift up now thine eyes,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thou art northward, and southward, and eastward, and westward—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 보라” 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브람아, 저 아래, 햇빛 속에서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물이 넘쳐난 초원 말이다. 아래로 롯의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수평선에서 아직 점들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 말이다. 요단강 유역을 따라 아래로, 소돔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네 것이니라. “For all the land which thou seest, to thee will I give it, and to thy seed for ever—이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고, 또 한 네 씨에게 영

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아브람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욕심 사납게 롯이 차지하고 있는 넘실거리는 저 초원과 그 모든 나뭇가지, 그리고 돌들도 모두 여전히 아브람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의 사심(私心) 없는 마음이나 롯의 물질주의로 인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에 따르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And every one that hath forsaken houses, or brethren,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wife, or children, or lands, for my name’s sake, shall receive an hundredfold, and shall inherit everlasting life—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자마다 백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태복음 19:29).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計算)입니다.

다음에 아브람은 하나님께 그의 자손에 대해서도 재확인받았습니다. “And I will make thy seed as the dust of the earth—그리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아브람의 자손은 한 아들, 오직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안에 전 히브리인이 존재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의 행동이 언제나 궁극적인 결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이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아닙니다. 그가 한 사람만 주께로 이끌어도, 그 사람이 스펀전(Spurgeon)이나 무디(D. L. Moody)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가르침에 따르는 무리 중의 하나인 초기 감리교의 예배에 참석하고서 스펀전은 개종하였습니다. 스펀전은 청년 헨리 무어하우스(Henry Morehouse)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무어하우스는 다시 무디의 사역을 뒤바꿔놓았습니다. 무디가 이끄는 한 모임에 참석하고서 캠브리지의 일꾼 사람으로 알려진 스투드(C. T. Studd)와 다른 여섯 명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영국과 스코트랜드의 대학들을 휩쓸며 모든 지역에서 학생들을 감동시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해외로 헌신하고 사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복 주실 때에 일어나는 일종의 영적인 연쇄반응입니다.

3. 하나님께서 조정하심(13:17-18)

마침내 아브람은 하나님께 조정됩니다. “Arise, walk through the land in the length of it and in the breadth of it; for I will give it unto thee. Then Abram removed his tent, and came and dwelt in the plain of Mamre, which is in Hebron, and built there an altar unto the LORD—일어나서 그 땅을 길이로 그리고 폭으로 걸으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네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아브람이 장막을 옮기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원에 와서 거하니,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이와 같이 아브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의 삶을 위해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III. 믿음의 능력(14:1-24)

창세기 14장에는 열 명의 왕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왕만이 의(義)의 왕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야 나옵니다. 이 장(章)은 왕들과 그 갈등의 역사의 주옥같은 장면으로, 그 갈등의 끝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왕의 도래로 종결됩니다.

이 장은 성경은 물론 모든 기록으로 남겨진 역사에서 최초의 전투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제사장, 왕, 전쟁, 빵과 포도주, 그리고 십일조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제사장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날카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에 따라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왕의 혈통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왕이 그들라오멜 같은 전사로서의 왕이나 소돔의 왕 베라 같은 사악한 왕이나 시날의 현명한 왕 아므라벨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상적 왕은 멜기세덱과 같이 경배하는 왕입니다.

자주 소홀히 여겨지는 성경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전쟁에 관해 조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성경에서의 전쟁에 대한 최초의 묘사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할 것입니다. 아브람은 세상과 구별된 믿는 자이었지만,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그런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람은 수도원이나 상아탑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기 싫어 미래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영적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의 삶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삶의 현실도 외면하지 않으면서 실제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의 삶은 그를 고립주의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소돔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몹시 싫어했고 또 소돔의 쾌락, 정치, 원리, 번영,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까지도 멀리했지만, 그는 한 순간도 소돔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돔은 존재했으며, 그의 사랑하는, 연약하고, 걸려 넘어지고, 죄의 길로 빠져가는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롯을 위해서 아브람은 관여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4장의 배경에 깔린 생각입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양심적 반대자의 입장을 취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장 앞으로 불려갔고, 판사는 전쟁 수행을 위해 도울 의사가 전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거부하였고, 판사가 그 이유를 묻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그를 뒤틀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젊은이.” 그리고 판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배급표도 필요 없겠군.” 그 젊은 형제의 “구별”은 사실 “고립”이었습니다. 그 영리한 판사는 순식간에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아브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A. 처절한 전투(14:1-11)

소식이 아브람에게 계속 들려 왔습니다. 그 소식들은 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브람은 침략하는 군대가 약탈하기에 좋은 유동자산 같은 재산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소식들에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골짜기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평원의 다섯 도시들이 엘람인들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온 소식은 동쪽의 왕들이 대연합을 했으며, 곧 이어서 더 들려오는 소식은 대군대(大軍隊)가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해진 소식은 평원의 도시들이 상호협조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초기지들을 요새화하고 예비군을 동원하며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부터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 거하면서 마므레 평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친교”(fellowship)를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애급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투로 눈을 돌려 봅시다. 우선 그 이야기는 연합(coalition)을 서술하고 있습니다(14:1-2). 그 전투는 일반적으로 다섯 명의 왕에 대항한 네 명의 왕의 전투로 언급됩니다. 참가자들의 이름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네 왕과 평원의 다섯 왕들입니다.

고대에는 다메섹으로부터 길리아드를 거쳐 바산에서 요단 동쪽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까지 이르는 자주 이용되는 간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그 길은 지중해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동쪽으로 이어지는 사막의 대상(隊商)들의 주요 노선(路線)과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지점은 소돔을 전략적 요충지(要衝地)로 만들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주변 도시들과 함께 소돔은 골짜기와 동서와 남북의 통행로(通行路)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연합은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소돔을 동요시켰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원의 다섯 왕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동맹을 함께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놀랍도록 현재까지 계속되는 듯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도 없었고, 회개나 기도도, 영적인 깨달음도 없으며, 단지 연합군 구성과 군장비에 대한 준비만이 있었습니다. 동방 세력의 거대한 팽창은 갑작스런 서방의 결속을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이면(裏面)에 두 사람의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아래 쪽 소돔에서 자기의 가족과 재산에 대해 전전긍긍하며 걱정하고 있는 타락한 믿는 자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왜 그 국제적 동란(動亂)이 결국에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피고 기도하며 궁금해 하는 구별된 믿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전투(conflict)를 서술하고 있습니다(14:3-9). “Twelve years they served Chedorlaomer, and in the thirteenth year they rebelled—그들이 십이 년간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십삼 년째에 반역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성경의 최초 언급의 법칙이 관심의 대상으로 강조되는데, 성경에서 이 두 수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성경에서 열둘이라는 수는 정부를, 열셋이라는 수는 반란(rebellion)과 배교(apostacy)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동방으로부터 침략해온 군대의 승전 기록이 뒤따릅니다. 그 기록은 인상적입니다. 나라들이 줄지어 낮으로 베어진 옥수수처럼 쓰러졌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 거인 족속들도 있었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호리 족속들은 사실상 난공불락의 요새와 세일 산의 암석 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하기에 불가능함에도 침략 당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을 따라 내려왔고, 그런 후에 성경은 이 정복 왕들이 “they returned—돌이켰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평원에 위치한 도시들은 상당히 상기되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적군의 물러감에 틀림없이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바란 광야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자신들의 최남단 기지까지 물러갔습니다. 아마도 적군들은 자신들의 전리품에 만족해서, 이제는 그들의 약탈품을 싣고 동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잔뜩 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들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곧 그 침략자들은 다시 요단강 서쪽 기슭을 따라 진군해왔고, 그 심판의 시간은 신속히 다가왔습니다. 그 침략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scourge)이었습니다. 회개하여 궁극적인 멸망을 면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평원에 있는 부정한 도시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손에 드신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연합군에 의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서둘러 패망(collapse)을 말해줍니다(14:10-11). 요르단 지역의 다섯 왕은 자신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전투 지휘소에서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the Fertile Crescent)의 지도 둘레에 모여 앉은 그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와 가나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의 해안선, 고지(高地)와 저지(低地) 그리고 우방, 적, 그리고 중립족속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지도는 싯딤 골짜기, 다섯 도시, 역청 구덩이, 참호와 군대의 배치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섯 왕은 이 두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왕들이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전하, 승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여섯 가지나 됩니다. 첫째는 군수물자 조달능력입니다. 적군의 공급선은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뻗어 있습니다. 더욱이 적군은 약탈물로 기동력이 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불안정해지고 이중적인 생각을 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섯이지만 그들은 넷에 불과하며 수로 보아도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요새화된 위치에서 싸우고 있고 그들의 군대는 노출된 상황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사들은 가족과 집과 소중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곳 지형을 잘 알고 있지만 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청 구덩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그들의 보병과 기병을 그 수렁에 빠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와 달리 요새들은 무너졌고 평원의 왕들과 다행히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곧 혼신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And the vale

of Siddim was full of slimepits; and the kings of Sodom and Gomorrah fled, and fell there; and they that remained fled to the mountain—그리고 싯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로 가득하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이 모든 사태 속에 시로 표현할 만한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하고 비열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취였습니다. 그들의 왕들이 잡혀서 온갖 수치 속에 역청으로 쳐 발려 끌려가는 모습이 꼭 맞았습니다. 속도 추할 뿐더러 길도 더러웠고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였으며 하나님께서 조롱의 대상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B. 미혹에 사로잡힌 형제(14:12)

그 기록은 짧고 각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And they took Lot, Abram’s brother’s son, who dwelt in Sodom, and his goods, and departed—그리고 그들은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취하여 떠났더라.” 롯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평원의 도시에서 거(居)하며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친 때였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또 다른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잠시 그는 순례자의 시늉을 보였지만, 곧 그 수도(首都)의 매력이 너무도 컸기에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악한 도시에 그의 가정을 꾸렸던 것입니다. 소돔을 향해 바라보았던 그는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치고 소돔에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롯은 영혼을 삼키는 위험한 늪지인 소돔 속에 이내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브람이 온갖 고귀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사악한 장소가 주는 치명적인 매력으로부터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브람은 믿는 자라면 가깝게 지내는 그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을 다 했으나 롯은 즉시 그 수령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졸라대는 아내에 이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의 세속적 욕구가 그의 발목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단지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불쌍한 친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미혹에 사로잡힌 남자는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C. 역동적으로 믿는 자(14:13-24)

그 이야기는 잠시 롯을 스치듯 바라보고 나서, 아브람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가 세 가지 면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봅니다.

1. 육신의 연약함(14:13)

“And there came one that had escaped, and told Abram the Hebrew; for he dwelt in the plain of Mamre—그런데 한 사람이 탈출하여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이는 아브람이 아모리인 마므레의 평원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브람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흥, 그렇게 되도 싸지! 그러기에 소돔과 거리를 두었어야지. 주님의 사람과의 교제 밖으로 나가지 말았어야지. 게다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 일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이 세상의 일에 얽혀 들어가서는 안 돼.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해. 아무리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이제 와서 롯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평원의 다섯 왕들이 모든 무기와 군대를 집결시키고도 동방의 왕들을 정복할 수 없었다면, 나도 이기지 못할 것은 자명해. 게다가 나는 농부지, 군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부르셨지, 군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야. 전쟁에 대해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욥신의 연약함으로 말하면 아브람이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천 가지 이유라도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동적으로 믿는 사람이었고, 욥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람이 지어냈을 수 있는 이유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잘 꾸며낼 수 있습니다. 멸망해가는 세상에 직면해서, 요한복음 3:16조차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넘치는 수백만의 사람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유해하고 가증스런 욕망에 사로잡힌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의 필요에 직면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도 돌보아야 할 가족과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2. 세상의 지혜(14:14-16)

세상의 지혜는 신중하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승리한 왕들과 협상을 하라고 제시했을 것이며, 다메섹사람 엘리에셀을 빠른 낙타에 태워 그 나라들의 왕인 아므라벨과 아리옥, 그들라오멜과 디달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 것입니다. “왕들이여, 당신들이 사로잡은 자 중에 롯이라는 이름의 포로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와 그의 가족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노예로 팔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요. 몸값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세상은 아브람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잖아. 돈으로 해결해.”

그러나 아브람은 이러한 타협과 전혀 관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다. 그는 개입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에는 상투적 대응이나 평화주의 뒤로 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의 시간은 지나갔고,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신속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다. 우선 그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즉 “그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총 삼백십팔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양육된 사람들이었고, 필요한 시간에 대응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사용하는 데에 능숙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북쪽으로 신속히 행군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투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아브람은 그들을 소규모로 나누어, 밤을 이용하여 적진에 들어가, 온 힘을 다해 쳐부수고, 혼란에 빠져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갔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은 다른 많은 포로들과 막대한 양의 전리품과 함께 구출되었습니다.

3. 악마의 간계(14:17-24)

이 장(章)을 끝맺는 절(節)들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우선 우리는 아브람과 살렘 왕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14:17-20). 곧 이어서 아브람 앞에 특별히 유혹적인 형태의 시험이 놓입니다. 아브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우려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십니다. 소돔의 왕이 나타나기 전에 살렘의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살렘의 왕은 멜기세덱이었는데, 제사장이자 왕인 그는 구약성경에서 드러나는 주 예수의 위대한 모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실상 주 예수 자신이라고 던지시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는 셈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에 대한 소개는 완전히 역사적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 앞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

는데, 이는 사실상 언젠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주 예수의 몸과 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람은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의미심장한 상징 속에서 갈보리를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러한 표상들에서 십자가를 되돌아보듯이, 아브람은 십자가를 앞서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영적이었습니다. 그는 앞에 선 제사장이고 왕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바치는 것은 예배의 행위이며, 갈보리에 대해 묵상하는 데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예배드릴 때에 자주 그러하듯이,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습니다. 경배와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의 태도로 아브람은 제사장인 왕으로부터 복을 받고 “the most high God,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배웁니다. 이렇게 아브람은 이제 온갖 간교한 힘으로 그에게 덮쳐 올 유혹에 강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살렘의 왕과 중요한 만남을 갖고 나서, 아브람은 소돔의 왕과 불길한 만남을 갖습니다(14:21-24). 살렘의 왕이 그리스도의 전형(典型)이라면 소돔의 왕은 사탄의 전형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위대한 승리 다음에 즉시 영적 위기의 시기가 항상 따릅니다. 사탄은 시간을 놓치지 않고 반격을 가해옵니다. 주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고 나서 즉시 광야로 내몰려서 사탄의 손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아브람이 겪은 유혹은 매우 간교했습니다. “The king of Sodom said unto Abram, Give me the persons, and take the goods to thyself—소돔의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소돔 왕은 영혼을 원했고 아브람은 약탈품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뻔뻔스러움이란 사람의 숨을 멎게 합니다. 아브람이 사람들과 재산 모두를 되찾았지만, 소돔의 왕은 그 사실을 고압적인 자세로 무시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

금 사람의 영혼을 약탈물과 교환하게 만드는 데에 얼마나 영리합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역의 현장을 위해 쓰시려는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가운데 사악한 자의 함정에 빠지고 속아 넘어갑니다.

아브람의 간증은 매우 간단합니다. "I have lift up mine hand unto the LORD, the most high God, the 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that I will not take from a thread even to a shoelatchet, and that I will not take any thing that is thine, lest thou shouldest say, I have made Abram rich—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노니, 실오라기 하나에서 신발 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고, 네게 속한 것은 어느 것도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노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브람은 소돔이나 소돔의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으며 소돔의 이름으로 더럽혀진 것과는 어떤 관계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계시를 막 받았고, 그 계시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 세상이 사람을 부유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는 소돔의 왕의 더러운 손으로부터 오는 것은 무엇이든 결코 소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회상하면서, 또한 영적 깨달음의 새로운 차원에서 기뻐 날뛰는, 세상과 육신 그리고 마귀를 완벽하게 이긴, 역동적으로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룯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이 취하기를 거절한 것을 받아 소돔 왕에 의해 부자가 되어 소돔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영전되어 소돔의 성문에 한 자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을 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 간 것이었습니다.

IV. 믿음의 보증(15: 1-21)

십삼 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1세(Edward I)는 한 이태리로부터

은 예술가 단체에게 영국 조폐청을 위해 동전주조를 의뢰했습니다. 플로렌스의 예술가들은 금과 은의 얇은 판 가지고 전단기로 자르고 망치로 그 조각들을 적당한 모양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공인들은 매 동전을 완전히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치로 두드린 동전들의 둘레가 동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도둑들은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한 실링의 가장자리에서 은 조각을 조금 떼어내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전 깎아내기는 꽤 소득 있는 범죄 사업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은 국가의 화폐주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주조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순전하고 값이 제대로 나가는 동전과 함께 전에 사용되던 깎여진 용량미달의 저질 동전이 함께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모든 금전 거래가 지불시 사용되는 동전을 둘러싼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사법부는 이런 동전을 깎아내는 자들을 소탕하였고, 올드베일리(Old Bailey)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동전 훼손자들에 대해 끔찍한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홀보른 힐(Holborn Hill)로 끌려가서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수많은 정치인, 재정가, 궁전 참모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동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존 번연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명한 우화 “거룩한 전쟁”(The Holy War)에서 맨소울(Mansoul : 인간 영혼)이 어떻게 오랫동안 디아블루스(Diabolus : 악마)의 권세 아래 있다가 마침내 엠마누엘 왕자(Prince Emmanuel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취한 첫 번째 조치 중의 하나는 배신자인 클립 프러미스(Clip-Promise : 약속을 깎아내는 자)를 구속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를 악명 높은 악당이라고 번연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로 인해 왕의 동전이 매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Alexander Whyte)는 그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논평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순 금괴와도 같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호세아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금괴를 가지고 약속들을 자르고 두드리고 제련하고 모양을 내고 각인하고 서명하여, 그 약속들이 구원의 시장에서 통화로써 유통되도록 의뢰받은, 영감으로 가득 찬 예술가들입니다. 클립 프러미스(Clip-Promise)가 잘라내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악용한 것이 바로 그 왕의 초상이 그려지고 새겨진 이 왕실의 동전들입니다.⁴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대단히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람은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결코 약속을 깎아먹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대한 원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는 곧고 좁은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순례자이자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확장시키려고 하였고, 아브람은 또 다시 믿었으며,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코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잘라내거나 악용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A. 아브람의 가족 형성(15:1-7)

4. Alexander Whyte, *Bunyan's Characters, Third Series* (London: Oliphant, Anderson, and Ferrier, 1895), pp. 95-105.

타락해가는 형제를 구하고 되돌리려는 모든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는지 고개를 흔들면서 고민하는 아브람을 뒤로 한 채 롯은 막 소돔으로 즐겁게 떠나갔습니다. 소돔의 왕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모두 되찾은 것에 만족해 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정신이 어떻게 되었기에 아브람이 그의 몫인 전리품을 거부했는지를 그의 재무대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오직 하나님께 대한 기억과 새로운 감사의 마음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아넬과 에스꼴과 마므레는 전쟁에서 그들의 무용담에 관하여 축하의 말을 서로 나누면서 그들이 거둔 풍족한 전리품에 흡족해 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홀로 남겨졌고, 다소 의기소침해지며 좀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혹시나 예기치 않게 드러낸 군사력이 가나안 사람들을 동요케 하여 자신에게 대항하여 동맹을 결성하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아마도 롯의 아이들의 흥분해서 재잘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돌보심으로 그의 가족을 세울 일에 대해 아브람과 이야기를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15:1-4)

아브람의 가족을 세우는 것은 육신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언질(pledge)이 있습니다(15:1). “Fear not, Abram: I am thy shield, and thy exceeding great reward—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아브람아” 하시고는 “너에게는 아직 내가 있잖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멜기세덱을 보내어 아브람을 소

돔 왕의 올라미로부터 보호하심으로써 이미 이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아, 너는 군사적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느냐? 기억하라. 멜기세덱은 왕이고, 나는 너의 방패니라. 재정적인 상황으로 걱정하고 있느냐? 네가 당당하게 거부한 전쟁의 전리품 말이나? 기억하라.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며, 나는 너의 보상이니라. 너는 잃을 것이 없느니라. 아브람아, 너에게는 너를 보호해 줄 왕이 있고, 너를 위해 기도해 줄 제사장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네게는 내가 있느니라.”

언질에 이어서 간구(the plea)가 있습니다(15:2-3). 아브람에게는 이미 세상의 물건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Lord GOD, what wilt thou give me, seeing I go childless, and the steward of my house is this Eliezer of Damascus?—주 하나님이어,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임을 아시운데, 나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나이까?” 모든 것이 완전한 외부인에게 상속하게 생겼는데 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열매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생산될 수 없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그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사래를 탓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사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영적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 남의 탓으로 돌리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계획(the plan)을 드러내십니다(15:4). “This shall not be thine heir; but he that shall come forth out of thine own bowels shall be thine heir—이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요, 다만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데이빗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이 말했듯이, “이것은 가장 엄격하고 신성한 명예의 신사(紳士)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

것으로 종결(終結)이었습니다.”

2.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15:5-6)

“And he brought him forth abroad, and said, Look now toward heaven, and tell(count)the stars, if thou be able to number them: and he said unto him, So shall thy seed be—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별들을 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별들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임스 진스 경(Sir James Jeans)은 우주에는 온 세상의 모든 해변 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한 약속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하계와 성운과 무수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아브람에게 무수한 자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counted it to him for righteousness—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이 그것을 그에게 의(義)로 여기셨더라”고 성경에서 읽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대단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갈데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약속을 믿었을 때가 아니라 그 씨(the Seed)에 대한 약속을 믿었을 때였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한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씨(the Seed)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faith in Christ)입니다.

3.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15:7)

“I am the LORD that brought thee out of Ur of the Chaldees, to give thee this land to inherit it—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받게 하려고 너를 갈데아의 우르에서 데려 내온 주시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학(力學)에는 관성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물체는 운동의 변화에, 즉 운동하도록 하는 어떤 힘에 저항하고, 일단 운동하고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거나 멈추게 하는 어떤 힘에도 저항하는 특성입니다. 관성으로 인해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힘을 항상 가해야 합니다. 이 물리학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갈데아 우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타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멈추어 방향을 돌려 가나안과 천국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LORD that brought thee out of Ur of the Chaldees, to give thee this land to inherit it—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상속받게 하려고 너를 갈데아의 우르에서 데려 내온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役事)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가족을 세우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별들을 우주에 던져 동력(動力)을 발생시키신 똑같은 능력이 아브람에게 그의 “a seed—이삭” 뿐만 아니라 “a Seed—그리스도”까지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여기서는 단지 물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인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B. 아브람의 믿음의 근원(15:8-12)

갈보리가 이제 아브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소유와 자손에 대해 말씀해 왔고, 아브람은 이를 믿어 그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근거가 확실한 믿음은 궁

극적으로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의지하는 데에서 오게 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선, 아브람 앞에 갈보리가 그림자로 계시(Calvary was shadowed)되었는데, 그는 그 신비(the mystery)를 깨달아야 했습니다(15:8-10). “Take me an heifer of three years old, and a she goat of three years old, and a ram of three years old, and a turtledove, and a young pigeon—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취하라.” 왜 이렇게 특정한 희생 제물을 고르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비로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깊고 놀랍고 완벽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갈보리의 여러 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의 신비는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신비는 비틀어 뜯고 찢어지고 피와 고통과 비애로 뒤엉킨 십자가의 온전한 비극이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비극, 즉 그 세대를 거슬러 덮치는 골고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떨면서 그 비극을 느꼈습니다. 그는 갈보리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은 조금이나마 갈보리를 경험하게(Calvary was shared) 되고, 그 비참함(the misery)을 깨닫게 됩니다(15:11-12). “And when the fowls came down upon the carcasses, Abram drove them away. And when the sun was going down, a deep sleep fell upon Abram; and, lo, an horror of great darkness fell upon him—그리고 새들이 그 사체(死體) 위에 내리자 아브람이 그것들을 쫓아내더라. 그리고 해가 질 때에 아브람이 깊은 잠에 들었는데, 보라, 큰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

도끼서 나무에 달린 동안 덮쳤던 그런 공포였습니다. 성경에서 새들은 종종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인간의 영혼을 파먹는 악령들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술개와 깊은 잠, 어두움, 공포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 치러야 하는 대가(代價)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조금일지라도 십자가의 공포가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C. 아브람의 밝은 미래(15:13-21)

하나님의 음성이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시간의 태내(胎內)로부터 불러 나와 자고 있는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가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시는 계획에는 연관된 시간과 연관된 땅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 연관된 구체적 시간(15:13-16)

세 분야에 걸친 하나님의 뜻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아브람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permissive) 뜻이 있었습니다(15:13-14). “Know of a surety that thy seed shall be a stranger in a land that is not theirs, and shall serve them; and they shall afflict them four hundred years; And also that nation, whom they shall serve, will I judge: and afterward shall they come out with great substance—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것이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또한 내가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뜻은 히브리인들이 결국 애굽인들의 노예가 되도록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종종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모두 믿음에 관련되어 직면하게 되는 매우 고통스런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다니엘 데포(Daniel Defoe)는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가 구해준 미개한 식인종 맨 프라이데이(Man Friday)에게 하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미개인에게 영어의 기초를 가르친 후, 그 난파를 당한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능하신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탄의 실체를 소개하면서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그 사악한 자의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맨 프라이데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강하다면 왜 하나님은 마귀를 죽이지 않으시죠?” 로빈슨 크루소는 못 들은 체하고 섬의 다른 쪽에서 프라이데이가 할 만한 일거리를 찾아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짓밟히도록 허용하셨으며, 심지어 애굽으로 인도되는 환경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왜”라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경우에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종이가 다가올 비극과 그의 자손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을 어렵듯하게나마 볼 수 있도록 베일을 잠시 옆으로 치워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personal will)이 있습니다. “And thou shalt go to thy fathers in peace; thou shalt be buried in a good old age—그리고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지내게 될 것이니라”(15:15). 아브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평안히 죽으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재난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최소한 믿는 자에게는 아주 다릅

니다. 죽음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뜻으로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하나님의 예정된 뜻(preordaining will)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자손(seed)에 대한 장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But in the fourth generation they shall come hither again: for the iniquity of the Amorites is not yet full—그러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불법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15:16).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애굽의 히소스 왕들이 들어서서 나일강변 카낙에 거대한 신전을 건축하고 연이어 제국을 건설한 파라오들이 외세의 점령으로부터 애굽을 건져내고 무기를 만들어 에티오피아에서 유프라데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사실을 말합니다. 역사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런 왕들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서 요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무시하십니다. “네 세대 만에 그들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데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암시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에 관련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네 세대만에 이스라엘의 애굽 거주는 끝이 납니다. 레위, 고핫, 암람, 모세, 드디어 모세에 이르러 고통스러웠던 오랜 침묵의 세기들은 갑작스런 결말에 이릅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영향력의 확대와 아모리인의 불법의 성행,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내내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꾸시고, 마침내 인간사에 대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2. 구체적으로 연관된 영토(15:17-21)

우선, 아브람에게 약속된 땅에 대한 보장(guarantee)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It came to pass, that, when the sun went down, and it was dark, behold a smoking furnace, and a burning lamp that passed between those pieces—해가 저서 어두울 때, 일어난 일이니, 그 조각들 사이로 연기 나는 노(爐)와, 불타는 등(燈)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라.” 아브람은 올바른 의례의 형식에 따라 동물들의 사체를 쪼개고 그 조각들을 지시한 대로 펼쳐 놓았습니다.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는 희생물의 조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브람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하나님께서 혼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에게 보장한 땅에 대한 계약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는 자였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결단코 아브람에게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약속한 땅의 광대함 (greatness)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15:18). “In the same day the LORD made a covenant with Abram, saying, Unto thy seed have I given this land, from the river of Egypt unto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그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고 이르시기를,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었나니.”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넓게 펼쳐진 영토는 삼십만 평방마일(칠십칠만 칠천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며 아랍인이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영토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소돔의 왕에게 “I will not take from a thread even to a shoelatchet—실오라기 하나에서 신발 끈 하나에 이르기까지 내가 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아! 물이 풍부한 요단의 평원이나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시나이와 가나안과 비옥한 초생 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과 아라비아까지, 유

프라데스 강을 거슬러 모두가 너의 것이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한 늙은 농부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글쎄요, 하나님께 그분의 몫을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했지요. 나는 하나님의 통에 삼으로 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내 통에 삼으로 퍼 주셨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더 큰 삼을 갖고 계셨을 뿐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삼이 얼마나 큰 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V. 믿음의 담보(16:1-16)

16장에서 아브람의 집안을 들여다보며 최초로 성경에서의 집안 갈등의 실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즉 아브람, 사래, 그리고 영원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여인 하갈입니다. 아브람의 역사에서 그 슬픈 내용을 다룬 부분으로부터 거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 속의 인물들도 우리와 비슷한 열정에 지배받는 남자와 여자로서 실제 인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사정장 차림의 아브람과 멋진 드레스를 입은 사래와 예쁘게 생긴 그들의 하녀인 하갈을 그려본다면, 그 상황은 오늘날의 뉴스에서와 같이 현대적입니다.

상황은 폭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이고 경건한 확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래는 여느 사람과 똑같이 희망과 두려움과 욕구와 욕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아들과 상속자를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원했습니다. 사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원하는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 상태에서 매력적인 여종, 합법적으로 보이는 대안, 세상적인 논리, 그리고 육신적인 해결이 보태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4천 년의 시간도 풀지 못한 너무나 영클어지고 뒤틀린 혼란이었습니다.

A.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시험(16:1-6)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보다 침묵하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말씀처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브람에게 하신 것처럼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속자인 한 아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 보이시고는, 믿음이 발휘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브람에게는, 우리에게서도 너무 자주 보듯이, 믿음이 승리하는 대신에 육신이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1. 아브람의 이중적인 마음(16:1-4)

이중적인 마음은 항상 영적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우선 그 문제(the problem)에 주목합니다. "Now Sarai Abram's wife bare him no children: and she had an handmaid, an Egyptian, whose name was Hagar—그때에 아브람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 주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녀에게는 애급인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더라" (16:1). 문제는 간단히 말해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시된 해결책은 육신을 통한 행동이었고,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하갈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급방식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갈은 십중팔구 아브람의 불행했던 애급에 거주했을 때의 유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애급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애급을 아브람에게서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이 된 것(worldliness)의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그릇된 결정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래의 확실한 불임의 문제에 직면해서, 아브람은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문제에 다른 해결책이 아마도 있으리

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들을 갖는 데 꼭 사래여야만 할까? 하나님께서 그녀로부터 그의 가족이 생겨난다고 실제로 말씀하셨던가? 이와 같이 아브람은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the carnal mind is enmity against God: for it is not subject to the law of God, neither indeed can be—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느니라”(로마서 8:7)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곧 제안(the proposal)이 등장합니다(16:2-3). 제안은 아브람의 아내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브람은 종종 그의 아내로부터 훌륭한 충고를 받아왔겠지만, 이번에 그녀의 충고는 지극히 어리석었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여보, 내가 알게 된 것인데, 여기 가나안 지역에서는 문명인이 채택하기에 가장 개화되고 진취적이고 품격 있는 법전으로 함무라비 법전을 최고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법전에 따르면 당신이 내 종인 하갈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래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법적으로 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대리모를 갖는 거죠.” 그의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브람은 긴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Sarai Abram’s wife took Hagar her maid the Egyptian, after Abram had dwelt ten years in the land of Canaan, and gave her to her husband Abram to be his wife—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녀의 여종 애굽인 하갈을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십 년을 거한 후였더라.”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봅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합니다. 어떤 복이나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하갈을 데려오고 세상의 편법이 채택됩니다. 물론 결과는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과입니다.

곧 아브람과 사래는 그 대가(the price)를 치러야 했습니다(16:4). 하갈은 자신이 아브람의 첫 자식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경멸의 눈초리를 보였습니다.” 아브람의 가정의 복과 화합은 사라졌고, 16년 내지 17년 동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스러운 결별의 대가(代價)를 치르거나 고사야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에서 인내하지 못할 때에 거두는 열매입니다.

2. 사래의 거짓된 마음(16:5-6)

사래가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데에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육신적으로 애써서 이룬 희생입니다. 고상하고 관대하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것(육신적인 희생)이 곧 고역(苦役)이 될 때, 특히 다달이 피할 수 없는 청구서가 되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특히 그러합니다.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들여보내는 속 큰 제안을 했을 때, 그녀는 틀림없이 자기가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희생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이 하갈의 오만한 모습과 비웃음으로 환산된 가격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사래는 이내 자신의 언질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래의 마음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반발심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And Sarai said unto Abram, My wrong be upon thee: I have given my maid into thy bosom; and when she saw that she had conceived, I was despised in her eyes: the LORD judge between me and thee—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그릇된 처사는 당신이 받아야 하리이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주었거늘,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줄 알고서는 눈빛으로 나를 멸시하니, 주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이다”

(16:5). 사래는 “전부 당신 잘못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속에 담긴 뒤엎힌 논리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한 젊은이가 그의 여자 친구로부터 받은 쪽지와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 네가 아직 화 나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변심하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재고한다고 말한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때, 사실은 농담이었어. 이것이 진심임을 믿어줘. 사랑하는 진.” 사래의 논리를 대하는 아브람이 어떤 얼굴을 했을지는 연구대상입니다. 사래는 물론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했을 것이고 그녀의 혀는 단순히 상황의 변화에 대한 깊은 내면의 분노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비난받아야 했고, 그래서 아브람이 이 혀의 채찍질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래의 반항은 길들여지지 않은 성미(untamed temper)로 드러났습니다(16:6). 사래는 하갈에게 자신의 심술을 터뜨렸는데, “dealt hardly with her—하갈을 학대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사래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신약성경에서 실제로 자신의 남편을 “주”라고 부르기까지 가사에서 자신을 단련한 모범적 아내라고 치켜세운 그 여인이란 말입니까? 이 성미 사납고, 속 좁고, 심술궂고, 폭군 같은 사래가 우리에게 알려진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믿음 있고 순종적인 아내란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뒀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제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녀의 보석을 몽땅 훔쳤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낙타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의 여종이 쯤 채하고 멧을 내면서 자기를 깔본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래는 속이 뒤집혀 모범적인 아내로 칠해져 있던 이미지를 망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속이 뒤집히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꿀단지를 뒤엎으면 꿀이 나옵니다. 식초병을 뒤엎으면 식초가 나옵니다. 병을 뒤엎는 것은 그 병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병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속이 뒤집혀 지독하고 불친절한 말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거짓됩니다. 사래의 거짓된 마음이 매우 사소한 일에도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 같습니다.

3. 하갈의 반항적인 의지(16:6)

“And when Sarai dealt hardly with her, she fled from her face—그래서 사래가 그녀를 엄하게 대하니, 그녀가 사래의 면전에서 도망하니라.” 이런 상황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이 하갈을 아내로 삼은 것, 사래가 자기의 여종에게 분노하는 것, 그리고 하갈이 도망치는 것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에서의 시험이 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은 그에게 자연적으로 행하는 대신에 영적으로 행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래가 계속 괴롭혀 하갈이 도망치게 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갈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애급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의 처신에는 특히 통탄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래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 주었고, 사래가 그 불운한 하갈을 괴롭혀 좌절 속으로 밀어넣는 데도 내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사래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란 것이 아브람에게서 배운, 즉 간접적으로 얻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家長)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惡漢)과 다른 모든 문학작품에서 등장하는 악한(惡漢) 사이의 차이를 분간합니까? 전형적인 소설에서 등장하는 악한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은행을 털고,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훔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은 그가 해야 할 일을 단지 내버려두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죽도록 맞고 강도당한 여행자를 버려두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종기투성이인 나사로를 그의 문전에서 죽도록 내버려둔 부자가 그 사람입니다. 또 자신의 달란트를 수건에 싸서 감추어둔 종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악한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브람이 단순히 가정의 머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 영역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험은 여종으로서 실패한 하갈, 여주인으로서 실패한 사래, 그리고 남편으로서 실패한 아브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애급인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이 얼마나 서글픈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갈이 가출했습니다. 그녀는 애급의 이교도의 미신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브람의 가정의 보호 아래로 그녀는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래로서는 그녀에게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영원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갈은 세간(furniture) 하나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니다. 그녀는 이용당했고, 그것도 학대를 당해 그 집안으로부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갈은 마음에 자신이 받았던 처사에 대한 쓰라린 생각을 가득 품고, 또한 아브람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상을 갖고 도망쳤습니다.

B.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실(16:7-16)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자주 내놓는 보잘것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간증에 국한시키지 않으심은 복입니다. 아브

람과 사래가 하갈에게 하나님을 그토록 심각하게 잘못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갈에게 그분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1. 하갈에게 주신 계시(16:7-12)

아브람의 장막들은 멀어져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로 얼룩진 채 도망자는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신속히 시나이를 지나 애굽 국경 근처 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세상 속으로, 사래의 장막에서 겪은 어느 것보다도 더 큰 속박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원한 어둠속으로, 죽음으로, 도금(鍍金)된 땅으로, 자신의 이교도 백성에게로, 그리고 자신의 이교도 신(神)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더 늦어 영원히 돌아설 수 없기 전에, 그녀의 뒤에서 애굽의 문이 영원히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신 분의 나타나심(the coming of the Omnipresent One)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16:7-8). “And the angel of the LORD found her by a fountain of water in the wilderness, by the fountain in the way to Shur. And he said, Hagar, Sarai’s maid, whence camest thou? and whither wilt thou go? And she said, I flee from the face of my mistress Sarai—그런데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발견해내니라.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래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니라.” 하갈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하갈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열심히 뒤따라가고 계셨습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 하갈에게 나타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싸인 그분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의

천사에 대해 언급된 부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호와 천사의 첫 등장인 아브람에게가 아니라 하갈에게, 모든 약속의 상속자에게가 아니라, 한 애급인 도망자에게, 남자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성도에게가 아니라 죄인에게, 지위가 높은 자에게가 아니라 노예에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애급으로 도망가는 자에게 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아마도 여호와 천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의 천사의 모습을 취한 주 예수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두 번째 위격으로서 친구가 없는 자들의 친구이신 분이 몇 세기 후에 살아있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길가의 우물에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난 것처럼(요한복음 4장), 샘물 곁에서 그 버려진 여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사랑하신 것만큼 하갈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떠나면 우르에서 찾아 내셨듯이, 그녀를 찾으셨고 애급 국경 근처에서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부드러움으로 그분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브람의 아내”가 아니라 “사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람의 아내가 된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끈끈하고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나 어떤 예외적인 특권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의무는 주어질지 모르지만, 예외적인 특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놓쳐버린 처지를 똑바로 보도록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돌아서서 생명으로 가는 곧고 좁은 길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그녀의 입술에서 슬픈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나는 도망 하나이다.” 그녀의 앞에는 내일이면 들어가게 되는 넓은 문, 즉 애급의 밤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곧

바른 문과 좁은 길, 순례의 길, 믿음의 대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때에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지전능하신 분은 명하셨습니다. “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unto her, Return to thy mistress, and submit thyself under her hands—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아래에 네 자신을 복종시키라고 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갈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듯이 그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 대한 응답으로써 그 즉각적인 결과는 회심(回心)해야 하는 것이고, 돌이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사래 앞에서 그녀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 속에 싸여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것입니다.⁵

마침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위로를 봅니다 (16:10-12). 통상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에게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주기 위해서

5. 수백만의 사람들은 “짜구려 복음”이라고 불러 마땅한 것에 스스로를 속인다. “오직 믿음”, “그냥 믿어라”고 그들은 말한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신뢰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사거나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도 사실이다. 구원은 모두 은혜이고, 믿음의 원칙 위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며, “행위에서 나지 아니하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헌신도 포함된다. 마귀 들림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약속과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녀가 열매를 맺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And the angel of the LORD said unto her, Behold, thou art with child, and shalt bear a son, and shalt call his name Ishmael—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16:11).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그녀만의 힘으로 다가올 어려운 세월을 힘들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시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예언은 아스마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And he will be a wild man; his hand will be against every man, and every man’s hand against him; and he shall dwell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그리고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하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하리라.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니라”(16:12). 여기에서 정확히 예언되었듯이 시간의 무대 위에서 그 운명적 역할을 이루기 위해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손을 잡으면서 성경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한 예언자를 찾았고, 눈부신 제국을 세워가며, 칼을 들고 그

하셨다. 하나님을 깨닫고 개종한 다소의 사울이 처음 한 말은 “주여, 내게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였다. 도망자 오네시모는 멀리 떨어진 로마에서 위대한 사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골로새에 있는 그의 주인에게로 곧바로 돌려보내졌다. 진정한 개종은 그리스도의 권리뿐 아니라 다른 요구사항들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은 회개, 거듭남, 회복을 수반한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을 포함한다.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들의 신조(信條)를 전파해가면서, 세상의 장벽에 대항하여 야만인들 처럼 그들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아프리카로 눈부신 복음의 지나간 흔적을 쫓아들어가던 크리스천 탐험가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벌써 아프리카에 와서 야만적인 노예사냥으로 그 대륙을 휩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전 세계 석유 매장지에 걸터앉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계속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일으킬 직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 전에 하갈에게 말씀하신, 마치 태아(胎芽)와도 같은 예언 안에 이미 예견되고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싸여진 그분의 위대함이 드러난 놀라운 계시입니다!

2. 하갈의 응답(16:13-16)

그녀의 응답은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말로 드러냈습니다. “And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that spake unto her, Thou God seest me...Wherefore the well was called Beer-lahai-roi; behold—그러자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 샘을 브엘라해로(살아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 불렀으니.” 한 번역자는 브엘라해로를 “인생의 비전(vision)을 주는 우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샘은 하갈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통과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람과 사래하고만 이야기하던 분이 아니시며, 하갈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갈은 이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그녀의 믿음에 생명력을 드러냈습니다(16:15-16). 하갈은 아브람의 장막으로 돌아가 사래에게 자신을 복종시켰습니

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약속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VI. 믿음의 잠재력(17:1-27)

아브람의 고민은 기다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과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초조함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도와 하갈과 결혼하여 일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한 박물학자가 여왕 나방의 고치(cocoon)를 갖고 와서는, 그 껍질을 벗고 나오는 순간을 관찰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그 고치를 자신의 나방 연구실에 몇 달 동안 보관하였습니다. 그 고치는 플라스크 병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나방이 나오려고 하는 목 부분은 좁게 열려 있었습니다. 목 부분은 좁은데 나방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기에 박물학자는 곤충이 갇힌 속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되어 아침 내내 학자는 그 곤충이 애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코 어떤 단계를 넘어설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벗어나려는 몸부림은 나방의 몸에 있는 분비액을 날개까지 퍼지게 해서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박물학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기다리다 지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방이 좀더 쉽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는 가위 끝으로 조심스럽게 단단히 둘러싸고 있는 실을 잘랐습니다. 즉시 나방은 아주 쉽게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날개가 펼쳐지고 부풀러지는 것을 보려는 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개는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바심과 잘못된 친절로 인해 나방은 결코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나방은 단지 성장을 방해받은 조산아(早産兒)로서 무지갯빛 날개로 공중을 날며 지냈어야 할 그 짧은 삶을 고통스럽게 기어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서두르려고 함은 항상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한 결과로 인해 엄숙한 침묵이 이어졌고, 13년 동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더 이상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그는 86세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셨을 때에 그는 99세였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루지 못했고, 그동안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인생에서 기억할 만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미 하신 여러 약속의 실들을 모아 하나의 위대하고 포괄적인 언약으로 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언어로 말해진 것으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모든 역사에 그 자국을 남겼고, 강한 손으로 미래를 지배하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갖고 계신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분적으로, 그 언약의 조항 일부가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에 서기(the Christian Era)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서기 이전의 20세기로 거슬러 가서 말씀하셨던 것에 비추어 볼 때에만 참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A. 언약을 받는 방법(17:1-16)

1. 절대적 복종으로(17:1-3)

이삭이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려면 먼저 믿음이 실행되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아브람에게 자신을 새롭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람은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절대적인 복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 대한 세 이름이 등장합니다. 주(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엘 샤다이)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엘로힘)께서는 아브람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3절). 구약의 여호와(Jehovah)는 신약의 예수이시며, 엘 샤다이(El Shaddai)는 만족케 하시는 분(Satisfier)이십니다. 즉 그분은 믿는 자의 삶에 자기 자신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엘로힘(Elohim)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God)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알리시는 데에 아들 하나님(God the Son), 성령 하나님(God the Holy Spirit),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God the Father)께서 모두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람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계시하시는 내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복종의 상태에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가(代價)도 그에게 요구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는 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조건적이며 결코 아브람이나 그의 자손의 협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절대적 침묵으로(17:4-16)

하나님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아브람은 땅에 엎드려 계속되는 그 약속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16절 사이의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혼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창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혜택은 아브람에게 주어지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일방적 계약을 찬찬히 설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a. 약속의 내용(17:4-8)

우리는 거기에서 한 원칙(principle)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세어보십시오. “나는… 하리라”(I will)와 “너는…하게 되리라”(you shall)라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또 13절에는 명령어법인 “해야만 한다”(must)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너를 다산하게 하리라…내가 네게서 민족들을 이루며…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장에는 최소한 24번이나 그와 같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구속적이고, 반복할 수 없는 계약이며, 그 계약에서 모든 주도권, 모든 의도, 그리고 모든 주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브람 쪽에서의 어떠한 실패도, 그의 후손 쪽에서의 어떠한 잘못이나 잇음으로도 그 선포를 무효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절, 그리고 한 점, 한 획까지 모두 이를 것을 보리라고 스스로 서약 하셨습니다. 그 합의를 방해하거나 정지케 하려는 모든 요소와 힘은 결국 쓸려 내버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에 히브리어 알파벳의 다섯 번째 글자를 첨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다섯은 은혜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는 한 백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17:4-6). “As for me, behold, my covenant is with thee, and thou shalt be a father of many nations—누가 무어라 하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가 되리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 백성은 그의 자손입니다. 어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위대한 합의는 정확히 누가 그 조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지를 명시하는데 신중합니다.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이 그 수혜자들입니다.

그 언약에는 한 기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17:7).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thee and thy seed after thee in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to be a God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그리고 내가 나와 너 그리고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내 언약을 세워 그들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너와 네 뒤를 이을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계약은 영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 블레셋의 언약, 다윗의 언약 등 다른 언약들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들의 어떤 조항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의 언약에 있는 일부 조항들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계속 차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 조항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모든 조항들은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매 단계마다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보장을 무효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약속은 교회가 아닌 한 민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언약의 관계로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질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한 장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And I will give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 the land wherein thou art a stranger, all the land of Canaan, for an everlasting possession; and I will be their God—그리고 나는 너와 네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있는 그 땅을, 곧 모든 가나안의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땅은 아랍인들이 아무리 절규하더라도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스마엘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어진 것입니다.⁶

그리하여 약속의 요지(要旨)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특별한 영토 점유권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장하셨습니다.⁷

b. 약속의 인증(17:9-14)

약속의 인증(印證)은 할례의 의식(儀式)입니다. 칼을 신체에 대어야 했으나, 결코 육신적인 방법으로 약속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인증에 대해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 인증이 연관된 의미를 주목합니다. 그 의미는 보조적인 표시로 쓰인 것입니다. “This is my covenant, which ye shall keep, between me and you and thy seed after thee; Every man child among you shall be circumcised… and it shall be a token of the covenant betwixt me and you—이것이 나와 너희와 네 씨 사이에 맺은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오늘날에도 종종 법적 계약을 맺을 때에 그 합의 조건이 법적으로 효력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이와 같

6. 아랍인들은 새로 탄생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세계적 지지를 감퇴시키기 위해 세련된 미국 내의 주요 광고인, 매디슨 에비뉴 광고 캠페인(Madison Avenue promotion campaign)을 내보내기 위해 거액의 오일 머니를 투자하고 있다. 그 영상은 빼앗긴 팔레스타인 국가와 유대인에 의해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국민에 관한 것이다. 그 시청자는 아랍계 미국인 공동체, 미국 내의 친 아랍기구들, 석유회사들, 자유주의 교회 사람들, 지식인들, 모든 급진 좌파들, 정치적 극우세력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들, 그리고 전통적 반유대주의 중요 패거리들이다. 그러나 아랍국가란 존재한 적이 없다. 그 지역에 마지막으로 존재했던 독립정부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유대 국가였고, 패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유대인의 숙적인 블레셋(Philistines) 민족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

이 할례의 인증은 그 언약의 조건들이 효력 있음을 시각적으로 상기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는 그 약속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조적 표시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의 영적 상징으로, 아브라함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이미 겪은 경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순례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義)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여 죄었고, 보다 약한 형제에게 양보하는 것을 배웠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전투를 치러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는 멜기세덱을 만났고 가족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고 육신적인 수단에 의지하여 외관상 비슷한 씨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가운데, 13년이 지

이라 개명하였다. 그 지역을 마지막으로 통치했던 이들은 영국인들이었고, 그들은 벨푸어 선언(the Balfour Declaration)의 조건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을 양도했다. 그 증서는 훗날 국제연맹에 의해 비준되었다.

7. 일찍이 그 언약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의 경계는 서쪽으로는 나일 강과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임을 선언하셨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상속된 것에서 결코 1/10을 넘게 점유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도래할 날에 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 대항하는 운동을 일으킨 모든 민족들은 결국 쓰레기더미 위로 던져질 것이다. 몇 세기 동안 사라졌다가 현대에 와서 이스라엘 국가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들어서 성취하시려는 중요한 징조이다.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는 귀 기울입니다.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즉 그의 육신에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그의 모든 존재를 바로 가로질러 자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그가 이루어낼 수 없음을 예리하게, 잊힐 수 없게, 고통스럽게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위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통스럽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 이행을 주목합니다. “And he that is eight days old shall be circumcised among you, every man child in your generations—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아이는, 난 지 팔 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여기서 여덟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숫자이며 새로운 시작의 숫자입니다. 음악에서 여덟 번째 음표는 한 옥타브 높긴 하나 첫 번째 음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주일을 보내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맞는 여덟 번째 날, 즉 한 주의 첫째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로 데려 오는 상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 2장과 4장에서 증명하였듯이 할례가 자동적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지는 못합니다. 더더구나 할례는 침례와 아무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입장에서 구원의 믿음(saving faith)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에서 복종하는 믿음(submissive faith)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중요성입니다. “And the uncircumcised man child…shall be cut off from his people; he hath broken my covenant—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아이는…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어겼음이라고 하시니라”(17:14). 만

약 부모가 소홀히 여겨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는 것은 그 아이가 이를 알고 책임을 지게 될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의 책임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언약에 대한 모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할례를 받지 않은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타국인이 되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엄청나고 의도적인 범죄자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c. 약속의 정신(17:15-16)

“And God said unto Abraham, As for Sarai thy wife, thou shalt not call her name Sarai, but Sarah shall her name be. And I will bless her, and give thee a son also of her: yea, I will bless her, and she shall be a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 shall be of her—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래에 관해서는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한 아들을 줄 것이니,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고 하시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더 이상 하갈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자마자 이제는 같은 방법으로 사래의 이름을 다섯 번째 알파벳 글자를 첨가하여 바꾸셨습니다. “높으신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임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왕족의 존엄함이 사래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래”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이고, 분명히 그것은 개인적인 이

름일 뿐만 아니라 애정이 깃든 이름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스런 이름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나의 공주” 대신 사래는 “공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 직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은혜가 고귀하게 만듭니다.⁸

B. 언약을 믿는 방식(17:17-27)

1. 믿음의 웃음(17:17)

웃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서 웃는 웃음은 포복절도할 듯 마음껏 큰소리로 웃는 것을 적절히 절제한다면 영혼에게 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노래 부르며 웃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소름끼치는 웃음이 있습니다. 즉 죄를 비웃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수나 범죄를 재미있어 하며 어리석게 깔깔대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웃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르십니다. 창세기 17장은 또 다른 종류의 웃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웃음(the laughter of faith)입니다(17:17). “Then Abraham fell upon

8.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천국의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의 삶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상스럽고 늙은 영국수상 파머스턴 경은 빅토리아 여왕에게 대담하게도 외설스러운 농담을 했다. 여왕은 그를 아주 쌀쌀맞게 바라보며 말했다.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여왕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이보다 더 저속한 수준으로 살겠는가? 당연히 아니다.

his face, and laughed, and said in his heart, Shall a child be born unto him that is an hundred years old? and shall Sarah, that is ninety years old, bear?—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백 세가 된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그리고 구십 세인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십오 년 전에 아들에 관하여 처음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제 그는 매우 늙은 사람이었고, 사라(믿음으로 그는 즉각 그녀의 새로운 이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매우 늙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 4장에서조차 매우 정확히 명시하고 있듯이 믿음의 웃음을 웃었습니다. “Being not weak in faith, he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an hundred years old, neither yet the deadness of Sarah’s womb: he staggered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그가 백 세나 늙어서도 그의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생각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로마서 4:19-20)

아브라함의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십삼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십삼 년 동안 자신이 참지 못해 생긴 열매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잊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노인인 기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존 번연은 침울함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청교도적 삶 속에서 죄에 대해 무서운 가책 속에 지냈던 지나간 나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나이에 오랫동안 누워있었노라. 그리고 불과 구름과 어둠을 보았노라.”⁹ 이 이야기는 당연히 그가 오랫동안 율법의 무거운 부담 아래 있었고, 죄에 대한 가책 아래 오래 머물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하지 못한 자신의 완전한 무능력함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 해방감(deliverance)이 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시나이의 광경(the vision of Sinai)은 시온의 광경(the vision of Zion)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번연은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서 12장이 나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내게 좋은 밤이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승리감에 넘쳐 침대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연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쌓아두셨던 모든 것을 처음으로 그 영혼에 쏟아부어주실 때의 아브라함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2. 믿음의 이치(17:18-22)

믿음(Faith)은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것처럼 나를 복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또한 복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으며, 배타적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9.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시(Jess)가 드럼토치(Drumtochy)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장로회의(Kirk Session) 앞에 서서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진 이들 사이에서 구성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완고한 노인인 래클란 캠벨(Lachlan Cambell)이 물었다. “당신은 시나이에 얼마나 오래 있었오?” 늙은 래클란은 완고한 판결로 유명했다. “당신은 이 의회에

필요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기쁨의 물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휩쓸어 넘치기를 원합니다.

a. 이스마엘을 위한 간청(17:18)

“And Abraham said unto God, O that Ishmael might live before thee!—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오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이것은 불신(不信)에서 나오는 외침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가호(加護)안으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거룩한 소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아버지의 믿음의 삶에 그의 어머니의 간증이 더해져 자랐음에도 여전히 은혜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 또한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모든 믿음과 순종과 의로움이 자신의 아들을 믿음과 순종과 의로움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b. 이스마엘을 위한 언질(17:19-22)

하나님께서서는 응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 이중(二重)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알고 계신 이스

서 당신이 적법하게 이룬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나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말하십시오” 제시는 절망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전 한 번도 드럼토치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마엘의 마음가짐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이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조롱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은 우선 무엇보다도 그 안에 유보조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And God said, Sarah thy wife shall bear thee a son indeed; and thou shalt call his name Isaac: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him for an everlasting covenant, and with his seed after him—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언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똑바로 알아 두거라. 그 가계(家系)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조항을 밝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왕족의 조항(royal clause)을 주십니다. “And as for Ishmael, I have heard thee: Behold, I have blessed him, and will make him fruitful, and will multiply him exceedingly; twelve princes shall he beget, and I will make him a great nation. But my covenant will I establish with Isaac—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를 복 주었으니, 그로 하여금 다산하도록 하여 매우 번성하게 하고, 열두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러나 나의 언약은 이삭에게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랍 세계는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페르시아 만까지 뻗어 있고,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 부유한 대략 열일곱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 보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일찍이 알지 못한 가장 치명적이고 완강하며 호전적인 오류(誤謬)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3. 믿음의 삶(17:23-27)

믿음의 삶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필요성에 대해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 언약에 대하여 할례의 인(印)을 치는 일에 착수하였습니다.

a. 무제한적인 순종(17:23-24)

네 단계로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어떠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두려움도 방해되도록 허용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분노의 가능성도 장애가 되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완벽한 어버이로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And Abraham took Ishmael his son—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려다가”(17:23). 이스마엘은 열세 살쯤 되었고, 그 나이는 동방에서는 거의 성장한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마엘아, 네가 먼저다.” 이스마엘이 지금 자기에게 시행되려고 하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단지 종교적일 뿐인 의식에 저항했는지의 여부는 모르지만, 만일 그가 저항했다면 그의 불평은 도중에 그쳐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으며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왕다운 품모와 권위 있는 태도, 꿰뚫어보는 눈,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한을 지닌 아브라함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의 뜻에 거스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각없는 젊은이일 것입니다.

어버이로서의 순종에 이어서 족장으로서의 순종이 이어집니다. “And Abraham took…all that were born in his house—아브라함은…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을 데려다가.” 수장(首長)으로서 아브라함의 권위는 자기의 부족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미

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부양자이자 보호자였으며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그의 권위에 복종하며 그의 뜻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들의 족장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보호를 펼친 것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미망인 더글라스(Douglas)가 어떻게 해서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불쌍한 방랑소년 허클베리 핀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크 핀은 자신의 재산과 미망인 더글라스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상류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끌려가서 그 사회 안으로 던져진 것이기에, 그가 겪는 고통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미망인의 하인들이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를 씻기고 빗질하고 털어주며, 친구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진 얼룩이나 때 자국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냉랭한 이불속에서 매일 밤 자야 했습니다. 나이프와 포크를 가지고 밥을 먹어야 했고, 냅킨, 컵, 접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글을 배워야 했고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공손히 말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입속에서부터 김이 빠졌습니다. 고개를 어느 쪽으로 돌려도 문명의 창살과 족쇄는 그를 가로막았고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허크는 3주간을 버티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살던 그 허름하고 빈 돼지우리로 돌아갔고, 먹을 것을 위해 훔친 잡동사니 나부랭이와 담배 한 대의 위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롭고 행복했던 시절에 그를 우스꽝스럽게 보이게 했던 그 누더기 옷”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친구 톰 소녀는 그를 찾아내어 다시 돌아오라고 설득했습니다.

허크 핀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망인 더글라스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모든 것에 등을 돌리고

그 자신의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망인의 집에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조건에 따라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족장 사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의 씨족에 속하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에는 큰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가 그 특권에 수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조건에 따를 때였습니다. 그 할례의 문제에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씨족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족장으로서 하나님께 보인 순종과 같은 종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 그러한 조건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은 자들은 떠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위에 따른 순종입니다. “And Abraham took...all that were bought with his money—그러자 아브라함은...돈으로 산 모든 자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에서, 자신과 언약의 축복 아래 그의 영향력 안으로 모두 데려오려는 그의 갈망 사이에 어떠한 사회적 장벽도 들어서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저기 부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불을 끄어내고 재를 치우고 뜨겁고 그을린 냄비를 들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지저분하고 땀에 젖었으며, 이리저리 밀쳐지고, 천하고 천한 종들 중의 종입니다. 여기에 그 위대한 주인이 몸소 오십니다. 그가 그의 손을 그 소년의 어깨에 얹자 그 아이는 무서워 혼비백산해 있습니다. “아들아, 이리 오너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 냄비 따위는 내버려 뒀다.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너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단다. 내게 임한 영적인 복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구나.” 그리하여 “Abraham took...all that were bought with his money, every male among the men of Abraham’s

house: and circumcised them in the selfsame day, as God had said unto him—아브라함은…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가운데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바로 그 날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였더라.”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종류의 독재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하거나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하신 선한 일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종은 지위에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사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일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개인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And Abraham was ninety years old and nine, when he was circumcised—그리고 아브라함이 구십구 세였으니 그때에 그가 할례를 받았더라”(17:24). 그가 핑계를 댄다면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입니다. 이것은 제 신체 기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약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 일백 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이 지역의 빈곤을 구제하는 데 금 한 보따리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칼을 대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한없는 순종이었습니다.

b. 제한적인 순종(17:25-27)

이 의식(ordinance)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느 의식처럼 두 극단의 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치를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어. 이것은 구원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야.” 본질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데에 토대가 됩니다. 또 다른 극단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의식에 복종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것은 구원의 기반이고, 이것 없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 두 입장 모두 틀렸습니다.

이와 같이 17장은 제한적인 의식으로써 할례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할례가 그 거역하는 자의 상태를 변화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17:25). “And Ishmael his son was thirteen years old, when he was circumcised—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십삼세에, 그때에 그는 할례를 받았더라.” 이것은 의미 있는 진술입니다. 성경에서 열셋이라는 숫자는 거역(拒逆)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역하는 아이였고,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거역하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음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런 일을 조롱했습니다. 할례는 거역하는 자의 마음을 결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의로운 자의 입지(立地)를 바꾸어 놓지도 않았습니다(17:26-27). “In the selfsame day was Abraham circumcised, and Ishmael his son, all the men of his house—바로 같은 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오래 전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례는 단지 그의 마음의 내적 순종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VII. 믿음의 기도(18:1-33)

롯은 소돔을 매우 좋아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소돔이 대단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사업상의 장점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과 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은 불법의 시궁창이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골짜기에 있는 다른 구역들은 혐오스러운 도색적인 타락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곳들을 지도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소돔은 그 자체로 너무나 타락하여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제일 더러운 형태의 성도착(性倒錯)을 상징했습니다.

소돔 같은 모든 곳의 역사(歷史)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결정하시는 때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소돔에 대해 일을 진행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분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그 종에게 새로운 진리의 방침, 즉 철저하게 타락한 문명은 곧 몰락하게 된다는 종말론적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계시는 아브라함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흥미로운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고 성숙하며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대학살의 심판으로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삼켜지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요나는 종말론적인 진리를 대면하자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니느웨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기뻐했고, 그 멸망을 멈출 어떤 일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으며, 그 성벽 안에 살고 있던 수천 명의 조그만 아이들에 대해서도 무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진리에 직면하시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예언자적인 눈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언덕들은 한 세대(世代) 안에 십자가로 까맣게 뒤덮였고 그 십자가마다 유대인들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셨습니다. 저지른 죄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그 도시를 위해 우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진리에 직면해

서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A. 실용적인 사람(18:1-8)

때는 정오였습니다. 하루 중의 그 시간은 동방에서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오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평원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한 순간에 그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눈을 비볐습니다. 정오의 태양의 뜨거운 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때 한 사실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 서두름(18:1-2)

“And when he saw them, he ran to meet them from the tent door—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 문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주 늙은 노인이었고 거의 백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뒤에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심장을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브라함은 그들 중의 한 분이 영광의 주님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직접 방문해 주실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서둘러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달려 나가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고 정상적이고 지각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깊은 존경심을 표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박함이나 호주머니에 손

을 넣는다든지 하는 부주의함이나 스스럼없는 경솔한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집회에 쓸데없는 잡담이나 경박한 험담과 참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들어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in the midst of them—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마태복음 18:20)?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臨在)하심을 항상 깨닫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을 “세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모여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몸소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열망하며 상기(上氣)되어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을 일상적이고 평범한 행사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슬렁거리며 들어와 이사람저사람과 지껄이며 잡담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어떻고 야구 경기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품을 하며 두리번거리며, 하찮은 이런저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이것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집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이를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지 모릅니다. 존경과 두려움과 기대란 것이 어떤 느낌이지 모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거룩한 것에 대하여 마땅하다는 듯이 스스로 허물없이 대함으로써 모멸(侮蔑)을 키우고 있음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님”(Lord)이라고 부르도록 요구하고 계신 분에게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정통한 이 늙은 노인은 “ran...and bowed himself to the ground—뛰어나가...몸을 땅에 굽혀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서두르며 겸손히 낮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경외(敬畏)함을 드러내는 데에 얼마

나 소홀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요나 꾸며서 자세를 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직감의 문제로, 하나님 의 임재에 압도되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2. 손님 접대(18:3-8)

“And Abraham hastened into the tent unto Sarah, and said, Make ready quickly three measures of fine meal, knead it, and make cakes upon the hearth, and Abraham ran unto the herd, and fetcht a calf—그리고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 안으로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고운 가루 석 되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딱딱한 빵을 화덕에서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은 소떼에게로 달려가서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오니.” 거룩하게 보내야 할 오후 휴식시간을 부정하게 하는 이 얼마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움직임입니까. 그러나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퇴근 시간 바로 전에 아내에게 전화하는 남자를 상상해봅시다. “여보, 나 금방 떠나. 그런데 저녁 식사에 내 상사와 사장님과 회장님을 함께 모시고 갈 거야. 15분쯤이면 도착해. 그런데 서둘러 빵 좀 구워줘. 이 중요한 손님들을 정중히 대접하고 싶어. 가게에서 사오는 빵 말고, 당신이 직접 금방 오븐에 구운 빵으로 말이야.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를 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가게에서 내가 사가지고 갈게. 끊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터지면서 당황스러워하겠습니까! “뭐라고? 이 더위에 5분만 여유를 주고 빵을 구우라고? 그리고 스테이크는 어떻게 구워? 이 양반이 숯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아내는 군소리 없이, 조금도 따지거나, 당황해 하거나, 불평하는 눈치를 보이지 않고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십시오. 손님들을 편히 좌정케 해 드리자마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서는, 급히 나가서 고기를 자르고 굽는 것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직접 상을 차립니다. “And he took butter, and milk, and the calf which he had dressed, and set it before them; and he stood by them under the tree, and they did eat—그리고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그는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 그렇게 사려깊이 생각해 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하는 데 그렇게 쉬울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무슨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열핏 감지하게 된 것은 그가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는 즉시 “저는 당신이 하실 무슨 말씀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주께 말씀드리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특별한 부담거리를 주면서도 그는 즉각 대부분의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 그 일로 인해 하늘나라의 주님의 면전에서 달리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B. 특혜 받은 사람(18:9-15)

가족문제와 대외적 관심사를 논하기 위해서 주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경우는 성경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1. 약속(18:9-10)

서둘러 마련한 식사가 다 끝나고 접시들은 치워졌습니다. 우리가

18장에서 하나님을 대하게 됨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주님과 그분의 두 천사가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보통 사람과 실제로 함께 앉아 집에서 만든 빵과 버터소스로 양념한 갓 썬 스테이크를 즐기고 우유 잔을 다 비우는 것을 누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아주 편하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셨겠습니까. 권능의 여호와께서, 해와 별과 은하계를 창조하신 분께서 인간의 음식을 굳이 드시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단다”라고, 그분은 손쉽게 말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앉으셔서 그분께 바쳐지는 음식을 잡수셨고, 그 정성을 다한 식사를 배불리 드셨습니다. 그때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누구신지를 익히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기를 잘라 입에 넣으시면서, “아브라함아, 괜찮다면 그 빵 하나 더 먹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마도 “가브리엘, 거기 있는 소금 좀 다오”라고 하시는 것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음식을 다 드시고 나서 상이 치워지자,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쳐다 보셨습니다. “Where is Sarah, thy wife?—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분은 모르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장막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었습니다. “I will certainly return unto thee according to the time of life; and, lo, Sarah thy wife shall have a son—내가 생명의 때를 따라 분명히 네게로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가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그렇게 하리라고 아셨고, 아마도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신 것처럼, 사라는 당연히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었지만, 이제 그 약속의 개략과 요지가 사라의 열심히 엿듣고 있는 귀속으로도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2. 문제(18:11-15)

그 말씀은 당연히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Now Abraham and Sarah were old and well stricken in age; and it ceased to be with Sarah after the manner of women. Therefore Sarah laughed within herself—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도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전의 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에는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웃음은 완전한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실들은 모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어떤 가능성에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언약의 관계를 맺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웃었습니다. “지금 내가 70여 년이나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라고 사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중조할머니가 될 만큼 늙었는데, 저기 밖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모든 여자를 놔두고 바로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구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스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라는 그런 재미있는 말을 하는 낯선 사람을 한 번 더 보려고 엿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위해 더 열심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말에 머리카락 끝이 곤두섰습니다. “Wherefore did Sarah laugh?—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겁먹어 잔뜩 긴장하다가 사라에게서 불쑥 “I didn’t laugh—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차분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이해하시면서도 부드럽게 (아브라함에게가 아니라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의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사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없는 친절하심으로 하나

님께서서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엄청난 죄를 간단하게 넘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편 130편의 예(例)입니까. “If thou, LORD, shouldest mark iniquities, O Lord, who shall stand? But there is forgiveness with thee, that thou mayest be feared—주여, 주께서 불법을 유의하여 보실진대, 오 주여, 누가 능히 견디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는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은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몸소 내려오셔서 그와 직접 말씀을 나누시고 식사가 끝난 후 한담하는 가운데 사라가 참으로 아들을 갖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특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 만큼 그 아들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타락하고 파괴된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려는 모든 목적이 지금은 그 아들의 탄생에 달려 있었는데, 그 아들은 다음에는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탄생에 직계(直系)를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C. 증명된 사람(18:16-22)

1. 예기되는 위대함(18:16-18)

저녁 식사 후 짧은 가족이야기가 끝나자, 그 세 손님은 일어섰습니다. 그분들은 의미심장하게 소돔을 바라보았으며, 그 시선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의 운명을 읽었습니다. 다른 두 천사들이 그 저주받은 도시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실 때, 잠시 주께서는 망설이셨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그분 자신과 내면의 협의를 진행하시듯 아마도 소돔을 한 번 쳐다보시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쳐다보셨을 것입니다. “Shall I hide from Abraham that thing which I do—내가 하고자 하

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께서는 숙고하셨습니다. “seeing that Abraham shall surely become a great and mighty nation,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in him?—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될 것이요,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늙어가는 종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생각은 아마도 몇 세기 앞으로 내달아 히브리 민족이 갖게 될 그들의 과란만장한 생애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주께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 백성을 통해서 세상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신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한 노인이 그의 손에 역사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장래를 생각할 때,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 개인적인 위대함(18:19)

“For I know him, that he will command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and they shall keep the way of the LORD—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길을 지키리니”(18:19).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서둘러 이스마엘까지도 할례를 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위대한 점의 하나는 자신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 자들에 대한 그의 통제능력에 있었습니다.

3. 지위에 따른 위대함(18:20-22)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협의를 마치신 후,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밝히셨습니다. 그 도시의 끔찍한 죄는 너무나 심각하여, 즉 그들의 악취가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그 추악함의 실제

와 정도를 현장에서 조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몸소 직접 내려 오신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언덕 마루를 넘어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Abraham stood yet before the LORD—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섰더라.” 그는 그 아래 소돔에 있는 롯의 생각으로 가득한 채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말하자면, 구속(救贖)의 장(場)에 서서 롯으로 인해 소돔을 위하여 간청하고 또 간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거룩한 담대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닮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그분의 가슴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셨겠습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의 사역이 이 검증되고 승리한 사람의 행동에서 비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어느 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셨던 것입니다.

D. 기도하는 사람(18:23-33)

현대의 믿음의 거장인 브리스톨의 성스러운 조지 물러(George Mueller)가 기도의 가장 주요한 비밀의 하나를 배운 것은 바로 창세기 18장에서였습니다. 창세기 18장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처지를 간구할 때에 쓸 논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소년소녀 고아들이 그의 고아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고아됨을 주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천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물

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도구였습니다. 고아를 돌봄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하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입니까? 반쪽짜리 믿음의 교회와 전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껄이는 혀들을 잠잠케 하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자와 의심 많은 자를 조용하게 만드셔야 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조지 물러는 기도했고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으로 놀라운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늘로부터 온 손님께 간청하고 간청해가며 떼를 썼습니다.

1. 아브라함의 태도(18:23a)

우선 그는 얼굴을 숙이고 주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drew near-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누리는 특권을 앞당겨서, 말하자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至聖所)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율법의 창살은 아직 박혀 있지 않았습니니다. 단순한 한 미래의 갈보리 땅에서 아브라함은 경외(敬畏)의 마음이 뒤섞인 거룩한 담대함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 아브라함의 논쟁(18:23b-32)

진짜 동방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실상 거래를 했습니다. 동방 시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거래가 진행되는지 알 것입니다.

“이 실크 스카프 얼마요?”

“50전(piasters) 내세요.”

“50전이요? 5전만 하죠.”

그 순간 그 상인은 핏줄이 터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엄청난 무례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의 모든 조상들을 다 불러댁니다. 그는 마침내 말합니다. “45전이오.”

“터무니없어요.” 손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바가지 쓰지 않고도 옆 가게에서 살 수 있어요.” 그는 스카프를 상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경쟁자에 대한 언급이 가격을 더 내리게 합니다. “알라신이 나의 증인이니 나는 망하게 되었소. 30전 내시오.” 그리고 상인은 못마땅해 하며 스카프를 던져버립니다.

손님은 가게에서 걸어 나가 옆 가게로 향하지만, 열 걸음도 떼기 전에 그 가게 주인은 급히 따라 나와 그의 신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요! 20전에 가져가세요.”

그 손님은 가게로 돌아와 상품을 들어 올리고 흠잡듯이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상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실크 손수건을 집어 듭니다. “20전이요. 그리고 이 세련된 다마스커스 비단으로 만든 비할 데 없는 손수건도 덤으로 드리리다. 알라신이 나의 증인이니 나는 망하게 되었소.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딸린 식구들도 많고. 20전에 이 실크 손수건도 공짜요.”

손님은 지갑에서 10전을 꺼내 계산대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스카프를 듭니다. “10전이요, 압둘라. 이게 내 마지막 가격이요. 10전 그리고 그 손수건은 봐두시오.”

아브라함과 하나님간에도 이렇게 흥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시장에서 흥정하듯 흥정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가격을 두고 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수락하실까? 소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영혼이 필요할 것인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지만 또한 대단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한 것입니다. “주여, 만약 오십 명의 의인이 있다면요? 오십 명에서 오 명이 모자라다면요? 사십오 명이면요? 사십 명? 이십 명? 열 명이면요?” 그리고 매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신을 낮추시면서 결국 아브

라함이 열 명에서 멈출 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3. 아브라함의 확신(18:33)

아브라함은 열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열이라는 수에서는 그러한 모든 확신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계에 이르렀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주과수를 잘 맞추고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열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 수가 열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까지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전히 소돔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시간에 응답한 사람은 네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평원에는 다섯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둘은 적절한 증인의 수이고, 그래서 그 골짜기에는 열명의 의로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최소한의 증인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소돔에 열명의 의인은 있으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집에 그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 모두 네 명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성경은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둘이 아닌, 최소한 셋이었으리라고 암시합니다). 그들을 아내들과 함께 계산하면 또 여섯 명이 되어, 다 합하면 열 명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열이라는 수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간청할 특전(特典)을 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 자신의 뜻대로 하셨고, 놀랍게도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된 부담은 롯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사악한 소돔사람들은 멸망당했지만, 믿음 있는 롯과 그와 함께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품성은 완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엄격한 구별의 기준들은 항상 이상하고 광신적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아마도 조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로 부터 결눈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사람들처럼 세상은 이 땅에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존재로 인해 무슨 은혜를 입고 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때,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VIII. 믿음의 위치(19:1-38)

우리들의 타락한 문화에서 소돔의 악한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게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시위행진을 하며 데모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크쇼에서 떠벌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혐오스런 행위를 언제든지 행하려고 그들이 기대하는 권리에 방해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법규를 제거하기 위해 운동을 벌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시장은 심지어 그들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게이 주간”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완전히 도덕적으로 길을 잃은 무기력하게 세뇌된 문화는 그 압력에 굴복해서 그 요구를 수용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게이먼”(즐긴다면), 그들의 몸가짐으로 “게이하게”(즐기게) 두십시오. 진실로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과 그 세계를 벌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게 해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돔은 구약성경에서 6번, 신약성경에서 4번 그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 이름은 성도착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파멸되는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거리를 활보하며 지나갔을 때,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자 그가 선포했던 심판은 취소되었습니다. 대홍수의 심판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의 죄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서 가르치고 있듯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악에 빠진 그 문화는 완전히 포기되어야 하는 문화임을 지적해 줍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떠한 대재앙보다도 소돔의 멸망은 다가올 세상에 대한 심판의 대표적 예로써 우리에게 손꼽힙니다. 예수께서는 “As it was in the days of Lot…thus shall it be i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롯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으리니…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7: 28-30)

소돔의 멸망은 불변의 원칙에 근거하여 유사한 사건을 눈여겨보도록 우리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행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운명과 롯의 일족축발의 상황에서의 탈출은 곧 다가올 세상의 운명과 교회의 아슬아슬한 때의 탈출을 예시해 줍니다.

A. 소돔의 부정한 도덕성(19:1-11)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사악함에 한계를 설정하셨는데, 그 한계를 넘으면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 심판은 대다수가 예기치 못한 것으로, 그 성격에 맞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and sinners before the LORD exceedingly—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서 심히 죄인들이었더라”(13:13)는 판결이 그 도시와 문화에 대해서 성령님에 의해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돔의 부정한 도덕성은 만연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두 명이 수치스러워 밤에 몰래 문을 잠그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

되고 있었습니다.

앞 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문에 앉아 있던 모습을 보았고, 19장에서는 롯이 소돔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소돔의 고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입법기관의 한 일원이 되어 소돔의 원칙을 지지하며, 그곳 사람들의 추악한 특권을 보호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롯은 부도덕한 자들이 비난받을 두려움 없이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도록 돕는 일에 서약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돔의 도덕성이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 판단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어디까지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번쩍거리는 관복을 차려 입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로 둘러싸인 채, 앉아 있는 롯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관행을 묵인하며 더욱이 확실한 관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용맹했던 강력한 사람임을 소돔에서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롯은 미소 짓고, 웃고, 걸으려는 그들과 동의하는 듯이 앉아 있었으나, 소돔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혐오스러운 풍습과 관행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의 혼은 안으로는 잠식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두 천사의 등장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롯에게는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그 바뀐 모습은 거리감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롯에게는 가깝거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동료들에게 그들은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롯은 그들의 모습에서 천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천사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롯은 좌중(座中)에 양해를 구하고 그 손님들을 만나러 서둘러 나가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Behold now, my lords, turn

in, I pray you, into your servant's house, and tarry all night—보소서, 내 주여, 간구하오니, 돌이키시어 당신의 종의 집으로 드셔서, 하루 밤을 묵으시고”(우연히도, 처음으로 집이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갖고 있었습니다. 롯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였습니다. 롯은 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도시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롯은 소돔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기꺼이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롯에게 그들은 통명스러웠습니다. “Nay—아니라.” 그들은 말했습니다. “but we will abide in the street all night—그러나 우리는 밤새도록 거리에서 지내리라”(역시 여기에서 거리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단번에 소돔에 만연해 있는 타락한 도덕성이 시야로 확 들어왔습니다. 소돔의 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그랬습니다. 롯은 그 타락한 지역의 거리에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pressed them—강청(強請)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도시의 행정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는 어떤 범죄와 부패가 소돔의 밤에 활개를 치고 있었는지, 어떤 변태의 음탕한 무리, 즉 야수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그 거리를 지옥에 의해 불붙여진 욕정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돔의 타락한 도덕성은 만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오염된 것이었습니다(19:45). 천상의 손님들은 분명히 마지못해 롯의 접대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롯은 그들 앞에 좋게 말해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영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식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겨우 납작하고 평범하며 맛있는 무교병만 달랑 언급되고 있습니다. 롯의 식탁에는 갓 구워낸 빵도 없었으니, 이 육신적인 사람이 하늘에서 온 손님들을 대접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늘이 그로부터 받아들일

려고 한 것은 무교병뿐이었습니다. 무교병은 그의 삶에서 죄가 제거되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롯의 대문에서는 소돔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이 가증한 부르짖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큰 뱀의 욕정으로 이 소돔의 젊은 패거리들은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며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문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 사내들이 어디 있소? 그 사내들을 데려오시오!” 그들의 시민권이 단단히 잠긴 롯의 집의 문으로 인해 침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감히 소돔에서 밤을 지내려는 외지인들에게 자신들의 무서운 욕정을 강요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란은 점점 심해졌고 롯이 밖을 내다보자 그의 대문 앞의 군중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강아지나 늙은 개나 할 것 없이 소돔의 모든 더러운 개들이 모여들어 혈떡거리고 짖어 대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끔찍하고 지옥같이 이글거리는 열정으로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완전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이 어디 있느냐, 그 사내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마도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야비하고 천박하며 타락한 요구였습니다.

그 부정한 소돔의 도덕성은 집요했습니다(19:6-9a). “And Lot went out at the door unto them, and shut the door after him, And said, I pray you, brethren, do not so wickedly. Behold now, I have two daughters— 롯이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으면서 말하기를, 부탁하건대, 형제들아, 그렇게 악하게 행하지 말라. 보라 이제,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는 그 폭도들과 그 손님들 사이에서 그가 취한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동반자였고, 순례자로서 한때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했던 믿는 자가 소돔의 시정잡배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소돔의

타락한 부도덕이 롯의 가치관을 이런 정도까지 왜곡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필사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도시의 법관이라는 자신의 지위로 이 무리를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문을 등지고 서서 무리들을 대면하여 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떠나가기만 한다면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욕정을 위해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정욕은 그들을 다 태워버릴 불을 내뿜는 큰뱀의 욕정에 비하면 벌레와도 같이 온순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신성한 동방의 접대 방식으로 설득했지만, 잠자코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변태적인 욕구가 불타오르는데 접대의 관례와 통상적인 인간의 체면에 대해 소돔 사람들이 신경 쓸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의 말을 일축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여기 사람도 아니잖소”라고 고함쳤습니다. “비키시오. 이 친구야, 아니면 문 뒤에 있는 자들에게 하려는 것보다 더한 것을 당하게 될 테니.” 소돔의 타락한 도덕성은 집요했습니다. 변태의 한 가지 특징을 든다면,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건강한 몸속에서 자라서 온 몸의 건강을 파괴할 때까지 퍼지듯이, 그렇게 변태적인 욕정은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 삶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소돔의 타락한 도덕성은 호전적이었습니다 (19:9b). “They pressed sore upon the man, even Lot, and came near to break the door—그들이 롯을 심하게 밀어붙여서, 문을 부수고자 가까이 다가가더라.” 그 폭도들은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악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멈추게 하기는커녕 롯은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기만 했고, 순식간에 짓밟히고 집 문은 부서지고 그의 가족과 손님들은 도시가 약탈당하는 것보다 더 심한 공포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정(不淨)한 욕정은 호전적이었습니다. 그 성도착(性倒錯)자들은 더 이상 혐오스러운 행위를 은밀히 행하지 않았고 그 사회의 어느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관대하게 그들의 부끄러운 죄를 즐기고 싶으면 행할 권리를 허용(許容)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간섭하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이며 아주 집요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소돔 사람들에게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았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자신들의 욕정에 탐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졌고, 자신들의 행위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가 가해진다면 도시는 공개적인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부정(不淨)한 도덕성이 만연해 있고, 오염되었고, 아주 집요하며, 호전적이라면, 그 또한 처벌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소돔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러한 행태(行態)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롯의 경우에는 천사들이 실행했습니다. “But the men put forth their hand, and pulled Lot into the house to them, and shut to the door. And they smote the men that were at the door of the house with blindness, both small and great: so that they wearied themselves to find the door—그러나 그 남자들[천사로 온 손님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그들에게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으니라. 그리고 그 집의 문에 있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쳐서 눈멀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지쳐 떨어지더라.” 천벌로 눈이 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고대 철학자는 “신들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우선 미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는 자의 눈을 먼저 멀게 하십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갈수록 심해지

는 상태에 이르면, 그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그 예비과정에서 그는 눈이 멀니다. 그 과정은 다양한 형태를 띠니다. 파라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어 그들로 “거짓”을 믿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오만과 고집으로 범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B. 소돔의 불경건한 정신상태(19:12-38)

이제부터 관심의 초점은 소돔의 더러움에서 롯의 가족 안에 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소돔의 철학이 믿는 사람의 사고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고는, 참으로 세상의 이념에 계속 동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세속화된 롯의 믿음(19:12-26)

밖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이 사납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폭도들은 그들에게 닥친 깜깜한 어둠을 저주하고 밀치며 붙잡았으나, 그래도 여전히 자신들의 음탕한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이 두려움에 심히 떨며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의 손님들을 돌아보며 입에 발린 사과라도 하려다가 말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려고 있을 시간이 없소. 나머지 가족은 어디 있소? 결혼한 자녀들이 있소? 당장 데려오시오. 우리는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오.”

롯의 과오가 무엇이었던 간에,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 그는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가로질러 여러 곳에 흩어져 사

는 자식들의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어느 화가가 그렸다면 굉장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롯이 아직도 그의 문을 부수고 있는 눈먼 사나운 인간늑대들의 허우적거리는 손길을 피해, 어두운 거리를 서둘러 빠져나가, 그의 자식들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긴박함을 설득시키는 모습을 그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롯의 하잘것없는 증언을 잘 새겨 보십시오(19:12-14). 그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자녀들을 깨워 여기 저기 자신의 주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소돔의 긴박한 운명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그는 종말론적인 상태에 처하여 다가오는 심판을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둘러, 어서 서둘러!” 그는 외쳤습니다. “But he seemed as one that mocked unto his sons in law—그러나 그는 그의 사위들에게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더라”(19:14). “늑은이가 미쳤군!” 하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에서 눈물이 앞을 가린 채 왔던 길을 되돌아오면서 길거리의 가게 문 앞에서 떠들썩거리는 탕아의 무리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느라고 울타리 뒤에서 숨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귀머거리들에게 증언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소돔의 남자들과 결혼했고 소돔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수년간 퇴보해서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확신을 담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솟구쳤던 영적인 능력은 소진되고, 롯은 비틀거리며 기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소돔에 삶으로써 얼마나 쇠약해졌는지를 드러내보였습니다. 초점이 롯의 약한 의지에 맞추어집니다(19:15-23). 역동적인 영적 삶은 세상적인 것에서 양육(養育)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그는 출발하기를 주저합니까. 동틀 무렵이 되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Arise, take thy wife, and thy two daughters, which are here; lest thou be consumed in the iniquity

of the city. And while he lingered, the men laid hold upon his hand, and upon the hand of his wife, and upon the hand of his two daughters—일어나서, 네 아내와 여기에 있는 네 두 딸을 데리고 가라. 네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리고 그가 꾸물거리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으니라.” 이 장면이 우리 눈에 선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질질 끌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은 꾸물거리고 도중에서 지체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녀의 보석을 챙기려고 하고, 딸들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롯은 그의 은행통장과 돈 받을 장부를 찾느라 바쁩니다. 영적으로 퇴보한 사람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해지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는 멈추려고 마음먹었습니까. 천사가 그를 간신히 소돔 밖으로 이끌어 내자마자 롯은 가는 길이 가혹하다고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Oh, not so, my Lord… I cannot escape to the mountain, lest some evil take me, and I die—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나는 산으로 피할 수 없나이다. 이는 어떤 재앙이 나에게 일어나 내가 죽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니이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미 멸망의 칼이 높이 들려져 막 내리쳐질 지경에 처한 그 평원의 취약한 도시들에 비하면 산이야말로 진정한 요새였습니다. 산길의 야생 짐승들은 소돔의 사악한 두 발 달린 짐승들에 비하면 길들여진 고양이 새끼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산 위에 던져놓고 잊으시려고 그를 소돔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사고방식으로는 그와 같은 진리를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롯의 정함이 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19:24-26). 천사들의 계속된 독촉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마침내 그 위험지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즉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불과 유향이 높은 곳에서 소리 내며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옥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으며, 멸망한 도시의 울부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롯

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Look not behind thee, neither stay thou in all the plain—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야에도 머무르지 말라”고 천사는 소리쳤습니다. 그 일가족은 불에서는 구해졌지만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을 잊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세상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알포드(Alford)는 롯의 아내의 뒤돌아봄을 정말로 절실한 눈빛이요 아쉽고 연연해하며 그리워하는 눈빛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뒤로 두고 온 자 질구레한 장신구나 도구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자식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쩔든 간에 그녀는 불복종하여 뒤를 뒤돌아보았고 나뉘진 마음을 나타내는 비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재앙의 끝자락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덮치자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세월과 기후로 마모되어 이제 그 슬픈 동상은 사라졌지만, 주 예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시려고 성경에 그녀를 영원히 말씀으로 보존하셨습니다. “Remember Lot’s wife—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7:32)

2. 타락한 롯의 가정(19:27-38)

소돔의 죄와 소돔의 수치에 마음이 편치 않으신 듯, 성령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시기 위해, 그 이야기는 멈추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롯이 어떠한가 했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19:27-29). “And Abraham gat up early in the morning to the place where he stood before the LORD: And he looked toward Sodom and Gomorrah, and toward all the land of the plain, and beheld, and, lo, the smoke of the country went up as the smoke of a furnace—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주 앞에 섰던 곳으로 와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야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니, 보라, 그 지역에서 연기가 마치 용광로의 연기처럼 올라오더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잠조차 설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아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과멸의 세상에서 저 높이 떨어진, 거룩한 땅인 그곳에 서서 단순히 천사가 아닌 하나님 그분을 직접 대면했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심판이 소돔을 덮쳤지만 롯을 향한 그의 기도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조용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는 도망자요 피난민이요 이 땅의 떠돌이요 가난뱅이로 홀로 남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19:30-38). 이 슬픈 구절들은 롯의 딸들이 소돔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딸들이 롯을 술 취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딸들은 더러운 생각을 하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음직한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큰 딸이 동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 뻔뻔하게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당장 소돔의 학교에서 배운 가르침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 제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도도 없고 자신이 제안한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두 딸은 전혀 도덕관념이 없었습니다. 그 딸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처럼 판단했는데, 사실 그 딸들은 그렇기도 했습니다.

이 두 젊은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서 고립되었고, 자신들이 아는 한에서는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를 술 취하게 한 후에 차례로 그 노인을 유혹하여 적어도 임신할 기회라도 가져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수치심, 슬픔, 양심의 가책, 죄의식,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돔에서는 그랬듯이 마치 그들의 행동이 완전히 정상적인 것처럼 노골적인 불의를 자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소돔은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지속적으로 원한에 사무친 대적이 된 두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모압 족속은 정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의에 찬 이웃이 되었고, 암몬 족속은 대부분이 끊임없이 떠도는 유목민이 되어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에 서서 항상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룯의 이야기를 읽고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삶에 아무런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하고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교제에서 일찍이 떠났고, 그 교제를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징표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재앙 가운데 끝을 맺었습니다. 그가 술 취해서 수치스럽게 된 것이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본 모습입니다. 참으로 몇 천 년 뒤에 짧지만 주목할 만한 베드로의 기록이 없었다면(베드로후서 2:7-8), 우리는 중요한 기반이 그에게 전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결론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타락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삶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룯의 아내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IX. 믿음의 여정에서의 위험들(20:1-18)

물론 비극은 아브라함이 전에 한 번 바로 그러한 일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그와 사라가 합의하기는 사라가 그의 아내로 알려지기보다는 그의 누이로 행세하기로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비참한 경험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교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같은 통탄할 실수를 또 다시 그대로 되풀이 했습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아무리 위대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죄와 허물을 적당히 넘기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으로 잘못된 길로부터 긍휼로 구함을 받고도 얼마 못 가서 비슷한 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루이 소돔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전에 그랬었던 것이 같은 실패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과 별 다름없이 비통스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라, 지금 여기를 보시오. 당신도 이 지역이 어떤지 알 것이오. 이 부근의 수령들은 거칠고 완악한 무리들이고, 이 블레셋의 영주들은 특히 강하고 제 멋대로 한다오. 잊어서는 안 되오. 우리는 아비멜렉의 나라에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 들어가는 거요. 알겠소?” 이것이 그 딱한 사건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臨在)하심이 것처럼 독특하게 드러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빨리 형편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물론 이삭의 탄생과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 이동하는 순례자(20:1-2)

아브라함이 왜 이주(移住)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마르레의 평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렵풋하게 그에 대해 본 것은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탄원하던 그 지점에 서서 요르단의 연기 나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어디로 어떻게 도피했는지 궁금해 하며, 그 비참한 파멸에 대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처량한 폐허의 모습에 괴롭다 못해 그가 떠나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는 양떼와 소떼를 모으고 장막을 거두어 한때 그를 애급으로 인도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주(移住)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인도도 없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와 같이 행함은 항상 위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넓은 길을 따라 그 순례자와 그의 가족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And Abraham said of Sarah his wife, She is my sister: and Abimelech king of Gerar sent, and took Sarah—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니라.”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었고, 그녀 자신이 고백하듯이 매우 늙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고 유쾌한 하렘 궁전을 갖고 있는 혈기 왕성한 왕들은 그들의 아내를 두는 데에 늙은 여인들을 고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컨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서 앞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한 준비로써 그녀의 젊음을 새롭게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몇 해 전 한 나이 많은 목회자가 미라로 보존된 유명한 설교자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의 유체(遺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리 감명 깊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 모습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늙은 목회자는 위대한 부흥설교자의 죽은 유체를 보고서 그 모습에 가슴아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지, 자네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 친구여, 나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네. 그렇지만 내가 자네를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자네는 훨씬 더 좋아 보일 걸세. 공중에서 말일세!”

주께서는 휴거(擄去)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사라의 늙어버린 몸에 성형작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래에 위치해 있는 그랄에서, 그녀는 90세의 나이에 그 지역 19세의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0장에서 처음으로 이동하는 순례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 움직였고 하나님에 의해 곧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으시듯이 말입니다.

B. 가련한 선지자(20:3-16)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선지자라 불립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처량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까! 육신적으로 행하는 선지자에게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사생활에서나 공적 삶에서 질책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정직함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정직성을 굽혔습니다.

1. 선지자로서 즉시 인정받지 못함(20:3-7)

확실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나!”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먼저 아비멜렉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지 못한 아비멜렉의 상태를 어렵פות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God came to Abimelech

in a dream by night, and said to him, Behold, thou art but a dead man, for the woman which thou hast taken; for she is a man's wife—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취한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이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결혼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높아서 믿음의 조상의 시대에서나, 율법의 시대에서나, 또는 은혜의 시대에서나 변치 않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율에서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하렘 궁에 데려다 놓았지만, 더 이상 일이 벌어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 날 저녁 그는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의 머리카락이 곤두서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막 무시무시한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 꿈을 꾸었고,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그 새로운 하렘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사라? 그렇지. 사라. 족장 아브라함의 누이지.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고귀한 소양을 가졌을 그 왕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그의 상태에 대한 공포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궁극적인 진리의 실체와 대면하게 하는 데에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의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은 자신이 죄인이며, 죄의 샅은 사망이고 사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꼼짝없이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아비멜렉의 강력한 불평을 듣습니다(20:4-5). 즉시 그는 그 불평을 전가했습니다. “Said he not unto me, She is my sister? and she, even she herself said, He is my brother: in the integrity of my heart and innocency of my hands have I done this—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까지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내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결백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변명할 여지가 없이 행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비멜렉 자신의 성적으로 문란한 태도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사전에는 그가 원하는 어떤 여인이든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기의 소유로 삼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의 의지는 이 일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자신의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정당했습니다. 특히 그의 욕망을 합법적이라는 덮개로 씌웠을 때, 그는 자신의 마음에 찰 때까지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항변, 즉 그의 강력한 불평은 결국 전혀 감동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죄가 컸겠지만, 아브라함의 서투른 짓이 그의 행동에 어떤 변명도 될 수 없었습니다. 처한 상황이 어떠한 간에, 강력한 불평은 그가 고압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원칙들 위에서 행동해 왔다는 사실을 편리하게 무시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항변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사실, 인간의 법은 매우 신축적입니다. 아비멜렉이 법을 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은 그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때 간통이 죄였던 때가 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한때 동성애가 죄로 간주되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법들을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볼썽사나운 경우들을 처리하는 방식은 인간의 욕망에 양보하여 법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아비멜렉의 마지막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20:6-7). 아비멜렉은 자신이 주권적으로 제지당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 강제로 자신의 욕정을 채울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치명적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셨습니다. “And God said unto him… I also withheld thee from sinning against me: therefore suffered I thee not to touch her—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나 또한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그녀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노라.”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모두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천상의 이편(this side of heaven)에서 이상한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로 심각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지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에 이르는 길을 그가 계속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생각은 그에게 여전히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Now therefore restore the man his wife; for he is a prophet, and he shall pray for thee… and if thou restore her not, know thou that thou shalt surely die, thou, and all that are thine—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되돌릴지니, 이는 그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녀를 되돌리지 아니한다면, 네가 반드시 죽고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가 죽을 줄을 알지니라.” 아비멜렉은 사태를 바르게 해놓겠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인적으로 성실하다고 한 그의 모든 주장이 진지하지 않았음을 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떨지 않았더라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이든 아니든, 자신의 정욕에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확실히 밀고나가려고 했을

을 아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의(義)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의 만남에서 그 이교도 왕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불명예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겉으로 보기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고, 그에 따라 그를 예우해야 함을 통고받았던 것입니다.

2. 아직은 선지자로 간주되지 않음(20:8-13)

아비멜렉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사이의 공포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겪은 악몽을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의 신하들에게 또한 엄습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차려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솟아오르는 분노를 신중하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가라앉히면서, 그 블레셋 왕은 아브라함을 솔직하게 나무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부끄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것이 통상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터뜨리고 난 후에 그 격노한 왕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하고 두서없이 늘어놓는 맥 빠진 설명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불신에 찬 고백을 하였고, 사람을 향해서는 스스로 정직하지 못함을 드러냈으며, 자신을 향해서는 스스로 불명예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랬던 것은” 얼굴이 붉어진 믿음의 조상은 더듬거렸습니다. “because I thought, Surely the fear of God is not in this place; and they will slay me for my wife’s sake—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이다.” 얼마나 불신에 찬 대답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너무도 압도되어 격노에도 불구하고 왕좌에 앉았으면서도 떨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아비멜렉의 신하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아연실색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And yet indeed she is my sister; she is the daughter of my father, but not the daughter of my mother—그럼에도 참으로 그녀는 내 누이이니,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이고.” 낮아진 아브라함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나 정직하지 못합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믿는 자에 대해 가장 경멸하는 것이 부정직(不正直)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직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절반의 진실(half-truth)을 악용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러한 속임수에 굴복해야 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똑같은 속임수에 두 번이나 굴복했다는 것은 거의 용서하기 힘든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일곱 번도 아니고, 칠십에 일곱 번을 용서하시는 것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God caused me to wander from my father’s house, that I said unto her, This is thy kindness which thou shalt shew unto me; at every place whither we shall come, say of me, He is my brother—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떠돌아다니게 하셨을 때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곧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나에게 관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푸는 친절이라고 하였나이다.” 그 장대한 교역로를 따라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아비멜렉과 같은 무법의 호색적인 왕들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가슴을 두려움으로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남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떼면, 그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은 끝이 없습니다.

비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그의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부인하게 했으며, 우리로 여러 가지 슬픈 타협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고상한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그렇게 비열하고 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 아비멜렉이 그를 진실로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3. 선지자로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20:14-16)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렸다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암시는 조금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뜬 눈을 새우던 그 날 밤 그에게 그렇게 큰 두려움을 갖게 한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더 이야기 해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랐지만, 확실히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브라함을 더 괴롭게 할 세 가지 일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그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And Abimelech took sheep, and oxen, and menservants, and womenservants, and gave them unto Abraham, and restored him Sarah his wife—그러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되돌려 보내니라”(20:14).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 대한 어떠한 존경심도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식에서 도움을 얻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떨게 만든 하나님께 대해서는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비열한 인간이 선지자라면, 달래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아비멜렉은 생각했습니다. 돈

으로 매수 안 될 사람은 없지.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세상적인 방법, 즉 아브라함이 그에게 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망신시켰습니다. ‘이제 아마 이 자도 내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간 사실을 눈감아 주겠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선생, 당신의 불만을 잊게 만들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소?”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And Abimelech said, Behold, my land is before thee: dwell where it pleaseth thee—그리고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 마음에 드는 곳에서 거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믿는 자가 평범한 정직과 품위를 교육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물리침으로써 아비멜렉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는 아브라함에게 “믿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지. 관대하고, 정직하고, 너그러우며 신실해야지”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줄곧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멸시했습니다. “And unto Sarah he said, Behold, I have given thy brother a thousand pieces of silver—사라에게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천 개를 주었노라.” 아비멜렉이 그의 왕좌에서 일어나 이 말을 할 때, 빈정거리며 날을 세운 그의 목소리와 그의 얼굴의 냉소와 아브람에게 절하는 모습을 누구든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당신, 당신의 오라비에게 은 천량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공주님, 남편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 됐구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걸 그에게 주었을 텐데.” 이와 같은 이별의 빈정댐으로 아비멜렉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우습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선지자이시네!

C. 사역하는 제사장(20:17-18)

아브라함은 그의 물건들을 챙겨 아비멜렉의 궁전을 나오면서 자

신이 얼마나 왜소한지를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의 세련되고 거의 숨김없이 드러내는 빈정거림에 뼈에 사무치도록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 위대함이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였습니다. 아비멜렉에 대해 분개하는 마음을 품는 대신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슬픈 사건에 대해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섬김을 거절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할 만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설교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긴 했으나, 최소한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영역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So Abraham prayed unto God: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his wife, and his maidservants—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시니”(20:17a).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기도 중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 증거를 또 다시 불명예스럽게 하였나이다. 믿음 없는 저의 악한 마음은 당신이 머나먼 우르에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처럼 이교도와 다를 게 없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에 공황을 베풀어주소서. 저는 당신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보여주지 못했나이다. 주님, 당신께서 직접 그에게 보여주소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성공이었습니다.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his wife, and his maidservants; and they bare children—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시니,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진실로, 의로운 사람의 뜨겁고 능력 있는 기도는 매우 효력이 있습니

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경멸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해낸 일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온 세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의 문제의 원인은 죄였고, 그래서 어떤 의사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위대하신 의사(the Great Physician)만이 다루실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사장적 사역의 의미를 듣습니다. “For the LORD had fast closed up all the wombs of the house of Abimelech, because of Sarah Abraham’s wife—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 인하여 주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모든 태를 속히 닫으셨기 때문이었다” (20:18). 동기는 물론 명확했습니다. 그 약속의 자손(Seed)은 사라에게서 나와야 했습니다. 앞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이삭의 탄생을 막거나,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아들이라고 넌지시 암시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탄생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전혀 접촉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미묘한 암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즉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의 태를 닫아 불임케 함으로써 마귀를 당황케 하고 좌절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임의 저주는 아브라함이 이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을 위한 아브라함의 제사장적 사역은 아브라함이 그 궁전을 온전히 벗어나고 모든 의심의 여지가 제거되었을 때에 이루어졌기에, 그 위험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또다시 헛수고한 것이었습니다.

X. 믿음의 상급(21:1-34)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장에 기록된 그의

경험은 대문자로 굵은 글씨에 줄치고 테두리까지하여 영원히 믿음의 진열실에 걸려야 합니다. 다른 주목받을 만한 날들도 있지만, 이 같은 날은 결코 없습니다. 바로 이 날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주변을 다섯 살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늙은 구두쇠 에베에셀 스크루지가 영혼을 뒤흔드는 세 귀신을 만나고 난 후에 깨어나 아직도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스크루지 노인은 기쁨에 도취되어 웃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걸!” 스크루지는 외치면서 웃고 동시에 울었습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며 애들처럼 즐겁고 술 취한 사람처럼 어지럽군.” 그는 자신의 방 주변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작가 디킨즈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정말이지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사람치고는 멋진 웃음이었으며, 가장 화려한 웃음이었고 수많은 웃음 가운데 으뜸이었어.”

근엄한 노인 아브라함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 사내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 아이! 사라의 아이! 하나님의 아이! 우리가 그 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장막 안팎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웃고 낄낄거리고 곁곁거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 앉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장에서 간신히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주한 장인지 모릅니다. 이 장에는 일곱 가지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아브라함, 하나님과 하갈과 만나고, 끝 부분에서는 두 얼굴을 가진 늙은 위선자 아비멜렉이 참견하는 것을 봅니다.

A. 이삭에 대한 엄청난 기적(21:1-8)

애초부터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은 아주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녀석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혹과 고난과 재난을 극복해야만 했습니까. 이삭의 탄생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구체적인 기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예언의 정확성입니다(21:1-2). “And the LORD visited Sarah as he had said, and the LORD did unto Sarah as he had spoken. For Sarah conceived, and bare Abraham a son in his old age, at the set time of which God had spoken to him—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 오셨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니, 이는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그의 늙은 나이에 낳아 주었음이라.” 한 구절에 세 번이나 예언하신 것이 언급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점쟁이와 예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 인터뷰와 상담을 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미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예언은 애매모호함과 오류와 사기로 가득하며 두 말할 것 없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베일을 벗기고 내일 일어날 일을 마치 어제 일어난 것처럼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개월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at the set time—기한이 이를 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9개월 후에 자연의 법칙에 관계없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는 그 성취를 이를 정확성의 기적이 있었습니다(21:3-8). 이삭은 약속되었고,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세였고, 사라의 구십 세였습니다. 사라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I have born him a son in his old age—내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아주었노라.” 아브라함은 웃었으며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

나눔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 작은 아이를 “이삭”, 웃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의 모든 의심과 실망은 떠오르는 태양 앞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삭은 태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어지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의존을, 다른 하나는 성장을 보여줍니다. 우선, 이삭이 여드레가 되는 날 아브라함은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미래의 영적인 번영을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에서 인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할례 의식은 기분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같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기는 순간적으로 칼날이 날카롭게 자르고 들어오자 피를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의 영적인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이삭이 성장한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유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라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 즉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보다도 더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B. 이스마엘의 무서운 조롱(21:9)

“And Sarah saw the son of Hagar the Egyptian, which she had

born unto Abraham, mocking—그런데 사라가 애급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그녀의 아들이 조롱하는 것을 보더라.” 이것이 얼마나 무섭게 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까. 그것은 영성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성이 유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순식간에 보여줍니다. 모든 아담의 자손은 타락한 인간 본성, 즉 죄성을 이어받습니다. 아무도, 가장 경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본성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새롭게 태어난 결과로 옵니다.

이스마엘은 이제 14살 정도 되었는데, 이삭의 탄생으로 그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 해 전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 사실이 그의 반항심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한 성경적 의미와 권위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단순한 종교적 의식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한 반항하는 자로 남습니다. 침례, 할례, 확증, 참회, 그리고 종교가 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어떤 것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경건한 삶을 보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강력한 천사 둘이 방문하였을 때에도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준비해 두신,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스마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의 조롱은 그의 혼의 상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자손을 조롱했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긴 헤롯왕과 같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십대들을 향한 경고의 등불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한창 사춘기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젊은이의 삶에 치열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버지 권위가 시험받고 아버지의 믿음이 도전받는 때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거짓된 철학을 갖추고, 세상은 자신의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으며, 육신 그 자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합니다. 아버지의 “구닥다리 종교”는 어렸을 때에 비해 매력과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건방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새로운 태도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잘못된 친구를 선택하면 청년시절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쯤이면 (아마도 그 나이로 보아서 오늘날의 동년배보다 더 성숙했겠지만, 그래도 십대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였을 이스마엘은 이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조롱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이사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노, 질투, 적대감이 이스마엘의 혼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그 가족 내에서 이사가 드러나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했고, 조롱하는 가운데 그의 혼의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도 내던져버렸습니다.

C. 사라의 전형적인 메시지(21:10)

사라는 이스마엘의 뒤틀린 입술, 그의 얼굴의 비웃음, 그리고 약속으로 낳은 아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롱,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Wherefore she said unto Abraham, Cast out this bondwoman and her son: for the son of this bondwoman shall not be heir with my son, even with Isaac—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청년이 된 소년 이스마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갈과의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였고, 사라의 말은 옳았습니다. 육신은 영의 것을 상속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가혹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편에 섰고 그녀가 옳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¹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괴로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배우기 힘든 교훈입니다. 옛 본성(本性)은 아주 집요합니다. 그러나 새 본성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어집니다. 죄가 갈보리에서 처리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自我)도 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또한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의 개종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성별(聖別)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반복됨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화(聖化)를 말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로 대표되는 옛 본성과 그 행위와 원리는 영원히 폐해져야 하고 박탈되어야 합니다. 이 달갑지 않은 진리는 “in me (that is, in my flesh) dwelleth no good thing—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로마서 7:18)라는 말씀 씀을 직시해야 합니다. 육신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것도 많지만,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에도 복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영

10.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뛰어난 영적 비유로 전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선포한다.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쫓아버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사라의 자신의 영적 통찰력보다 훨씬 앞선 행동을 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밝혀 조명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이것의 모든 근본적인 의미를 되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이 네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네 명 모두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이삭과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의 두 본성, 즉 이스마엘은 육신 또는 옛 성품을, 이삭은 새 성품을 나타낸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열매였고 이삭은 믿음의 열매였다. 한편 사라와 하갈은

원히 내던져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슬프게도 아브라함은 그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애정 어린 관대함과 희망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떠나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특유의 신속함과 완벽함으로 결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상징되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처리함으로써 그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영적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영적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교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무장시켜 아비멜렉의 군대를 칼로 물리쳤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여종과 그녀의 아들의 문제를 처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권세는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행위와 믿음 그리고 율법과 은혜의 법칙을 나타낸다. 새로운 것의 탄생은 오래된 것의 퇴출을 요구한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만이 결단의 발걸음을 댈 수 있었으므로 실행은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모두 처분을 기다려야 했다. 둘은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쫓겨나야 했다. "Cast out the bondwoman and her child—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것은 더 이상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육신에서 난 것은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중간지점인 타협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이 자라고 자리 잡으려면 옛본성과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야 한다.

D. 아브라함의 비극적인 실수(21:11)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The thing was very grievous in Abraham’s sight because of his son—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매우 고통스러웠더라.” 성경은 욱신에 대한 만병통치약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욱신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과 욱신의 산물(産物)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무력(無力)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공상적인 구름이 아니라, 가혹한 십자가입니다. 황홀한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 과정을 마음속으로 통곡하면서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구세군 모임에서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와 그의 아내와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그 모임에 다시 나가 그의 구원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슬픈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아니 글썄, 그 모임에 나온 사람은 모두 나만 빼고 빨간 모직 옷을 입고 있잖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텐트만큼 큰, 아주 멋진 빨간 모직 옷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새 옷을 입고 행복해서 모임에 나갔지만, 여전히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그의 아내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 구세군 모임에 나온 모든 사람은 그 모직 옷에 멋진 하얀색 글자를 수놓았더라고. 내 옷에는 그게 없었소.” “그런데 저는 입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걸요”라고 그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 옷을 저에게 두고 가세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길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가게 창문에 간판을 칠하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가 페인트칠하고 있는 글자를 그대로

베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직 옷에 모든 것을 베껴 넣었습니다. 그 날 저녁 그 친구는 자랑스럽게 새 글자를 그 위에 새긴 모직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멋지게 해냈소”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멋지게 해냈어. 모두 내가 제일 멋진 모직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큼직한 모직 옷 앞에 흰색으로 크게 “이 사업은 새 주인이 말합니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 사업은 이제 부도났다고 선언되어야 합니다. 부도난 것으로부터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새롭고 능력 있는 손에 맡겨집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시작할 때부터 하갈과 동업관계를 맺은 것 자체가 비극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일단 알고 나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사업을 계속하기를” 주장했다면 더욱 비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수단들을 버리고, 자기 인생의 경영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E. 하나님의 온유한 자비(21:12-13)

이야기는 이제 비유적이고 모형적인 것에서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것으로 옮겨갑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면합니다 (21:12). “And God said unto Abraham, Let it not be grievous in thy sight because of the lad, and because of thy bondwoman; in all that Sarah hath said unto thee, hearken unto her voice; for in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인하여 그 일을 네게 고통거리로 삼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이삭에게서 네 씨가 불려내어질 것이기 때문이니라.” 사라는 전적으로 옳

왔습니다. 사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이 “hearkened to the voice of Sarai—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16:2) 하갈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었지만, 이제 사라는 그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이제 이삭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이를 새롭게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육신의 행위를 단절했을 때, 항상 그리스도는 보다 더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소한 일에 붙들려 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자주 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인정함은, 결국 육신적인 편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 순전히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비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Also of the son of the bondwoman will I make a nation, because he is thy seed—그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에게서 또한 한 민족을 이루리라.” 무디(D. L. Moody)에게는 불 속에서 연단시킬 쇠붙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독교청년회(YMCA)였습니다. 무디의 여러 사업들은 하나님의 영의 소산(所産)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디성서연구소의 지속적인 영적 영향력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청년회(YMCA)에서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청년회(YMCA)는 교육, 문화, 사회, 그리고 체육 프로그램에 명성이 있는 국제적 단체지만, 어떤 영적 영향력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디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기관은 발전하고 성장하여 강력한 단체가 되었지만, 그 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운동이었으며, 그의 방식이나 세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만, 영적 세력으로는 파산하

였습니다. 기독교청년회(YMCA)의 지속적인 영적 영향력을 위한 무디의 모든 희망은 유산(流産)되었습니다. 아마도 무디를 위해서였는지, 기독교청년회(YMCA)는 번창하였습니다. 무디는 기독교청년회(YMCA)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청년회(YMCA)에 대해 최선의 영적 선물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청년회(YMCA)가 아니라 성경연구소를 복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복 주셨습니다.

F. 하갈의 눈물 어린 고통(21:14-21)

우선 하갈이 쫓겨납니다(21:14). “And Abraham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took bread, and a bottle of water, and gave it unto Hagar, putting it on her shoulder, and the child, and sent her away: and she departed, and wandered in the wilderness of Beer-sheba—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매워 주고 그 아이도 주어 가게 하니, 하갈이 떠나서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브라함은 왜 이 두 추방자에게 여정에 필요한 물자를 더 풍부하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가죽과 장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재물이든 이 두 방랑자들을 위태롭게만 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들의 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용기를 얻은 산적이나 도둑들이 눈독을 들이게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여하튼 젊은 이스마엘로서는 인생의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그를 사나이로 성장시킬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 배후에 있는 영적 교훈은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 아무것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혹독한 조처만

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을 부추기거나 너그럽게 대하면 다시 공격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쫓겨났습니다. 곧 모든 소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21:17-21). 가족부대의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혹독한 여정에 지쳐서 그 아들마저 완전히 탈진하자, 하갈은 그를 관목 덩불 아래에 눕히고는 앉아 울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에 대해 무슨 생각을 품었겠습니까. 자신을 쫓아낸 그들과 함께 살았던 지난날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육신적 욕망에 빠져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입힌 끔찍한 상처나 목적을 위해 이용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심어준 가혹한 생각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무심(無心)합니까.

그러나 하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21:17-21). 하나님께서는 무대 뒤에서 계속 일하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그녀의 필요를 보살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건지시고 그들의 길로 보내시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운명으로 주어진 일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하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모든 영적 가능성을 단절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습니다. 이미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었던 그의 삶의 저울은 이제 확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삭을 조롱해가며 영적인 것을 경멸했던 이스마엘은 광야를 그의 집으로 삼고 세상을 그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와 이삭의 자손들 사이에는 적개심과 증오뿐이었습니다.

G. 투명하게 드러나는 아비멜렉의 동기(21:22-34)

아비멜렉은 이제 그가 아브라함을 오만하게 다룬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선지자라”는 말이 그의 머리에 박

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이야기에 다시 등장해 청원합니다(21:22-24). 그는 아브라함과 마주치도록 조치했고, 또한 군대장관도 대동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아비멜렉은 그 족장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God is with thee in all that thou doest. Now therefore swear unto me here by God that thou wilt not deal falsely with me, nor with my son, nor with my son’s son—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두고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는데(아브라함이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도), 자기가 용기만 있다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신을 다룰 유리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상상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I will swear—내가 맹세하리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요 신사였으며, 이 두 가지 특성은 항상 공존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아비멜렉이 잘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유일한 후회는 자신의 비열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증언이 형편없게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그에게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신사적인 방법으로 요청받은 대로 아비멜렉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맹세합니다(21:25-31). 실제 사정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적하였듯이 잠재적인 침략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는데 아주 좋은 우물이었고 이 건조하고 마른 땅에서는 가장 탐나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속한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 우

물을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았는데, 이 족장은 말없이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잘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동방의 왕들을 패주시켰고, 소돔의 왕도 그 발 앞에서 절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걸 다르고 속 다르게 그 일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하면서 그 당시의 형식과 관례에 따라 그 우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권리를 확인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지킬 의도는 그에게 없었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모양새는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이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us they made a covenant at Beer-sheba: then Abimelech rose up, and Phichol the chief captain of his host, and they returned in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이와 같이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니, 아비멜렉과 그 군대대장 비골이 일어나, 그들이 블레셋인들의 땅으로 돌아가니라.” 틀림없이 이 두 사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냄에 대해 서로 축하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매우 투명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친분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까운 장래에 그들에게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자기의 소유도 아닌 우물을 포기했으니 훌륭한 흥정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과의 친교는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친교를 위한 기반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존재가 편치 않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 둘의 세계는 영원히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은 아브라함이 조용히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1:33a) “And Abraham planted a grove in Beer-sheba—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작은 숲을 만드니라.” 그는 다가올 날들을 위해 유용한 것과 과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것에 참

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버려두는 한 무엇을 하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경배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21:33b). “And [Abraham] called there on the name of the LORD—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영존하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비멜렉은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가 “the everlasting God—영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봅니다(21:34). “And Abraham sojourned in the Philistines’ land many days—그리고 아브라함은 블레셋인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이 땅은 사실 그의 것이었지만,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와 방식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기꺼이 주실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다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XI. 믿음의 증거(22:1-24)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Sir Edmund Hiliary)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국기를 에베레스트 정상에 높이 올리고 세계의 꼭대기에 오른 첫 번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의 긴 준비의 절정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도울 마땅한 사람을 선발해야 했고, 적절한 장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훈련 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을 드려야 했습니다. 네팔에서 연습을 해야 했고 고지와 혹한에 적응하는 기간도 가졌어야 했습니다. 미리 빙하의 지형조사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보급품을 마련하고, 최초의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등정대원들은 최후의 공격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추위를 뚫고 산정을 향하여 얼음을 찍어

가며 올랐습니다. 발자국마다 위험과 좌절케 하는 어려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재난과 죽음이 갈라진 절벽사이마다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정상을 향하여 가야 할 길을 강행하였습니다. 피로와 사나운 자연의 힘, 산소 부족, 혹한에 대항하면서 그들은 곳곳에 얼음으로 만들어진 벽을 찍어가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 등산가는 벼랑 끝 눈 더미와 암반 사이로 기어올라,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발자국은 눈에 파묻혔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다 소진되어가고 있을 때, 마침내 몇 번의 공격 시도 끝에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에드먼드 경과 그의 동료는 아무도 전에 선 적이 없었던 해발 29,002피트(8,700.6미터)의 정상에 섰습니다. 아무도 이 땅에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또 다른 산이 그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모리아입니다. 두 사람이 정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길을 밀어 붙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그 여정은 험하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더 힘든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산마루에 함께 섰을 때에, 그들은 고귀한 자리에, 즉 이전에 그 누구에 의해서 도달한 것보다도 더 높은 영적인 고지(高地)에 섰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은 한 사람에게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정상을 의미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높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높이 오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전 성경을 통해서 모리아 산보다 더 높은 꼭대기는 단지 한 곳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갈보리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언덕과 비탈을 오르내리며 마지막 그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50년을 준비했습니다.

A.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련해두신 갑작스런 시험(22:1-2)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God did tempt

[test] Abraham—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롯을 시험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롯의 역량을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롯의 알고 공허하고 세속적이면서도 육신적인 삶이 너무 명백해서 시험이 필요치 않았습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시험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후에.” 무슨 일들이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써 절정에 이르렀던, 그 이전의 지나간 모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리고 또다시 되풀이해서 아브라함은 항복하도록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의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 사이에는 요단의 물이 풍부한 평원이 있었고, 소돔 왕의 선물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복할 때마다 그는 그 높이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으며, 언덕들을 경험했고, 저지대의 빙하와 맞붙으면서, 최후의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과 맞붙어라.”

이 놀라운 장(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인간적이신 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책의 모든 표지 안에서 창세기 22장과 같이 갈보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9편,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을 넘기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갈보리가 그 아들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갈보리가 그 아버지께 갖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창세기 22장입니다. “Take now thy son, thine only son Isaac, whom thou lovest, and get thee into the land of Moriah; and offer him…upon one of the mountains—이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거기서 그를…바치라.” 이삭에 대한 요구를 넘어서 그 위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

한 요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하면 고뇌와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입니다. 갈보리가 하나님께 의미하는 것은 그보다 천 배, 만 배가 넘습니다.

“God did test Abraham—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의 때였고, 참으로 엄격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람을 준비해오셨고, 믿음의 학교에서 과정을 따라 작은 시험들을 거치게 하시면서 인내로 그를 지도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해두신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시험들은 예비시험들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무대 위에 갈보리의 위대한 드라마가 모형이면서 전조(前兆)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거리는 아브라함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의 박동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을 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께서 갈보리의 비슷한 비탈길을 오르시는 것을 봅니다.

모리아는 “여호와에 의해 예견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이나 완고하고 오랜 인간의 죄의 비극에 놀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주께서는 모두 예견하셨습니다. 시계를 예로 들어봅시다. 시계의 유일한 기능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문걸이로 사용될 수도 없고, 자동차에 결코 구동력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알려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시계의 기능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며, 그 판에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세상의 회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달력기능까지 갖춘 시계라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 또한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계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기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시계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을 부인(否認)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든지 시계는 빨리 또는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멈추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시계바늘이 더 이상 전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판은 거짓말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발사태를 그 시계 설계자는 예견하고 설계할 때에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간을 맞추고 태엽을 감고 다시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도록 하는 기능을 그 기계 속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설계자는 그 시계가 우주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계에 어떤 작동이 가해져야 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필요한 때에 대비하여 작은 태엽 기능을 설치해서 시계바늘이 다시 맞추어지고 시계가 다시 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모두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죄는 주님에 의해 미리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 창조 계획 속에 구속(救贖)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창공에 태양을 놓으시기 오래 전에 그분은 인간의 타락과 인류의 멸망에 대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참으로 “the lamb slain fro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계시록 13:8)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과거의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모두 예견되었고 또 준비되었었습니다.

“Get thee into the land of Moriah!—모리아 땅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혼을 꿰뚫고 지나 그곳에 있는 저 가나안 언덕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그 영원한 언덕, 모리아 산이 시계(視界)안에 들어오는 저 갈보리에서 어느 날엔가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에게 하실 더 위대한 명령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하신 순수한 믿음(22:3-12)

여러 해에 걸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거듭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In Isaac shall thy seed be called—이삭에게서 네 씨가 불러내어질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삭이 아이를 갖기도 전에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치러지는 매우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길을 배웠습니다. “And Abraham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saddled his ass, and took two of his young men with him, and Isaac his son, and clave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and rose up, and went unto the place of which God had told him—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그가 데리고 있는 청년 중에서 두 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장소로 가니라.” 이미 결정이 난 상태에서, 남은 일은 찢어질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곳은 꿈속에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곳이 되풀이되어 언급됩니다.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부드럽게 굽이진 평원이나 위로 뻗은 험준한 절벽들을 바라보곤 했을 것입니다. 항상 그의 마음의 눈앞에는 그곳의 환영(幻影)이 춤추며 다가왔을 것입니다. “And Abraham rose up early in the morning… and went unto the place—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장소로 가니라.” “Then on the third day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place—그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니라.” “And they came to the place—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니라.”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향해 울려 퍼지는 메아리였습니다. 바로 누

가복음 23:33에서 기록된 메아리였습니다. “And when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그리고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니, 갈보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거기서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앞의 장소는 뒤의 장소를 예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길을 밟습니다. 그는 나귀에 안장을 엮고, 종들을 불러 이삭을 데려오도록 하고, 나무를 쪼개고 길을 나서서,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나머지 사람들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젊은 종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신뢰와 함께) 어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Abide ye here with the ass; and I and the lad will go yonder and worship, and come again to you—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갈보리를 위한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읽습니다. “He taketh with him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began to be sore amazed [sorrowful], and to be very heavy; and saith unto them, My soul is exceeding sorrowful unto death: tarry ye here, and watch. And he went forward a little, and fell on the ground, and prayed—그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매우 근심에 잠기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죽음에 이르도록 매우 슬프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고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조금 앞으로 나아가시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니라”(마가복음 14:33-35). 주님의 생애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도 함께 넘어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홀로 앞으로 나아가셨고, 홀로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얼

마나 고통스러운 대화가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 거기에서, 즉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대화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말씀에 길을 양보합니다(22:6-8). “And 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and laid it upon Isaac his son; and he took the fire in his hand, and a knife; and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 And Isaac spake unto Abraham his father, and said, My father: and he said, Here am I, my son. And he said, Behold the fire and the wood: but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 And Abraham said,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so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손에 불과 칼을 들더라. 그리고 그 둘은 함께 가니라. 그러자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내 아들이 번제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들은 함께 가니라.”

그것이 갯세마네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갯세마네가 주 예수께 무슨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갯세마네가 그 아버지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야만 했습니까? 이삭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갯세마네 동산에서의 피같이 흐르던 땀방울과 비통의 눈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는 어떤 의미를 가졌겠습니까?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그들이 함께 가니라.” 모리아는 이삭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결박되어 몸부림치고 반항하면서 자신의 끌고다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은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제 성인으로 성장한 이삭은 자기 스스로의 생

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나란히 위로 걸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줄곧 두려워했던, 거북하면서도 탐문하듯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 종들은 뒤에 남겨졌고,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그 나무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Abraham took the wood of the burnt offering, and laid it upon Isaac his son—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취하여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니라.” 나무는 계속 거기에 있었으나, 이제 이삭은 자신이 그 무게를 저야 함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저야 할 그 무게는 자신이 앞으로 드러날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의 얼굴에서, 즉 지혜롭고 나이 들어 이제는 매우 처지고 긴장되어 있는 그 얼굴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걸음을 땔 때마다 더욱 무거워집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손에서 그 젊은이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 다른 손에는 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땀이 이삭의 이마에서 흐릅니다. 그가 느꼈던 나무의 무게는 자신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게 지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방울방울 맺힌 채 그는 물었습니다. “Where is the lamb? Where is the lamb for a burnt offering?—어린양이 어디 있나이까? 번제헌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코 얼버무려 넘길 수 없었고, 그저 놀라운 믿음만 있었습니다.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준비하실지 몰랐지만, 준비하시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얼굴을 새삼 다시 보았을

때, 그는 모든 질문을 끝낼 무엇인가를 거기서 읽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만약 앞에 놓인 길이 그에게 두려운 것이라면, 그의 아버지에게는 천 배나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they went both of them together—그들은 함께 나아가니라.” 몇 차례의 질문이 오고간 후에 이 말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삭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이해했고 온 힘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을 느낄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혼을 찢는 비통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앞에 놓인 일을 놓고 그가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지 이해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산마루를 향해 그가 발을 끌며 내디딜 때, 그의 발길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볼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외아들,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그가 힐끗 훑쳐보고 있는 모습을 붙잡을 수 없습니까? 우리는 그의 영혼이 흐느끼고 있을 때, 그 내면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즉 “오, 내 아들 이삭아, 내 아들, 내 아들 이삭아, 너 대신 내가 죽을 수 없을까. 오, 이삭, 내 아들, 내 아들아”라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까?

어둠이 깔린 겿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셨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저 잔을 보시옵소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아무런 어린양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두 분은 함께 가셨습니다.” 동산의 적막 속으로부터 두 분은 폭도들의 손 안으로 들어가셨고, 제사장들과 총독과 헤롯 왕 앞에서의 조롱받는 재판을 향하여, 침 뱉음과 채찍질과 비웃음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분의 아버지께서 보시는 데에서 나무의 무게로 비틀거리시며, 또 그

보다 더 무거운 세상 죄의 무게로 비틀거리시며 아침 햇빛 속으로 나오셔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덕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 두 분은 함께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십자가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And they came to the place which God had told him of; and Abraham built an altar there, and laid the wood in order, and bound Isaac his son, and laid him on the altar upon the wood. And Abraham stretched forth his hand, and took the knife to slay his son—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해 주신 장소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리고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 단 위의 나무 위에 눕히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라.” 각각의 분리된 행동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져오고, 희생물을 묶고, 칼을 드는 각각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칼을 공중에 들어 내리칠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칼을 올려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그 마지막 최종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고통을 겪어야했는지 누가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집어 들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나간 과거가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름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젊은이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린양을 죽였던 때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어린양은 그가 손수 먹이고 키운 양이었을 것입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까불며 장난치고 주인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랑스런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불렀을 때에 소리 내며 그에게 코를 비벼대면서 다가와 목에 맨 줄을 따라 살짝 뛰는 그 조그만 양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마 그 어린양은 제단이 세워진 그곳에서 피 냄새를 맡았을 때에 놀라서 움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간 떨리는 손으로 목에 묶인 줄을 풀고 있을 때에, 그래

도 그 조그만 양은 신뢰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단 위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그의 한 동작 한 동작을 바라보는 그 어린양의 눈물어린 두 눈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은 모질게 마음을 먹어 가면서 자신이 살인자와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일입니다.

드넓은 하늘의 둥근 천장 아래 시간이 흐르는 모든 세대에서 아니면 영원속의 모든 연대기에서 이처럼 어둡고 비극적인 일이 실행된 적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과 같이 나무 위에 올려 못질 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어둡고 두려운 일 전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스스로 죄에 대해 그분 자신의 격렬한 분노의 큰 칼을 드시고, 어둠이 몰려오는 순간에 그 칼을 들어 올려 우리의 죄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지옥을 그 아들에게 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이었고, 그 일은 아브라함에 의해 모리아 땅에 있는 외로운 산 위에서 모형으로써 행해졌으며,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실제로 행해졌습니다.

C.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엄숙한 진리(22:13-24)

그러나 아브라함의 손은 멈추어졌고, 그의 내리치는 칼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붙들렸습니다. “Abraham, Abraham! and he said, Here am I. And he said, Lay not thine hand upon the lad, neither do thou any thing unto him: for now I know that thou fearest God, seeing thou hast not withheld thy son, thine only son from me. And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a ram caught in a thicket by his horns: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 the stead of his son. And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Jehovah-jireh—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그에게 무슨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네 아들, 네 외아들을 내게 망설이지 아니하는 것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그의 뒤에 한 숫양이 덩불에 그의 뿔이 걸려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취하여, 그의 아들 대신에 번제헌물로 바쳤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부르니라”(22:11-14).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것은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 칼이 아브라함의 손에서 멈췄던 것은 결국 이삭이 아니고 예수께 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번제헌물로 어린양 (the Lamb)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난 사람으로서 목인 것에서 풀린 후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삭에게는 어떤 상념이 몰려왔겠습니까. 그 숫양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숫양을 죽기 전에 껴안아 주었겠습니까. 그 숫양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의 불에 눈물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이삭만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양(the Lamb)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가득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집행 연기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형 집행 중지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갈보리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림 중의 하나를 우리를 위해 성경에 그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에서 겪은 잊지 못할 경험은 그 속편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이미 주신 모든 복을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은 자신들의 귀에 울려

오는 새로운 다짐을 들으면서 그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그들은 남쪽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용두사미격으로 이 장(章)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방계(傍系)의 계보는 리브가를 그 이야기 안으로 이끌어 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갈보리의 첫 열매는 교회였습니다. 언약에 의한 직계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Father)의 사랑하는 아들(Son)과 결혼함으로써 그 계보에 포함됩니다.

XII. 믿음의 인내(23:1-20)

어떤 여자들은 자기 나이가 알려지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여자 나이는 러시아 병기고의 최신 비밀무기보다도 더 단단히 보호받고 있는 비밀입니다. 꼬마 윌리가 네 살 되던 해 어느 날, 그의 어머니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아이는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었습니다. 버스기사는 윌리의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가요?” “네 살입니다”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어린 윌리는 계속 질문해 올 것이라 생각해서 그를 올려다보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는 마흔하나예요.”

성경은 보통 여성들의 나이에 대한 침묵을 존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사망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여성은 사라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 나이는 백이십칠 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에 대한 기록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사라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데에 그리 외교적이지 않습니다. 나이를 맞춰 보라는 한 과부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곰곰이 생각하는 젊은 외교관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녀가

재촉합니다. “네,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 신참 외교관은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당신의 모습을 감안하여 십 년 어리게 볼지, 아니면 당신의 지성을 감안하여 십 년 위로 볼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사라는 백이십칠 세였다고 세상 만방에 알립니다. 그것은 주목할 만한, 대단한 나이였습니다.

23장에서 우리는 한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자주 보게 될 장례식 중의 하나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의 삯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받았던 여인 중의 한 명의 장례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 개의 원으로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슬픔, 사라의 무덤, 그리고 에브론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움직임을 신약성경에서 작은 단어(부정을 의미하는) “not”으로 표시되는 세 가지 반론과 연결 지을 것입니다.

A. 아브라함의 애통(23:1-6)

60여 년 간 그 믿음의 조상은 항상 그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라와 함께 약속의 땅 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두 번의 비극적 실수조차 그 중심에 그녀가 연관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라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함께 노력하면서 지냈던 과거의 길고 놀라웠던 세월을 회상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배려해서 아브라함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라고 잠시 멈추십니다(23:1-2). 인생의 비극과 가슴 아픈 일을 놓고 믿음의 사람이 눈물을 흘림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물에 대해 첫 번째 신약성경의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Ye sorrow not even as others

which have no hope—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라”(데살로니가전서 4:13).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시적인 복들을 넘어 아브라함은 “that city which hath foundations, whose builder and maker is God—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히브리서 11:10). 그는 시야를 가리는 눈물사이로 파란 천국의 둥근 천장을 꿰뚫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성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곧 거기에, 마침내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헤브론을 흠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는 복된 곳, 즉 “가나안에서” 죽었고, 교제(fellowship)의 장소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멀리 떨어진 우르에서 미개한 이교도의 여인으로, 달을 숭배자하는 자로서 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사람과 똑같이 불쌍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좀 건방진 말투의 예쁘장한 아가씨로 자랐으며, 우르에서 재산을 불려나가던 한 원기 왕성한 젊은이와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교도였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하늘의 여왕인 달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저 모든 반짝거리는 천체들과 별들을 넘어서, 감감하게 펼쳐진 우단(velvet) 같은 밤하늘 그 너머에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르의 도회지 가운데 살면서 안전한 집에서만 자신의 남모르는 의문들과 이단적인 생각들을 사라에게 귓속말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부신 계시가 있었고, 그 긴 순례의 여행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었지만, “교제(fellowship)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녀는 헤브론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교제의 장소에서의 죽음은 결코 죽지 않는 것을 제외하

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Abraham came to mourn for Sarah, and to weep for her—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하여 슬퍼하며 그녀로 인하여 울더라.” 이 품위 있는 용모에 흐르는 듯 늘어진 수염과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의 차가운 시신 위에 몸을 굽히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그의 뺨에 적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 광경이었겠습니까. 천국에서 주목할 만한 한 성도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웃을 때에 볼 옆에 드러나던 보조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루가 시작할 때에 그에게 햇빛을 가져다주던 미소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종들에게 일을 재촉할 때에 들려오던 사라의 빠른 말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앉아 손잡고 서쪽 하늘로 넘어 가는 석양(夕陽)을 바라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으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비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소망이 없는 다른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이제 본향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두인 유목민의 텐트를 상아의 궁전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눈물을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또한 아브라함의 간증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23:3-6). 한 믿는 자의 간증이 최악의 어두운 세상에서 강렬하게 빛을 발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그 가정에 죽음이 찾아온 이 때입니다. “And Abraham stood up from before his dead, and spake unto the sons of Heth, saying, I am a stranger and a sojourner with you: give me a possession of a buryingplace with you, that I may bury my dead out of my sight—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 체류하는 자라. 당신들에게 있는 매장지의 하나를 내 소유로 주어, 나로 하여금 내 죽은 자를 묻어 내 앞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라.”

“나는 나그네요 체류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증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첫 순간부터 그는 순례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거만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한 그의 이웃들에게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으며, 그들의 땅이 하나님의 선포로 실제로는 자신의 땅이라고 느낀지 비친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간증을 취하는 데에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님과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면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움직였고, 이 세상의 일에는 휘말려 들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항상 도움을 주면서, 언제나 예의바르고 친밀하게 대했으나, 동시에 아브라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즉 호의도, 양보도, 어떤 특별한 존경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의 원칙들은 밤이 낮으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소돔의 왕이나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원칙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무엇을 사게 되면 현금으로 전액 지불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체류자였고 나그네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저 세상을 향한 신념에 인내심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조상 자신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기뻐 받아들이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 체류하는 자라”는 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나그네(stranger). 나그네는 자신이 한 문화와 사회에 자연스럽게 속하지 못함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무리 속에서 불편하

고, 이질적이며, 거부당합니다. 아무리 그가 친밀하다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의 마음은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로구나 하는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느꼈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느끼셨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체류하는 자(soujourner). 체류하는 자는 임시로 거하는 자로서, 그는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시민권과 본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이곳을 잠시 여행하고 있을 뿐이고, 곧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가나안, 바로 그 가나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나뭇가지나 돌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소돔 왕의 형식적인 태도나 아비멜렉의 장황스러운 언동에 대해 아브라함은 비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과 땅이 모두 아브라함의 것임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는 그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대단한 흥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그의 것임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라의 죽음이 그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소년이었을 때에 나는 그 당시 영국의 소년들이면 대개 즐기던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푼돈을 써가며 한 시간이나 두 시간 동안 그 지방 기차역 플랫폼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런던과 영국 북부지방에서 시작되는 주요 장거리 직통간선(trunk lines)이 긴 터널을 거쳐 우리 도시를 지났습니다. 지선(branch lines)들은 탄광이 있는 주변 골짜기로 구불구불 올라갔습니다. 간선은 웨일스 지역으로 속도를 내며 지나갑니다. 결국 1분 내지 2분마다 새 기차가 뿔내듯 증기를 내뿜고 끼익 소리를 내면서 문 두 드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부산한 소리와 함께 도착합니다. 우리는 골짜기 위로 한두 개의 객차를 끌고 가는 작고 요란하며 풍풍 증기를

내뿜는 기관차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거치는 모든 요인들을 무시하는 굉음과 함께 증기와 연기를 크게 내뿜으면서 출발하려고 온 힘을 내는 거대한 기차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어진 유개 화차들이 서로 부딪치고 잡아당기며 중앙선으로 떠밀려 들어오면서 내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그 냄새와 광경과 소리들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비둘기들이 가득 실린 십여 개의 광주리에 호기심이 생겨서 보기 위해 플랫폼 끝까지 설령설령 걸어갔습니다. 한 친절한 짐꾼이 그 용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야야, 우리는 이 비둘기들을 각기 다른 기차에 실을 것이란다. 어떤 것들은 북쪽으로, 어떤 것들은 남쪽으로, 또 어떤 것들은 웨일즈로, 또 어떤 것은 동쪽으로 다시 보내진단다. 모두 정확히 같은 거리로 보내지. 이들은 경주용 비둘기들이란다. 그리고 내일모래 정확히 12시에 이들을 풀어 내보낼 거란다. 비둘기들은 하늘로 날아 한두 번 공중에서 회전하고는 곧장 집으로 향할 거란다.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자기 집에 도착하는지, 그걸 보려는 거란다.”

나는 자주 그때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를 닮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본향으로 회귀하려는 본능도 갖고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며,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영광스러운 땅을 갈망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도록 하고 곧고 좁은 길을 걷도록 가르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그네요, 당신들 가운데 체류하는 자라”고 그는 헛의 자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매우 교훈적이었습니다. “Thou art a mighty prince among us—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이시니.” 그들은 룻에 대해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일에 휘말

리기를 거부한 구별된 믿음의 사람, 또 룯에 의해 실제적이지 않고 배타적이라고 여겨진 아브라함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생각은 이 세상의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해야 하고, 이런저런 자리에 있어야 하며, 이 모임 저런 활동에 적극적으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룯의 철학이었으나, 아브라함의 철학은 아니었습니다. 웨일스 지방의 무식한 광부 에반 로버트(Evan Roberts)는 석탄 냄새가 났을 입을, 웨일스의 벽촌에서 자라났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광신도로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60여 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대영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한 개인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아 웨일스의 부흥에 불을 지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웨일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미국에까지 수년 동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B. 사라의 무덤(23:7-18)

사라의 무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녀의 무덤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온 가나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유일한 토지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는데,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far off—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니 그 약속의 이행은 받지 못하였으나,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히브리서 11:13). 아브라함은 하나의 작은 동굴과 작은 밭이 실제 자기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전부라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겨우 이것을 위해 인생 전체를 쏟아 부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

의 삶 전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쏟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게 되어 나일 강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약속의 땅 전체가 언젠가는 그의 자손의 소유가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 아주 조그마한 의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묘지 소유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첫째로 그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23:7-8).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지 않은 태도를 갖는다는 인상을 줘니까? 주 예수께서는 사람에게 대하여 몹시 예의 바르게 행하셨습니다. 공손함은 사회적 자산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의 서간문을 아무리 대충 읽더라도 그런 태도가 분명한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돌무덤을 선택하도록 제의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곧 공손한 태도로 답합니다. “And Abraham stood up, and bowed himself to the people of the land, even to the children of Heth—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즉 헷의 자손들에게 몸을 굽혀 절하니라.” 그것은 은혜로운 사회적 관습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양심에 어떠한 가책이 되는 일에 타협함이 없기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청했습니다. “Entreat for me to Ephron the son of Zohar—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청하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련되지 않은 얼빠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양 있고 예의범절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겸손한 신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거래에서 신중했습니다(23:8-18). 그 무덤은 그에게 정말로 너그럽게 보이는 마음으로 분명히 선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액면 그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관습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랍 사람은 당신이 부주의하여 드러내놓고 감탄하면 그의 집에 있는 어떤 것이든 즉시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의 자손들이 말하는 대로 그것들을

가져간다면 놀라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브론의 동굴을 사기 위해서 협상을 벌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형적으로 문화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흥정의 건을 착수했고(23:8-9), 그 관례를 충족시켰으며(23:10-13),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해서(23:14-18), 다 마쳤을 때, 그 무덤과 소유권은 은전 사백 개로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에브론은 자신의 재산을 최고가로 불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언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이 단지 장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최고의 흥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My lord, hearken unto me: the land is worth four hundred shekels of silver—내 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땅은 은 사백 세겔에 해당되나” 라고 말하면서 그는 서둘러 덧붙여 말했습니다. “what is that betwixt me and thee? bury therefore thy dead—나와 당신 사이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그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23:15). 아브라함은 값을 깎기 위해서 몸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장터에서 늘 있는 모든 주고받는 흥정을 생략하고, 그는 간단히, 그리고 위엄을 잃지 않는 품위로 제시한 첫 번째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C. 에브론의 선물(23:19-20)

“After this, Abraham buried Sarah his wife in the cave of the field of Machpelah before Mamre: the same is Hebron in the land of Canaan. And the field, and the cave that is therein, were made sure unto Abraham for a possession of a buryingplace by the sons of Heth—이런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묻으니,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 그리고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헷 자손에 의해서 아브라함

이 소유한 매장지로 확정되었더라.” “내가 드리고, 드리고, 드리오 니.” 에브론은 거듭 거듭 한 절에서 세 번 씩이나 외칩니다(23:11). 이와 비교해서 신약성경 본문을 한 번 더 제시해보입니다. “My peace I give unto you: not as the world giveth, give I unto you—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27). 세상은 주지 않고(not give) 가져갑니다(takes). 요나가 세상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배를 발견하고 “배 샀을 지불했습니다.” 그는 지불했습니다(pai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주시는 분(giver) 이십니다.

에브론은 결코 아브라함에게 그 동굴과 밭을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흥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에 대해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는 충분히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나는 라디오에서 25달러를 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에게는 크고 비싼 성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내게 무엇을 주면 나도 무엇을 당신에게 주겠노라는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 에릭 번(Eric Berne) 박사는 그의 베스트 셀러인 「사람들이 하는 게임」(*Games people play*)이란 책에서 우리들은 어떤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는 악수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비탄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여 눈물 흘렸으나, 위로할 길이 없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시험을 맞이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너무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듯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천국에서 다 정해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헛의 아들들의 얼굴이 교활하고, 관대한 척 웃음을 띠며, 비밀스런 속셈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배반을 마음의 평정으로 맞았고, 사람의 말은 믿을 수도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

습니다.

XIII. 믿음의 삶에서의 경계(24:1-67)

성령께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24장에서 시간을 끄시면서 사랑으로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세세한 내용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결혼이 보다 높고 보다 거룩한 관계를 비춰주기 위해 의도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에베소서 5:21-33).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로써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희생제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면서 모리아 산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일단 교회가 인간사(人間事)속으로 소개되자, 이스라엘의 지위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의 모형을 보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로서 교회의 모형인 리브가가 바로 사라의 장막 안으로 인도됩니다. 이 장(章) 전체는, 당시의 지방적 색채와 따뜻함으로 가득한 재미가 있으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취(取)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A. 지혜로운 체류자(24:1-9)

“And Abraham was old, and well stricken in age—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연로하였고”(24:1). 유대인들은 노년기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우선 육십 세에서 칠십 세까지는 그들이 부르기를 “노년의 시작”이라고 하고, 칠십 세에서 팔십 세까지는 “백발의 나이”라고 하며, 팔십 세 이후에는 “연로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백사십여 세가 되었고 이삭은 사십 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늙은 믿음의 조상은 가나안에서 그의 주변에 대해 보는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갖고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세상적이고, 사악하고, 음란한 무리들이었으며, 진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무서운 형태의 이교도의 우상숭배의 뒷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들 중의 하나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려진 여행가였던 모턴(H. V. Morton)은 언젠가 낙타와 나귀가 쟁기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나귀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낙타도 당연히 다른 동물과 함께 가까이 묶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낙타나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만하고 멸시어린 태도로 그 나귀를 흘겨보았습니다. 그 작고 불쌍한 나귀의 어깨는 멍에의 무게로 온통 짓눌려 벗겨졌습니다. 어느 쪽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멍에는 그것이 사업이든, 종교든, 또는 결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삭이 이처럼 다른 멍에를 메게 된다는 생각은 아브라함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그의 아들에게 적합한 신부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궁리는 수십 년 전 그 자신이 증거의 열매를 맺었던 머나먼 하란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를 직접 알지는 못했을 지라도, 그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22:23).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나서서 자기의 종을 보내어 그의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영원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에 관해서 스스로 상의하십니다. 그분의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적합한 배필을, 그의 높은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부를 취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로 성령님을 보내시어 그 신부를 찾으시려고 하셨으나, 갈보리에서 그 길을 닦고 난 후에야 하셨습니다.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th blessed us with all spiritual blessings in heavenly places in Christ: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곳곳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으니,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에베소서 1:3-4)

B. 놀라운 종(24:10-28)

그 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의 집안에서 가장 늙은 종”(24:2)이라는 사실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셀(15:2)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의 모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분의 기쁨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그 아들에게 주의를 돌리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도 그 모형이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집행은 성령님께 위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 즉 피 값으로 산 신부를 찾기 위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오셨던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그 종은 항상 아브라함의 뜻과 이삭의 관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받고 그 종은 길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

했습니다. “He arose, and went to Mesopotamia, unto the city of Nahor—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은 당시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상당히 긴 여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요단 강가의 골짜기로 올라가 다메섹을 지나 비옥한 초생 달 지역(the Fertile Crescent)을 돌아서 “동방의 중심”으로 갔고, 마침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그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행은 목적 없는 유랑이 아니었으며 철저하게 계획된 장정(長征)이었습니다. 좋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좋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인 시험을 제안했습니다. 여인들이 우물가에 오면 그는 마실 물을 청할 것이고,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소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리의 낙타는 약 다섯 갤런(약 이십 리터)의 물을 마실 것이고, 그 좋은 열 마리의 낙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오십여 갤런의 물을 우물에서 날라다가 구유에 붓는 일은 큰 짐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은 아주 좋은 아내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리브가가 다가왔고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습니다. 그 좋은 즉시 그녀의 기꺼이 섬기는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이자 베두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빠르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 좋은 리브가의 집으로 초대받아, 그곳에서 자신의 큰 임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를 찾으러 이국땅으로 왔고,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신부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꾸밈이 없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이 분명하였습니다. 즉 자연적인 것에 초자연적인 것이 덮어씌운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연한 만남은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하늘나라에서 계획되고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종이 이삭의 목적과 주장을 내어놓자 리브가는 온 마음을 다해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짜이는 바로 그 인간의 이야기라는 직물에서 우리는 다른 금실로 된 훨씬 더 위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우리는 위대한 임무를 갖고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서 사랑받는 그분께 여기에서 한 마음을, 저기에서 한 마음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은 가끔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임무는 그 아들을 잘 이해하게 하고 그 아버지와 그분의 경이로운 길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임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성령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환경들을 이용하여 그분의 목적을 추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결코 강요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며, 위압적이거나 혼을 홀리기 위해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수단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런 방문,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 친구가 건네준 책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는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고 결정의 시간이 옵니다. 이것이 리브가에 대한 그 종의 방법이었고, 영혼에 대한 성령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C. 세속적인 죄인(24:29-33)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종이 첫 번째 선물을 리브가에게 주었을 때에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뛰어가 이 놀라운 소식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And Rebekah had a brother, and his name was Laban: and Laban ran out unto the man, unto the well—리브가에게는 한 오빠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24:29)

라반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를 감동시킨 것은 이 놀라운 이야기나 그에 따른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에게 중요한 것은 선물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그 종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선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종이 가져온 값진 선물들을 그의 손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And it came to pass, when he saw the earring and bracelets upon his sister’s hands, and when he heard the words of Rebekah…that he came unto the man—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그 사람에게로 오니” (24:30). 귀걸이와 팔찌들이 라반에게는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신이 바라던 바라지 않던 간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야 했습니다. 종의 임무는 이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그 와중 내내 이 세속적인 사람의 눈은 선물에 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중에 라반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의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됴됨이, 즉 돈만 뜯어낼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이용해 먹을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라반은 삶의 영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어떤 진실한 관심도 없이 하나님께 입 발리는 소리만 하려고 하는(24:50),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는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라반은 선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라반에게도 처음에 선물을 주었지만(24:53), 곧 그는 그 종의 주요한 일을 방해하고자 애쓰기 시작했습니다.(24:55-56)¹¹

라반은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선물이 그의 세속적인 마음을 녹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아

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세속적인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 진리가 드러났음에도 그는 조금이라도 선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지만, 틀림없이 그 선물도 그의 마음을 오래 끌며 붙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라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에는 냉냉하고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D. 자발적인 성도(24:34-61)

리브가의 경우에서는 아주 다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으로 인해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번도 그를 본 적이 없고 참으로 그 종의 말을 통해서만 그를 알게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이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이미 리브가는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Wilt thou go with this man?—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24:58)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한 사람을 결정의 순간으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상황을 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
11. 라반은 기독교사회에서 많은 상속자와 후계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안의 실제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그분으로 충만하게 하며, 놀라운 역사를 하시지만, 그것은 단지 스쳐가는 감명만을 줄 뿐이다. 그들은 그 메시지의 본질과 핵심은 자주 무시하지만 믿음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익”에는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다. 라반과 같은 이들은 “선물”(gift)에 마음을 빼앗

문제를 결코 밀어 붙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사람을 정해놓은 선(線)너머로 밀어내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대신해 결정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종은 그의 앞에 공개적으로 펼쳐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였지만, 결정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결정하도록 하는 일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압적인 자세로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경우에 꾸밈없는 사실들을 제시했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와 그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저 먼 나라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에게 그녀 자신을 맡기도록 리브가를 초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그녀에게 달렸습니다.

틀림없이 리브가는 그 초청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백 가지라도 궁리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이야기가 진실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라던가, “지금 내 생활방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도 꽤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듯이, 어떤 핑계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즉각 순종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삭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마음을 준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길고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틀림없이 멋진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더 위대한 이야기의 금실이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의 직물에 짜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종은 보호하고

긴다. 라반은 그 종(從)과 그의 선물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겨서 이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현대판 라반들은 성령과 애초에 일시적인 의미만을 가졌던 은사표적(the sign-gifts)에 매달린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사들”을 탐내고 소유하기를 갈망한다. 그 종이 선물을 준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를 입증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이삭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일단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인 것이다.

인도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알고 있었습
니다. 리브가가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면서도 실수하도록 놓아두지 않
았습니다. 그녀가 안전하게 새 가정으로 인도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기로
한 자들을 즉각 인도하기 시작하시며, 우리를 무사히 본향에 이르도
록 돌보는 일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는 리브가가 이삭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리브
가는 백여 개나 되는 묻고 싶은 질문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키가
큰가요? 피부가 검은가요? 잘 생겼나요? 몇 살이죠? 직업이 뭐예요?
큰 부자인가요? 정말 어떻게 생겼어요? 행복한 사람인가요? 친절하
고 생각이 깊은가요? 아내를 찾으러 왜 그리 멀리도 사람을 보냈어
요?”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겼을 때, 그분에 대해
얼마나 진정으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
도인의 삶이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 주시는
성령님의 개인적 가르침 아래에서 배우는 하나의 긴 경험입니다.

종이 이 열정적인 젊은 여자에게 그녀가 곧 만나게 될 남자에 대
해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종
은 그 아버지, 이삭에 대한 그의 사랑, 이삭이 어떻게 모든 것을 물려
받을 후계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계획과 목
적을 그에게 집중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
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그 여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
신 것임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의 조롱도 이야
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리아 산과 아버지와 아들이 어
떻게 함께 그 무서운 곳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삭이
죽음에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
삭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임무였
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갈망하는 것 역시 생각해보십시오.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름뿐이였습니다만, 점점 그는 그녀의 머리와 가슴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종을 통해 받은 단지 장신구에 불과한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즉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에는 그에 대한 꿈을 꾸곤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행자들에게 이삭에 대해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모두 이야기하곤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이삭은 점점 더 그녀에게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림자 같던 그는 점점 사라지고, 그녀에게 그는 더욱더 살아있고 실제적이고 생동감 있으며 자신의 마음을 준 경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기 시작하면서, 이삭으로 채워진 미래는 더욱 크고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추구하시는 일입니다. 시편기자와 같이 우리가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As the hart panteth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eth my soul after thee, O God—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1)라고 외칠 때까지, 주 예수를 갈망하는 마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더욱더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같이 우리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뜨거워져야 합니다.

또한 리브가가 이삭을 찾는 것을 생각해보십시오. “And Rebekah lifted up her eyes…and…she said unto the servant, What man is this that walketh in the field to meet us—그리고 리브가가 눈을 들어…그리고…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

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이니까”(24:65). 그녀는 이삭이 자기를 마중 나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사실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고 싶은 만큼 이삭도 리브가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여행이 끝나갈 즈음부터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E. 기다리는 아들(24:62-67)

그 동안 이삭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리아에 갔다 왔으며,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신부를 부르는 것은 또 다른 임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 나아갈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 시간은 틀림없이 길게 느껴졌겠지만, 마침내 그 대단한 날이 다가왔고, 이삭은 신부를 맞이해서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And Isaac brought her into his mother Sarah’s tent, and took Rebekah, and she became his wife; and he loved her—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¹²

리브가는 사라가 아니었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전에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자리에 교회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사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삭이 위로받는 것은 24장에서 설명되고, 아브라함이 위로받는 것은 25장에서 설명됩니다.

교회는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비워진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장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교회, 즉 그분의 피 값으로 산 신부에게서 그분의 모든 기쁨을 찾아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이며, 창세기 25장이 암시하듯이 장래 언젠가 잃었던 지위를 회복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임무는 완수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시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로 가득하십니다. 머지않아 기다림의 시간은 끝날 것이고, 그분은 일어나 신부를 맞으려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함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Behold, the Bridegroom cometh—보라, 신랑께서 오시도다” (마태복음 25:6). 그 날은 얼마나 엄청난 날이겠습니까!

XIV. 믿음의 이별(25:1-11)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장입니다. 나이 칠십오 세에 하나님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자신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순례자의 길을 출발하면서, 가족과의 인연을 끊은 그를 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한 세기가 다 지나, 그가 처음 우르에서 출발했던 그 날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강건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를 만난다는 것은 더욱더 인상적입니다. 출발을 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잘 끝낸다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A. 열매 맺은 사람(25:1-4)

-
12. 성경에서 사랑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언급을 주목하라. 창세기 22장에서 첫 번째 언급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언급을 보는데, 신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다. 성경의 예표론(豫表論)은 일관성이 있다

이제 사라가 죽은 지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어떤 연대기 학자에 따르면 같은 해에 셈이 600여 세라는 경이로운 나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홍수를 기억하고 있던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¹³ 셈이 죽자,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은 소유하지 못한 땅에서, 순례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외로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뚜렷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때문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 결혼하기로 합니다.

1. 아브라함의 결정(25:1)

아브라함의 결정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는 미디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은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의 주목할 만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Keturah)였는데,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향”(香) 또는 “향을 태우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는 복이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일과 인생의 모든 상황에 그 자신의 향기를 더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에는 향이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구약시대의 마리아였고, 그녀의 옥함을 깨뜨려 부었을 때, 그녀의 집은 향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두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여자였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녀는 하늘로 날아올라가는 향과 같이 그 주위의

13. 셈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가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의 가족은 얼마나 많은지,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아브라함은 셈의 먼 자손이었고(연대기가 완성될 수 있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8대손 정도 된다). 갈데아 우르에서 번성하면서 완전히 세속적